

건축사

2000 **02** vol. 370

- 칼럼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
- 특별기고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주장의 문제
-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 Ⅷ : 신도시(하)
-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완)



밀레니엄 특급세일



제안1/초특급



+



+



~~2,900,000~~



2,350,000 (V.A.T별)

- Celeror 466MHz
- 64MB Memory/8.4GB HDD
- 46x CD/Sound Card
- LAN Card/Windows98

- 17" Samsung Color Monitor

- AutoCAD LT98
- 라인아크 토마토
- 세한글

제안2/초특급



+



+



~~3,295,000~~



2,750,000 (V.A.T별도)

- HP Brio Pentium III 500MHz
- 64MB Memory/8.4GB HDD
- 46x CD/Sound Card
- LAN Card/Windows98

- AutoCAD LT98
- 라인아크 토마토
- 세한글

제안3/일체형



+



+



+



~~7,210,000~~



5,900,000

- HP Brio Pentium III 500MHz
- 64MB Memory/8.4GB HDD
- 46x CD/Sound Card
- LAN Card/Windows98

- 17" Samsung Color Monitor

- AutoCAD LT98
- 라인아크 토마토
- 세한글

- HP디자인젯 450C
- SIZE: A1
- Roll & 다리포함

- 상기 제품은 3.6개월 원리금 무이자 균등상환이 적용됩니다.
- 상기 LT버전은 AutoCAD LT98버전입니다.
- AutoCAD LT2000토마토의 UPGRADE 250,000이 추가됩니다.
- 상기 시스템 사양은 임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
완전한 기술로
복했습니다

“ 하지만 기능은
AutoCAD 그대로 ”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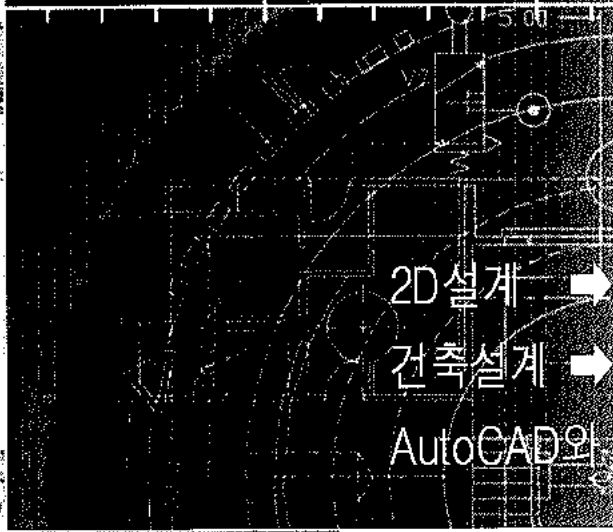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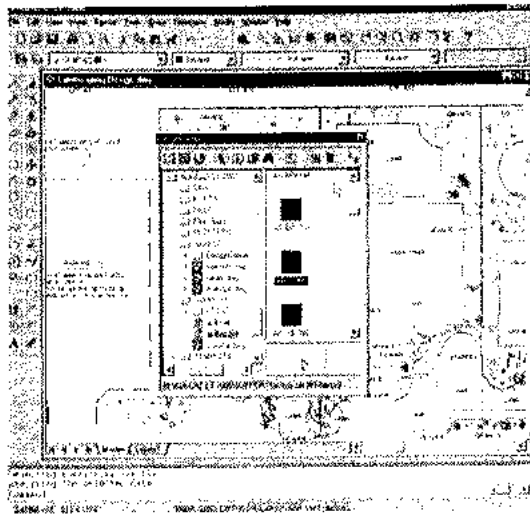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korea.com

“2D AutoCAD를

AutoCAD LT 2000

더 이상 적산/견적 프로그램은 고가일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건축인 모두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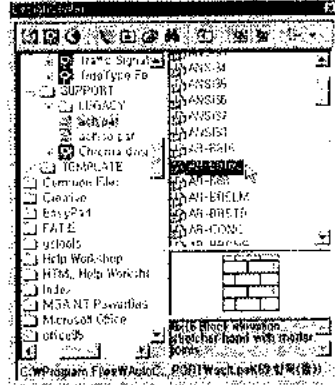


2D 설계 ➡ AutoCAD LT2000
건축설계 ➡ 라인아크 토마토 98/200
AutoCAD와 똑같이 설계하십시오!

백만명이 넘는 사용자가 말한 AutoCAD LT

“AutoCAD는 제가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기사와 계약자들이 선호했던 설계소프트웨어입니다. 2D 및 제도용으로 AutoCAD LT는 광범위한 건축 설계노력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선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James Larson
교장 및 일등건축가
Larson Architects



AutoCAD LT2000 소프트웨어는 100% AutoCAD 2000도면과 호환되기 때문에 AutoCAD 소프트웨어 사용자와 도면파일을 교환할 경우 가시적 동일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AutoCAD 릴리즈 14 및 13과도 호환되므로 이전 버전에서 작업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AutoCAD LT2000 주요기능

1. AutoCAD Design Center

윈도우 탐색기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도면의 블록, 해치 및 여러가지 속성을 작업도면에 쉽게 복사 할 수 있다.

2. 극좌표 추적 기능으로 제도 효율성 향상

3. 선 가중치 및 다중 배치의 지원으로 다양한 출력효과 창출

4. 명령 Undo/Redo 무제한적 실행

5. 다중도면 설계환경

다중도면을 동시편집 및 도면간의 데이터 교환가능

6.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의한 서브메뉴 감지기능

7. AutoCAD2000과의 완벽한 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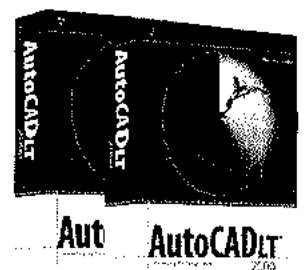
8. AutoCAD2000의 2D설계기능 모두 수용

9. 편리한 인터넷 접근을 위한 웹도구 지원

한국엔지니어링 전문 웹사이트

WWW.AECKKOREA.COM

정보화 사업의 유능한 파트너, 충실한 동반자로서
AECKKOREA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 웹사이트로
각각의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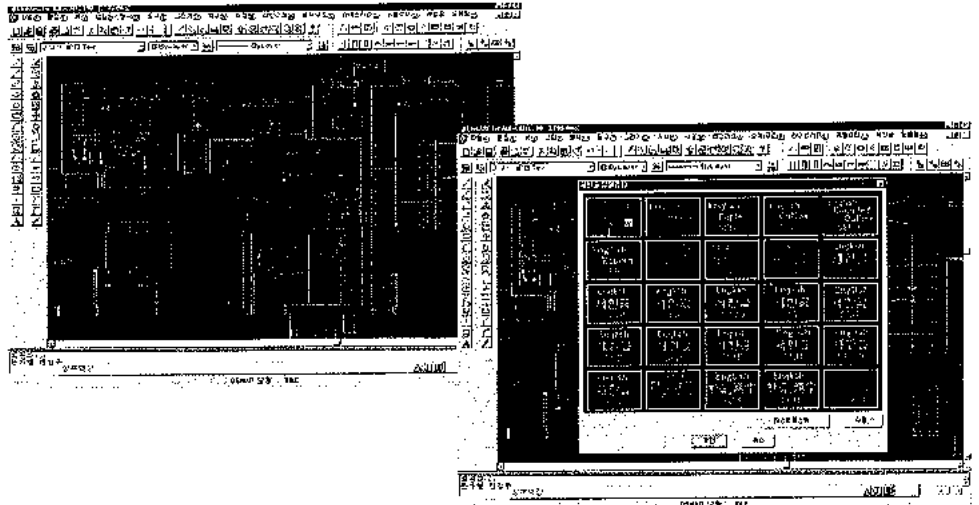


저렴하게 구입하십시오!!!

Millennium시대 개막 2D CAD에는?

LineARC Tomato 98/2000

These programs will be at the top in the 2D CAD world for the future



2D CAD의 확실한 왕좌 -
자체 기능의 99% +알파의 기능을 발휘 -
진정 건축설계의 필수품입니다.

라인아크 토마토98/2000 주요기능

■도면제도 환경설정

- 도면의 Scale size를 한번의 선택으로 자동설정
- 레이어 자동설정
- 치수환경 설정 관리자를 이용한
순쉬운 치수환경 변수 설정

■건축도면 요소 작성

- 벽 및 창호의 종류를 라이브러리화하여 자동입력
- 다양한 벽체 수정기능
- 자동치수 기입, M/C설계에 의한 치수기입
- 치수 기호 자동 변경기능

■구조도면 작성

- 보,기둥,계단,슬라브, 파일기초,옹벽기초등
각종 일람표 자동 작성
- 구조마크 자동 입력기능
- 구조마크의 형태 및 크기 사용자화
- 표준규격에 의한 철골 라이브러리 제공

■구적도 작성

- 지적도 면적 계산 및 자동 변경
- 구적도 및 면적 산출표 자동 작성
- 면적 단위 자동 환산

■심볼 라이브러리

- 건축 도면 작성시 필요한 심볼 라이브러리 제공
(업선된 1100여개의 블록)
- 심볼을 종류와 Size별로 평면, 정면도 제공
- 편리한 심볼 라이브러리 관리도구 제공

라인아크 토마토 98/2000 특징

■순수 C++/ARX 프로그램입니다.

■실행속도 15배이상 빨라졌습니다.

결국 진정한 C++/ARX 프로그램 만이 LT위에서
구동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위한 모든 내용을

Programing 했습니다.(AutoCAD용 라인아크와 동일)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Win95/Win98/Win NT/WinNT2000)

■PULL DOWNMENU에서 명령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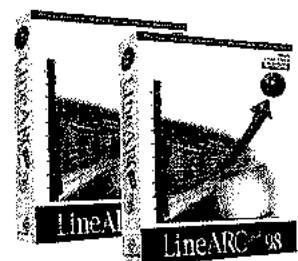
실행 가능합니다.(Win95/Win98/Win NT/WinNT2000)

■명령어 입력 대화상자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찾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인아크 Utility)

■가장 어려운 기하해석을 C/C++로 코딩했습니다.

■Vector폰트와 타 한글의 Convert기능을 제공합니다.
(세한글 폰트 사용)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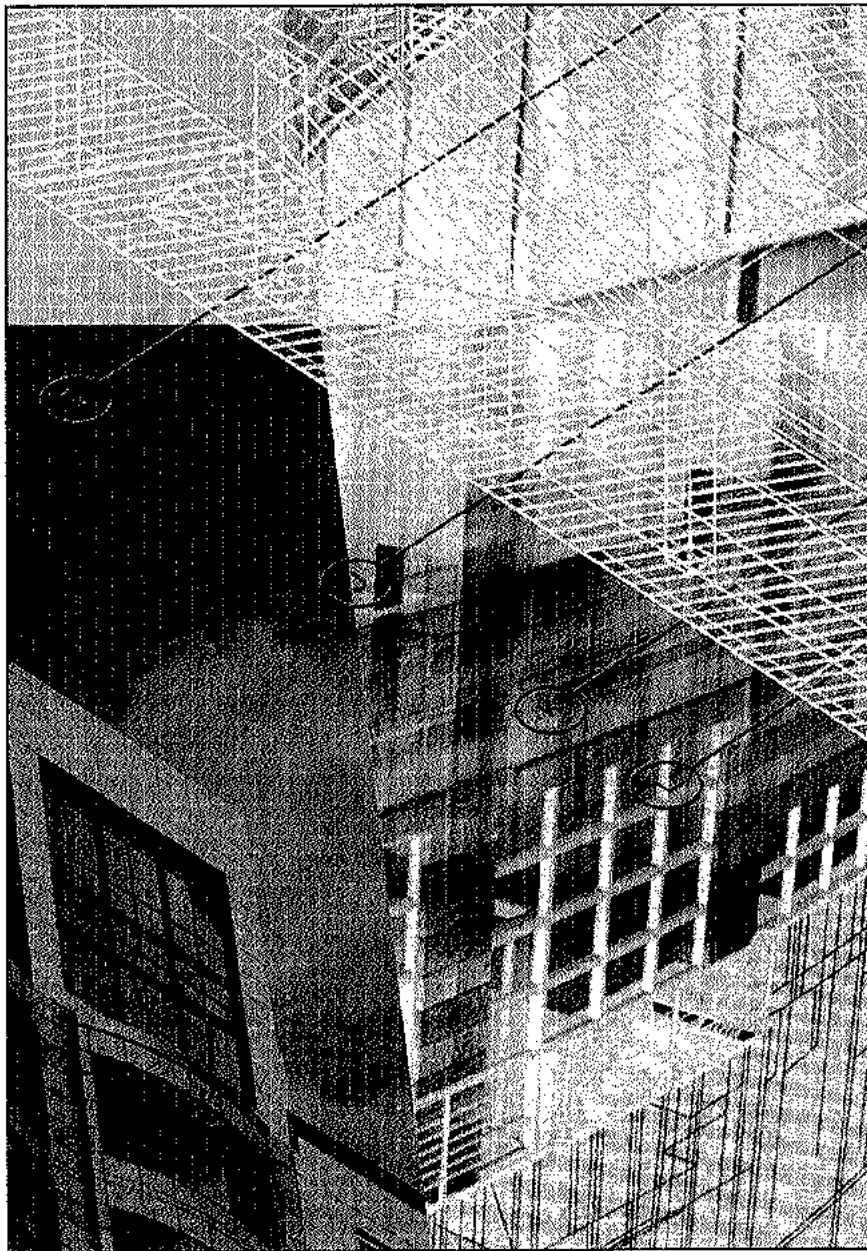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korea.com

전국딜러모집중

준비하셨습니다

비교불허!

개념설계에서실시설계,공사용도서작성까지건축설계작업을하나로끝내줍니다.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R2

공사용 도서작성만 되던 기존의 건축설계 소프트웨어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초기 개념설계에서 마지막 공사용 도서작성까지 건축설계의 전과정에 걸쳐 활용의 폭을 넓혔을 뿐 아니라 실설계 작업도 객체지향(Object ARX)기술을 도입, 대폭 단순화 시켰습니다. 창문을 불러와 사이즈를 변경하고 변경된 위치에 넣는 작업이 한번에 끝납니다.



주요특징

- 건축관련 사용자 인터페이스
- Model Explorer를 이용해 더욱 손쉬워진 Mass Study
- 유형기반 AEC 객체 지원
(벽체, 문, 창호, 기둥, 계단, 지붕...)
- 문맥 감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열되는 팝업 메뉴
- 도서양식을 표현하기 위한 뷰 시스템에 의한 뷰 종속적인 객체 표현
- 건축요소와 관련된 각종 일람표 및 보고서 작성

ADT Visualization Suite ADT R2 + 3DSVIZ R3통합패키지

ADT로 작업한 3차원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편집, 렌더링, 애니메이션화 하여 통합 프리젠테이션 환경 제공

- 풍부한 재질 및 조명효과
- ADT파일과의 완벽한 호환
- Panoramic 렌더링 지원
- DWG Linking 및 ObjectARX™ 애플리케이션 지원
- 수백가지의 AEC 객체 샘플 및 유연한 3D 객체 스타일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 <http://www.aecckorea.com>

건축가를 위한
신개념 AutoCAD

Architectural Desktop

ADT

건축인을 위한 인터넷 PC- LAN 카드와 CD롬 드라이브는 기본으로 6개월 무이자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

건축 CAD 분야에서 10년간 독보적인 위치를 다져온 저의 (주)라인테크시스템이
당신의 비즈니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HP 브리오 PC를 특별히 부담없는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Engineered on a human level.

- | | |
|--|---|
| ● 최상의 S/W와 신뢰성 있는 HP 브리오 PC | ● 최상의 S/W와 신뢰성 있는 HP 브리오 PC |
| ● 17" 모니터 (Resolution 1600×1200) | ● 17" 모니터 (Resolution 1600×1200) |
| ● 라인테크 세한글 건축전용 프로그램 포함 | ● 라인테크 세한글 건축전용 프로그램 포함 |
| + | + |
| ● ADT(Architectural Desk Top) 포함 | ● ADT + 3DS Viz 통합 패키지 |
| ₩2,799,000 → ₩6,000,000 (VAT별도) | ₩10,799,000 → ₩7,000,000 (VAT별도) |

HP 브리오 BA 비즈니스용 PC:

Intel® Pentium® III 프로세서 500MHz
128 MB RAM, 8.4GB HD
48배속 CD-ROM 드라이브
10/100 BT LAN CARD
Windows 98® 기본 장착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09 천지빌딩 (우) 135-080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http://www.aeckorea.com>

더 이상 적산/견적 프로그램은 고가일 이유가 없으며, 이제는 대한민국 건축인 모두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비교불허”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
사용자 동영상까지



■ 실무자 위주의 편리성

수많은 실무자/현장여건/설계환경 조사로 누구보다도
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사용법 제시
Windows 95/98 NT 등 어느 환경에서도 작업과 호환성이 가능하다.
예) 공통, 일반 가설 공사는 품셈 기준으로 산식이 되어 있으며,
1분안에 내역집계까지 완성 할 수 있다.

■ 최상의 환경에서 모든 작업이 물량산출과 동시에

역대 최강의 DB엔진으로 물량산출과 동시에
산출서, 내역서, 내역집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분기별 단가와 최저단가, 조달청 단가를 자유로이 적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임의 단가를 적용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산출자가 입력한 DATA는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Auto Save 기능으로 보호된
다.

■ 상세한 산출근거를 공정관리에 접목

물량산출과 집계표상에서 공정별 주요자재(철근, 거푸집, 콘크리트,
벽돌, 시멘트, 모래 등)의 소용량을 총별로 체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정/자재관리를 할 수 있다.
예) 조적공사는 m²계산하면 벽돌량, 쌓기량, 운반량, 시멘트, 모래 등을
자동으로 계산

■ 가장 중요산 적산/견적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핵심기능은 현장 실 투입 물량산출이다.
특히, 철근부분의 교과서적인 산출과 임의 산출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1군 업체와 각 현장별 투입 물량을 근거로
완성된 골조물량 산출방식은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
예) 경사지붕/모임지붕은 배근상태 입력후 중시도면 입력하면 된다.
APT 계단실 1~20층까지 1분안에 완성가능, 각 TYPE별로 철근 지름별 정작계산

■ 도입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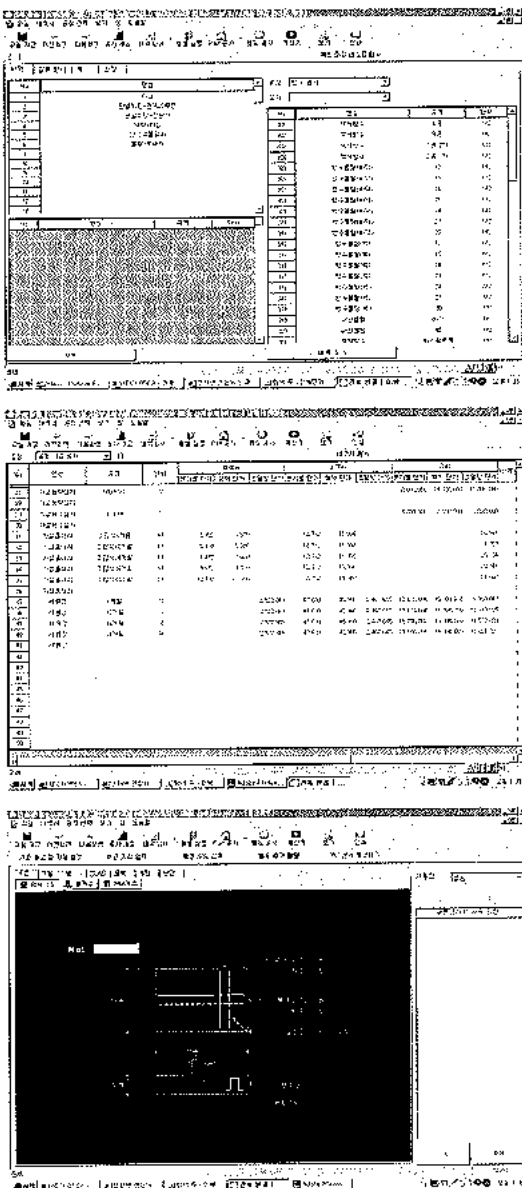
Estimation Ver 2.1 정품을 구매하신 고객에게는 최상의 업그레이드와
각 실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기별 단가표/각 현장 물량 등

■ DEMO CD는 www.aeckora.com으로
신청하십시오.



21세기 건축·기계설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라인테크시스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09번지 천지빌딩
TEL : (02)569-1814 FAX : (02)569-1817
<http://www.linetek.co.kr> <http://www.aeckorea.com>



건축 엔지니어링 웹사(www.aeckorea.com)

WWW.AEC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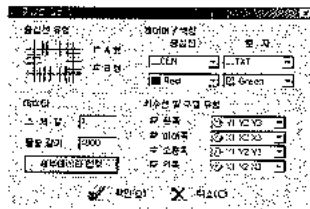
정보화 사업의 유능한 파트너, 충실한 동반자로서
AECKOREA는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전문 웹사이트로
각각의 사업분야에 전문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IntelliCAD/IntelliARC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인텔리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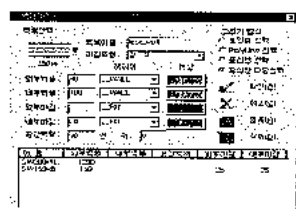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 IntelliARC의 Upgrade 기능 안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많은 건축설계지원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다이내웨어 홈페이지 <http://www.iarc.co.kr>에서 지금 다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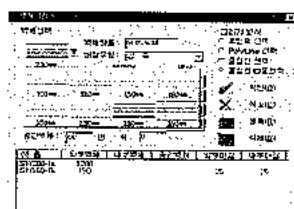
▲ 개선된 중심선 그리기



▲ 개선된 치수선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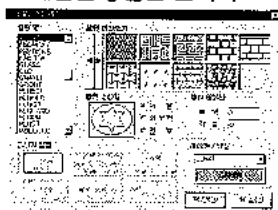
▲ 다중 벽체 그리기



▲ 개선된 백채선택/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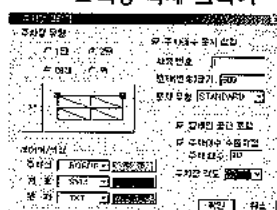
▲ 개선된 벽체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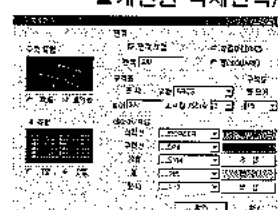
▲ 인텔리아크 매치



▲ 치수기입도구



개선된 주차장 그리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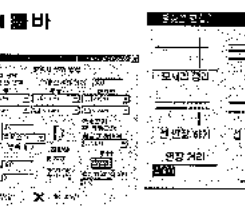
▲ 개선된 구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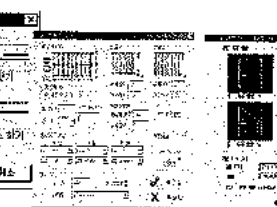
▲ 창/문 심플삽입



▲ 창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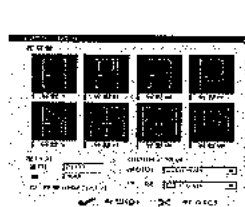


▲ 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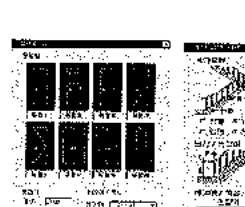


중심선 편집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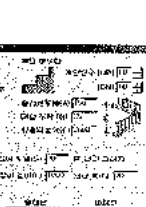
▲ 계단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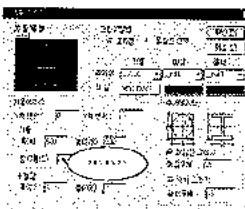
▲ 창문 그리기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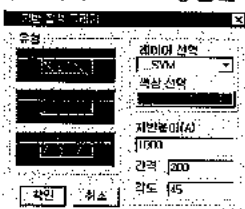
▲ 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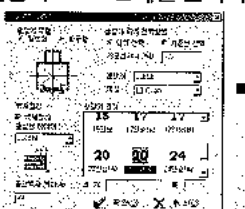
▲ 계단 입단면 그리기



▲ 기둥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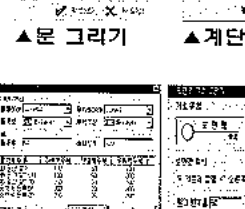
▲ 지반/잡석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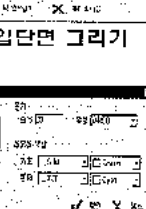
▲ 승강기 그리기



▲ 벽체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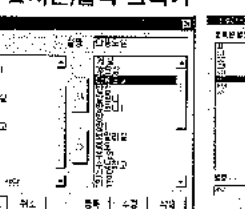
▲ 단면 벽체 벽돌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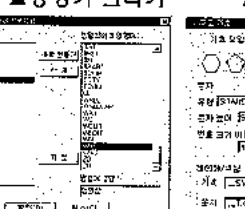
▲ 도면명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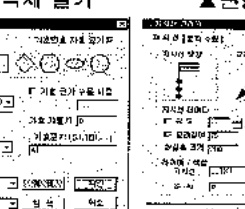
▲ 실내 면적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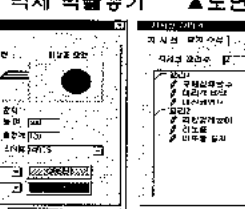
▲ 실내명 등록기



▲ 단축키 대화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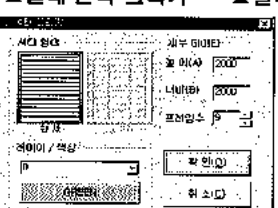
▲ 구조 기호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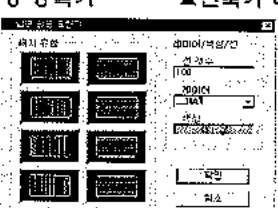
▲ 지시선 그리기



▲ 지시선 단어등록



▲ 서터 표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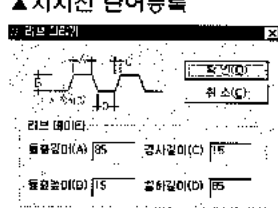
▲ 입면 원근 표현기



▲ 단열재 그리기



▲ 우수/오수 동선 그리기



▲ 라브 그리기

IntelliARC개발사
db 다이내웨어 씨지
<http://www.iarc.co.kr>
TEL:02-2214-0586 FAX:02-2244-03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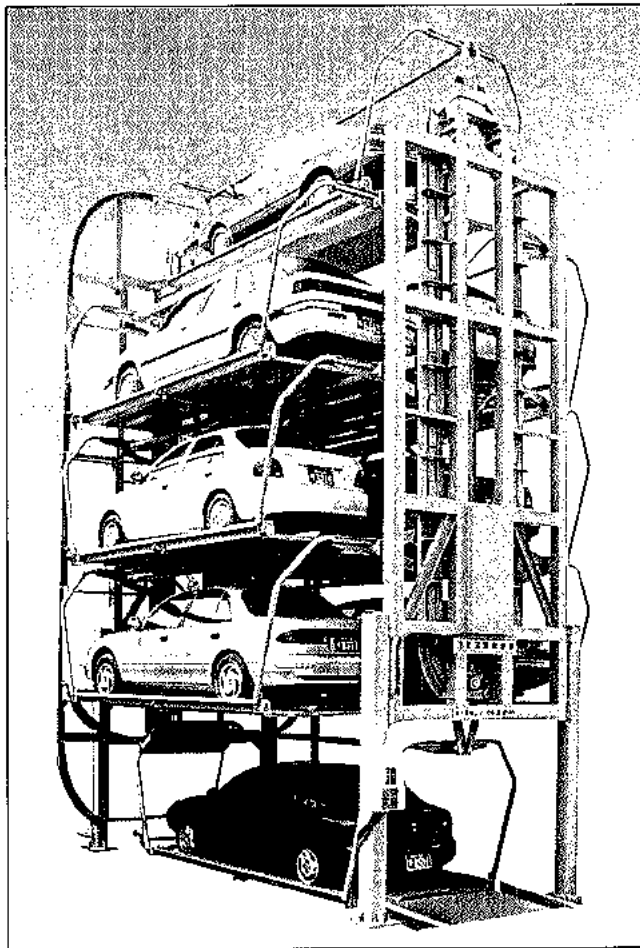
총판
지인 테크놀로지
<http://www.icad.co.kr>
TEL: 02-323-0286
FAX:02-322-0488

IntelliARC는 제3회 CAD/CAM학회 공모전에서 2000년도 2월 등상 수상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이내웨어 홈페이지에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인정서번호 대구 제1-15호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道者生存의 無限競争時代
"자신 있습니다"



사양

모 델 명	수용대수	외형치수(전폭, 전장, 소요높이)
SKY PARK8	8대	4570 5990 9370
SKY PARK7	7대	↓ ↓ 8480
SKY PARK6	6대	↓ ↓ 7590
SKY PARK5	5대	↓ ↓ 6700

※높고넓은 수용가능 ※원데이팅 제장원도 개조가능

· [자매품] Pk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대구 제4-25호)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더 이상의 고품질은 사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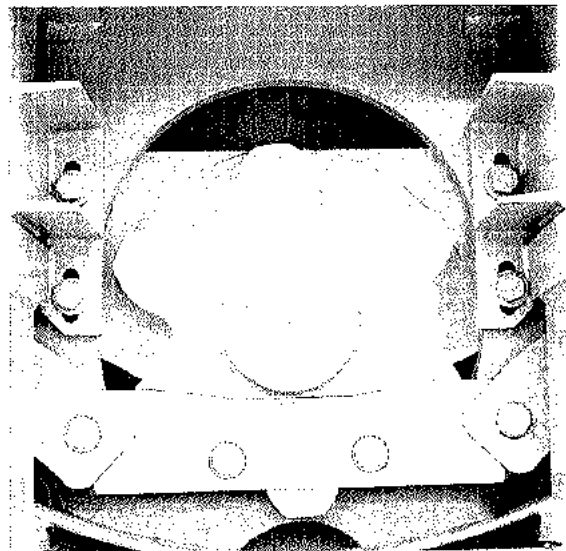
더 이하의 저가격은 덤핑이다!!

더 이하의 주차기 폭은 불가능하다!!

세계최소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이렇게 타릅니다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직결구동의 新메커니즘



따라서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수출상담 및 전국대리점 모집중



21세기 신주차개념의 주차기 전문회사

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CHANG GONG INDUSTRY

주소: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756-271번지

ADD:#756-271, Gum Sa Dong, Dong Gu, Tae Gu, Korea

TEL:(053)956-8838(代) FAX:(053)984-1998 E-mail:cgp21@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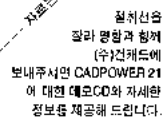
H·P:011-507-8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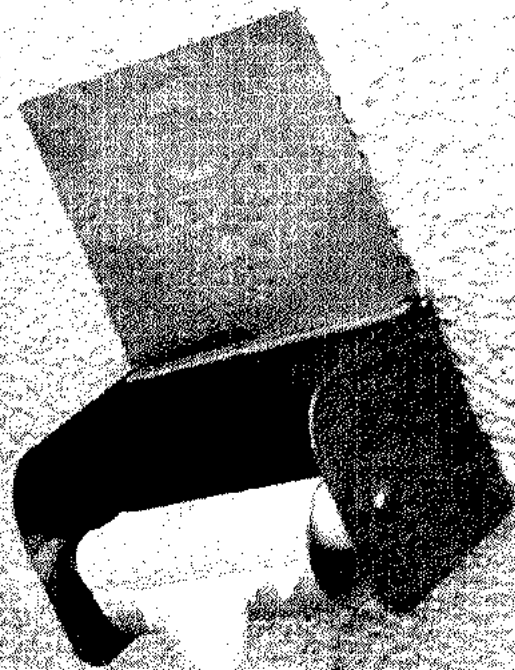
The screenshot shows the 'Roads' window in AutoCAD. It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名称	类型	状态
101 国道	公路	已建成
102 国道	公路	已建成
103 国道	公路	已建成
104 国道	公路	已建成
105 国道	公路	已建成
106 国道	公路	已建成
107 国道	公路	已建成
108 国道	公路	已建成
109 国道	公路	已建成
110 国道	公路	已建成
111 国道	公路	已建成
112 国道	公路	已建成
113 国道	公路	已建成
114 国道	公路	已建成
115 国道	公路	已建成
116 国道	公路	已建成
117 国道	公路	已建成
118 国道	公路	已建成
119 国道	公路	已建成
120 国道	公路	已建成
121 国道	公路	已建成
122 国道	公路	已建成
123 国道	公路	已建成
124 国道	公路	已建成
125 国道	公路	已建成
126 国道	公路	已建成
127 国道	公路	已建成
128 国道	公路	已建成
129 国道	公路	已建成
130 国道	公路	已建成
131 国道	公路	已建成
132 国道	公路	已建成
133 国道	公路	已建成
134 国道	公路	已建成
135 国道	公路	已建成
136 国道	公路	已建成
137 国道	公路	已建成
138 国道	公路	已建成
139 国道	公路	已建成
140 国道	公路	已建成
141 国道	公路	已建成
142 国道	公路	已建成
143 国道	公路	已建成
144 国道	公路	已建成
145 国道	公路	已建成
146 国道	公路	已建成
147 国道	公路	已建成
148 国道	公路	已建成
149 国道	公路	已建成
150 国道	公路	已建成
151 国道	公路	已建成
152 国道	公路	已建成
153 国道	公路	已建成
154 国道	公路	已建成
155 国道	公路	已建成
156 国道	公路	已建成
157 国道	公路	已建成
158 国道	公路	已建成
159 国道	公路	已建成
160 国道	公路	已建成
161 国道	公路	已建成
162 国道	公路	已建成
163 国道	公路	已建成
164 国道	公路	已建成
165 国道	公路	已建成
166 国道	公路	已建成
167 国道	公路	已建成
168 国道	公路	已建成
169 国道	公路	已建成
170 国道	公路	已建成
171 国道	公路	已建成
172 国道	公路	已建成
173 国道	公路	已建成
174 国道	公路	已建成
175 国道	公路	已建成
176 国道	公路	已建成
177 国道	公路	已建成
178 国道	公路	已建成
179 国道	公路	已建成
180 国道	公路	已建成
181 国道	公路	已建成
182 国道	公路	已建成
183 国道	公路	已建成
184 国道	公路	已建成
185 国道	公路	已建成
186 国道	公路	已建成
187 国道	公路	已建成
188 国道	公路	已建成
189 国道	公路	已建成
190 国道	公路	已建成
191 国道	公路	已建成
192 国道	公路	已建成
193 国道	公路	已建成
194 国道	公路	已建成
195 国道	公路	已建成
196 国道	公路	已建成
197 国道	公路	已建成
198 国道	公路	已建成
199 国道	公路	已建成
200 国道	公路	已建成

- 객체설계 지원(Object ARX Base)
- 명령어의 단순화와 통합화
벽, 문, 창, Dimension, Layer
- 사용자 Menu 구성
명령어 그룹별 관리, 사용자 정의 가능
- 동적인 수정과 일괄처리에 의한 마감재 작성
마감재 DB구축, 사용자 정의에 의한 마감표 정의, 여러 개의 도면을 선택, 일괄적인 수정 가능
- MC설계 지원
"공공건축물 MC설계 지침"에 따른 MC설계 지원
- 도면관리 지원
설계작업 정보를 도면과 통합적으로 관리, DB구축
- 타프로그래밍 사용자를 위한 기능
Text Convert 기능(사용자 정의 폰트로 변경)
Layer Control
Oneskey(타프로그래밍 호환)
- 기존 CADPOWER 기능 강화(DRS, CC, MMD, WAL...)
- TEXT편집 기능, Arc(벽, 면적)지원
- Autocad R14 이상에서만 지원



헉! 휴지가...



급하게 필요할 땐

www.changko.co.kr

전산소모품, 당신이 앉아 있는 곳까지 갖다 드립니다.

전산소모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 창고
www.changko.co.kr / 080-710-1472

주문 후 1시간 내 무료 배달로 귀하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드립니다.
물품 수령 확인 후 대금을 지불하나 온라인 · 카드 결제의 불안 · 불편함도 사라집니다.
전산소모품, 급하게 필요할 땐 인터넷 창고에서 꺼내 쓰세요.

가맹점 모집

문의전화 (032)822-5533

▶지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춘천(강원)
▶지점: 양산 아산 포항 구미
▶가맹점: 전국 시·군·면위

■ 취급 품목

프린터 소모품
컴퓨터 용품

기타 사무용품

잉크카트리지, 토너카트리지, 각종 출력용지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주변기기(마우스, 스피커 등),
액세서리류

무료 주문 전화

080-710-1472

■ 전산소모품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전문 쇼핑몰
■ 주문은 간편하게 인터넷과 080으로 즉시
■ 상품수령은 한개라도 1시간 이내 직접

■ 대금 지불은 수령상품 확인 후 지불
■ 주문전 가격 조회 및 견적서 출력
■ 푸짐하고 다양한 경품 / 이벤트



캐릭터: 타 리
"타 리"는 장차하고 신속한
서비스 향상을 모토로
디자인 되었습니다.

EPSON® hp IBM 3M K X

PHILIPS SKC SAMSUNG SK Telecom 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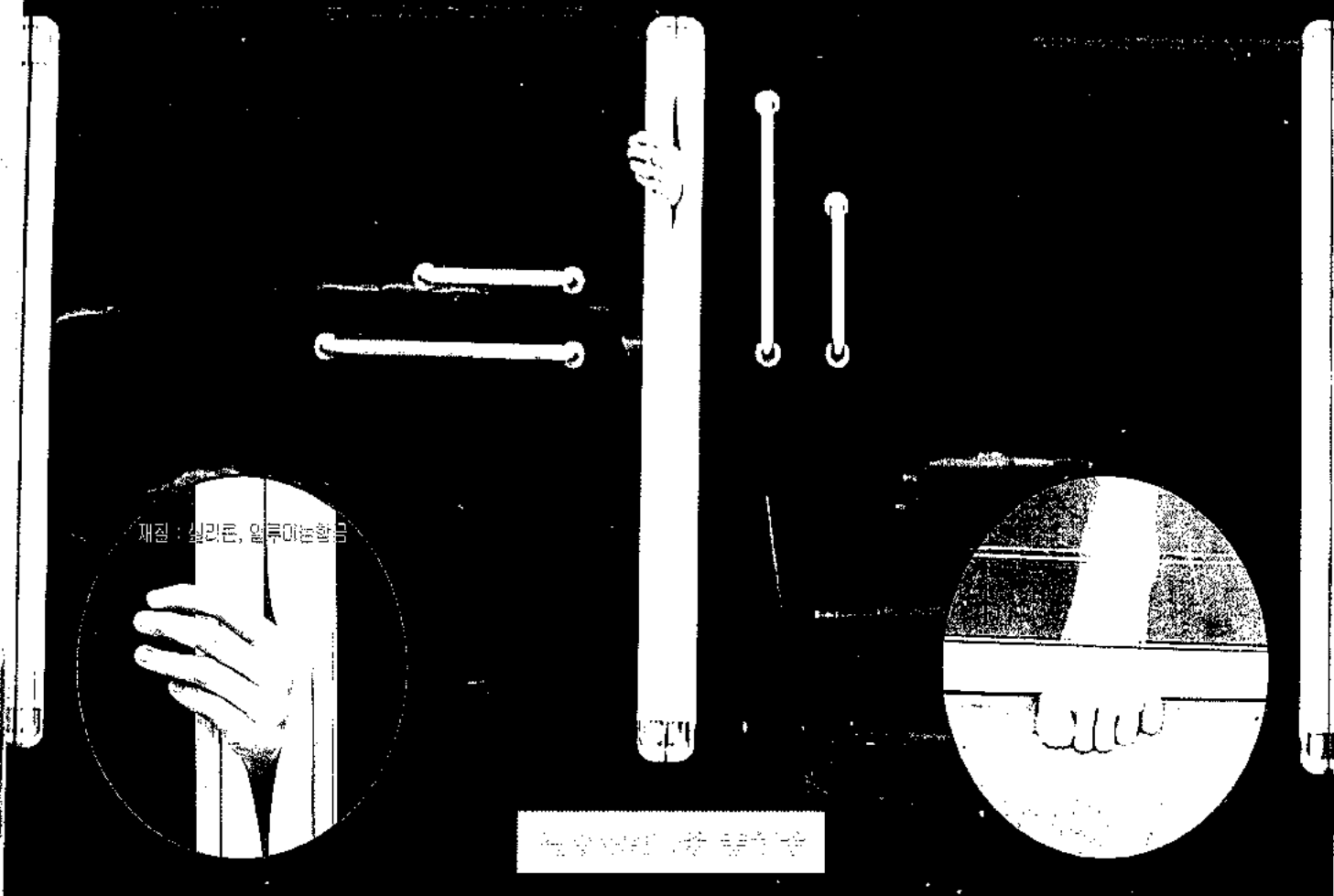
인터넷 쇼핑몰 전문회사 주식회사 액티브 웹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403호
TEL: (032)662-2288 FAX: (032)245-2006
www.activeweb.co.kr

전산소모품 전문업체 주식회사 인터넷창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83-4
TEL: (032)822-5533 FAX: (032)815-6444
www.changk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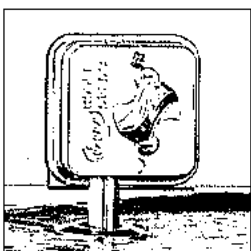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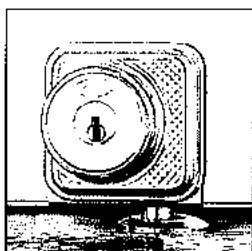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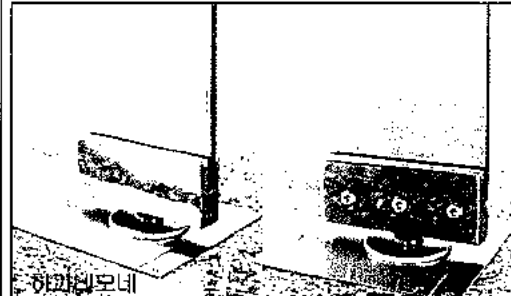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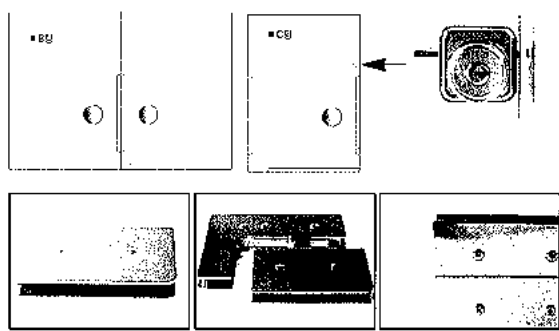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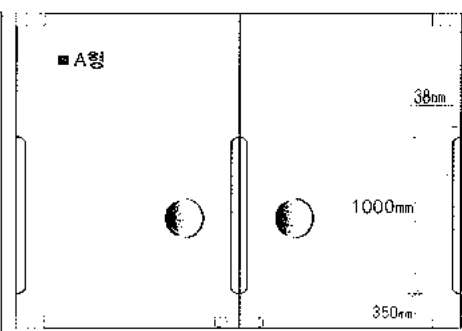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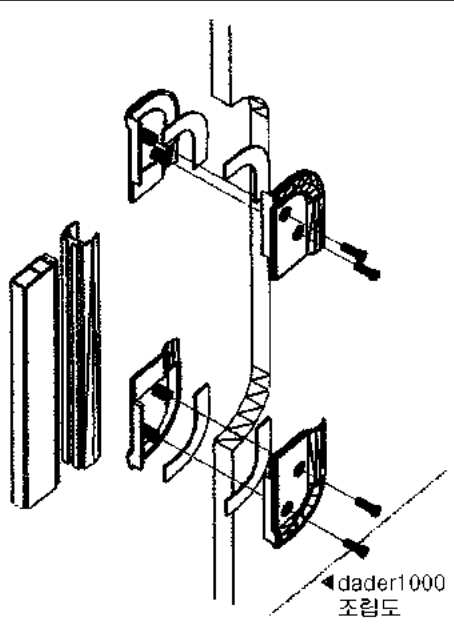


유리문 안전사고는 인재입니다.

21세기는 신원안전유리가 심여를 기울려 개발한
dader® 1000이 책임집니다.



신원안전유리



d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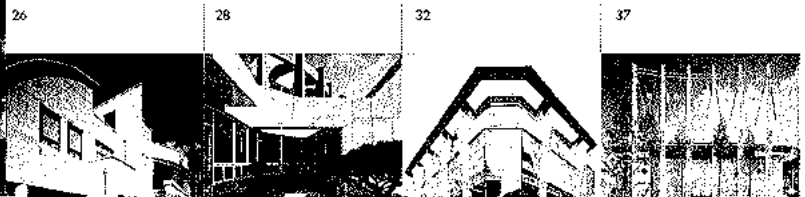
(주)신원안전유리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496-6
대표전화 062-527-0170
FAX 062-527-4868

강화유리제조
가네모네
하와이모네
중간질금장 치
안전강화도어
도어H바 후레임

차례 2000 02 37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변 용 · 장응재 작)



발행인: 이의규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연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효상,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kjo@kira.or.kr, hsyoung@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2266-4555
 광고: (주)이두컴 (02)566-3984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ung-Hwo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	장양순	16
특별기고	"학부 5년제 문제 있다"는 주장의 문제	김광현	18
회원작품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변 용 · 장응재	22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하금현	26
	엔터테마빌딩	박홍근+최 일	28
	계전빌딩	정대락	32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강철구 · 김태인	34
	그린힐 레스토랑	김성곤	38
작품노트	TF	최수익	40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15: 신도시(하)		편집디렉터/동정근	43
	신도시의 주거문화와 삶의 질	권용우	44
	분당 신도시 분당	이 영	49
	일산 신도시 산책	김성홍	53
	좌담: 신도시의 건축과 도시문화		57
기고	건축기술부분을 퇴출시켜 건축설계사가 되어야 하나	김용철	72
	호랑이 할아버지를 추모하며	조현군	80
해외건축	프랑스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완)	김미상	82
건축마당	건축만평		89
	협회소식		90
	건축계소식		91
	해외집지동향		97
	현상설계		100
	통계(1999년도 12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102
	회원현황		104
	게시판		105

Column

The Ministry of Labor's Approach Towards Architects	Chang Yang-Soon	16
---	-----------------	----

Special Issue

On the Issue of 5 Years of Architectural College Education	Kim Kwang-Hyun	18
--	----------------	----

Works

Yonsu-gu Office	Byun Yong & Chang Eung-Jae	22
Yanggu Branch of Nonghyup Bank	Ha Geum-Hyeon	26
ENTER Thema Building	Park Hong-Guen & Choi Il	28
Gyejeon Building	Jeong Dae-Lag	32
Amphitheater Renovation of Yonsei University	Kang Cheol-Ku & Kim Tae-In	34
Green Hill Restaurant	Kim Sung-Gon	38

Design Note

Territory File	Choi Soo-Ik	40
----------------	-------------	----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15: Newtowns	Dong Jung-Geun	43
---	----------------	----

The Living Culture and Quality of Life in Newtown	Kwon Yong-Woo	44
Bundang Newtown Bundang	Lee Young	49
Ilsan Strolling about in the Ilsan Newtown	Kim Sung-Hong	53
Conversation : Urban Culture and Architecture In Newtown		57

Feature

Does the Design Field of Architecture Need to Expel the Technological Aspects?	Kim Yong-Cheol	72
In Memory of "Old Tiger" - Architect Cho Ja-Yong	Cho Hyun-Goon	80

Overseas Architecture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Kim Mi-Sang	82
---	-------------	----

Architects' Plaza

Cartoon	89
KIRA News	90
Archi-net	91
Overseas Journal	97
Competition	100
Statistics	102
Members	104
Bulletin Board	10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303-5425 · 강서구건축사회/604-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5 · 노원구건축사회/3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474-6100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8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37-303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3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994-4121 · 안산지역건축사회/(0345)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42-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957-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38)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957-6149 · 오산시건축사회/(0330)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35)336-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91)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633-8183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1743-720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1)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643-3666 · 충주지역건축사회/(0441)3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51)8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0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5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8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0)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8688 · 무성지역건축사회/(0581)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244-6025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635-6870 · 기성지역건축사회/(0589)943-608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5)334-6644 · 마령지역건축사회/(0551)245-3173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60)8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61)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3)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6)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

The Ministry of Labor's Approach Towards Architects

장양순 / 본지 편찬위원장, 동명건축

by Chang Yang-Soon

작년 한 해 매스컴들은 다가올 새 천년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미래 예측 특집들을 만들었다. 이제 그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은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다. 천년의 세월로 본다면 티끌과 같으나 이 짧은 기간에도 세상은 그들의 예측처럼 눈부시게 진보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 모 대학 의학팀은 체세포 하나로 인체의 어떤 기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가 하면 IMT-2000 즉 국제 이동통신 영상전화가 한일간의 첫 통화를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학·과학 분야 외에도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의 시작, 인터넷 금융거래의 폭발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 서울에서 사망한 사람의 55%가 화장을 한 것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기술개발과 함께 의식혁명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답보하는 쪽도 있다.

당리를 우선하는 정당들은 선거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급기야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게 하였다. 그럼에도 선거법은 1인 1투표제와 2투표제가 대립되어 시한전에야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자신들에 관한 법률도 제때 처리 못하면서 얼마 전에는 부실공사 건설기술자는 사형이라는 「반신회 부정확 부실 전문가 사법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고 정치권이 이러하니 사회상 또한 서글픈 현실 뿐이다. 이기주의와 금전만능주의는 병원과 초등학교의 급식용 쇠고기를 폐기 처분된 젃소고기로 남몰래 하였으며 성적타락은 급기야 초등학교생까지 원조교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행정 또한 편의주의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만 하여도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설계책임은 건축사가 시공책임은 기사나 기술사가 그리고 검사책임은 당해 관청의 공무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하면 되는 것을, 시공 및 사용검사 그리고 사후 일정기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받는 불이익이 어찌 한 두가지인가.

얼마 전 노동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을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통일된 기준 하에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 협회에 의견조회가 있었다. 내용인즉 건축사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을 상기법률에 의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통합방안을 보면 현행 국가자격 관리체계는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자격을 통일적 운영을 저해하고 유사한 국가자격을 남발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가기술 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을 통합,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자격을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되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자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서 현행대로 관장토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국가자격 기본법에 의한 기술자격은 총 599개 종목으로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종목은 118개로써 건축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부 안에 따르면 건축사는 국가기술 자격과 상호 중복 또는 유사종목으로 분류되어 통합해야 하는 쪽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비해 통합 제외 자격 목록을 보면 첫째,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되 단계별 자격등급 체계가 필요없는 자격으로 법무사, (한)약사, (한,치과)의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응급구조사의 13종목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산업인력의 수급 동향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주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격에는 감정평가사, 비행기조종사 등 30종목이 있다. 건축사의 경우 이 두 항목에 모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아니하다.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였다. <건축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더 없이 좋은 해였으며 나름대로 노력도 하였다. WTO는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증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집행을 UIA에 위임하였고, 이들은 기준을 제정하여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건교부, 교육부와 우리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이미 건축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2차에 걸쳐 시행했으며, 이에 관한 본협회 회장의 컬럼이 조선, 동아일보에 게재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의 법안 제정 실무자들은 건축사가「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되 단계별 자격등급제가 필요없는 자격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UIA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건축물의 미적,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고 자금 조달, 공사비 산정 등 건축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제3의 기관이 인증한 대학에서 제3의 기관이 인증한 건축관련 교과목을 최소 5년 이상 교육 받은 후 지도건축사 감독 하에 설계에서 계약관리까지, 대학 졸업 후 최소 2년간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고 인턴과정 후 시험 또는 인터뷰를 통해 능력과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UIA 요건이 아니어도 현행 국내법 상으로 우리 건축사는 여타 기사나 기술사들과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자체가 다르다.

이 문제는 협회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오류와 부당성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되 자격 등급체제가 필요없는 자격」으로 분류되어 통합제외 자격에 자리매김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며칠 전 변호사의 특권(세무사, 변리사 자격 보유)폐지 법안이 끝내 무산 된 바와 같이 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당위성이 제대로 수용될 지 일말의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노동부의 무지를 탓할 수도 있고, 무사안일주의로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부 각 부처와 국민들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권에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지지여부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AIA처럼 정회원 외에 준회원, 예비회원, 제휴회원, 학생회원 등 회원을 다양화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비단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 뿐 아니라 향후 우리협회의 운영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이 한심하고 섭섭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승적 방법이며, 앞날의 발전을 기약하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사 Yonsu-gu Office

변 용 · 장응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Designed by Byun Yong & Chang Eung-Ja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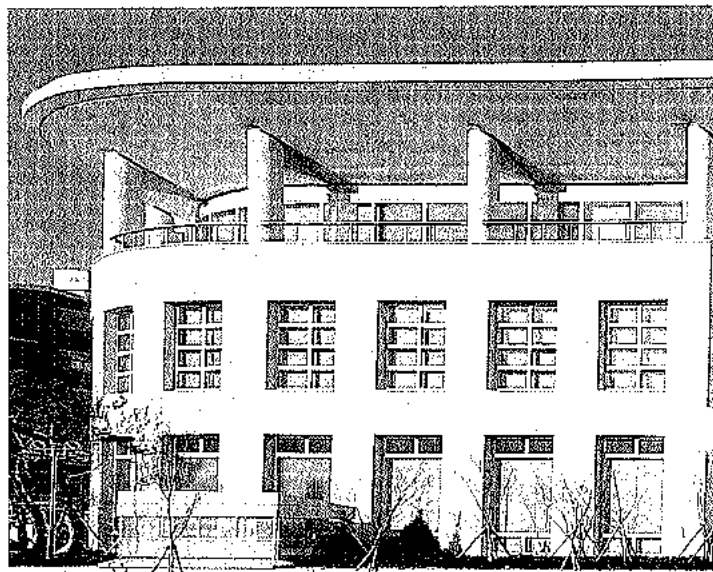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3-5, 6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건축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사공사	코오롱 건설 주식회사
대지면적	21,792.2㎡
건축면적	5,469.98㎡
연면적	39,937.5㎡
최고높이	38.3m
건폐율	25.10%
용적률	105.37%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기계설비	정밀량 단일덕트 방식 + 팬코일 유닛
전기설비	2회선 수전방식, 3상 4선식 229KV 60Hz, 수 전 용 량 2500KVA
설계담당	김원중, 박종성
구조설계	서울구조
전기설계	문전기
기계설계	한일MEC
조경설계	동심원
사진	염승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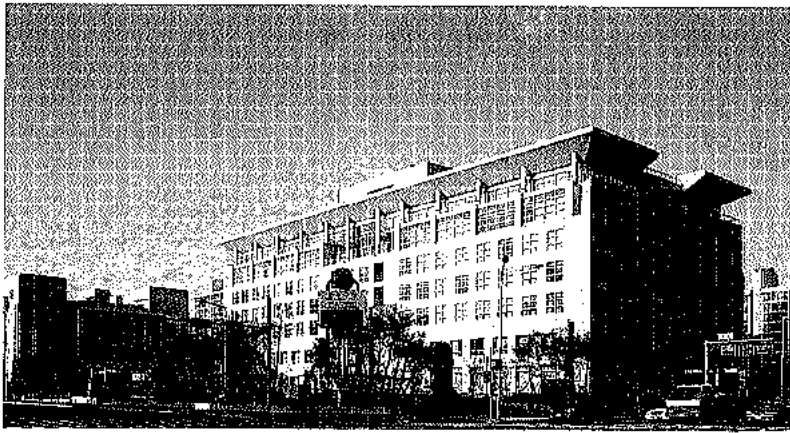
우리 설계팀은 수차에 걸쳐 건축적 시스템으로서 시민의 장소구현을 위한 청사건물 계획에 참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실현되지 못한 계획안으로서는 정부청사계획안, 동대문구청사 현상안을 들 수 있고 구현된 프로젝트로서 대법원청사, 중랑구청사의 건축계획을 꼽을 수 있다. 이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의 일관된 건축적 목표를 건축적 시스템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뤄짐으로써 구청건물로서는 두 번째의 결실로 이해하고자 한다.

항상 그렇듯이 대지와 프로그램 그리고 몇 가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광장의 배치로부터 출발하여 구청사와 구의회와 독립성과 정면성 및 연계성을 위한 절충을 찾아내고, 민원실 입구와 아트리움, 주차장 이용 민원인으로 연결되는 구청사의 축을 대지축에 일치시켜 40m 도로측에서의 또 하나의 정면성 부여를 위해 노력하였다. 조금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상부로 7개층이 오픈된 아트리움의 공간은 구청으로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민원해결과 휴게공간의 역할을 하며, 구청사의 내부 중심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방문자에게 기억의 장소화가 될 것이다.

문화적 장소로서의 구의회 1층, 편의시설로서 지하1층 대강당, 식당 등의 이용을 옥내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고, 선큰 가든을 통하여 광장 및 옥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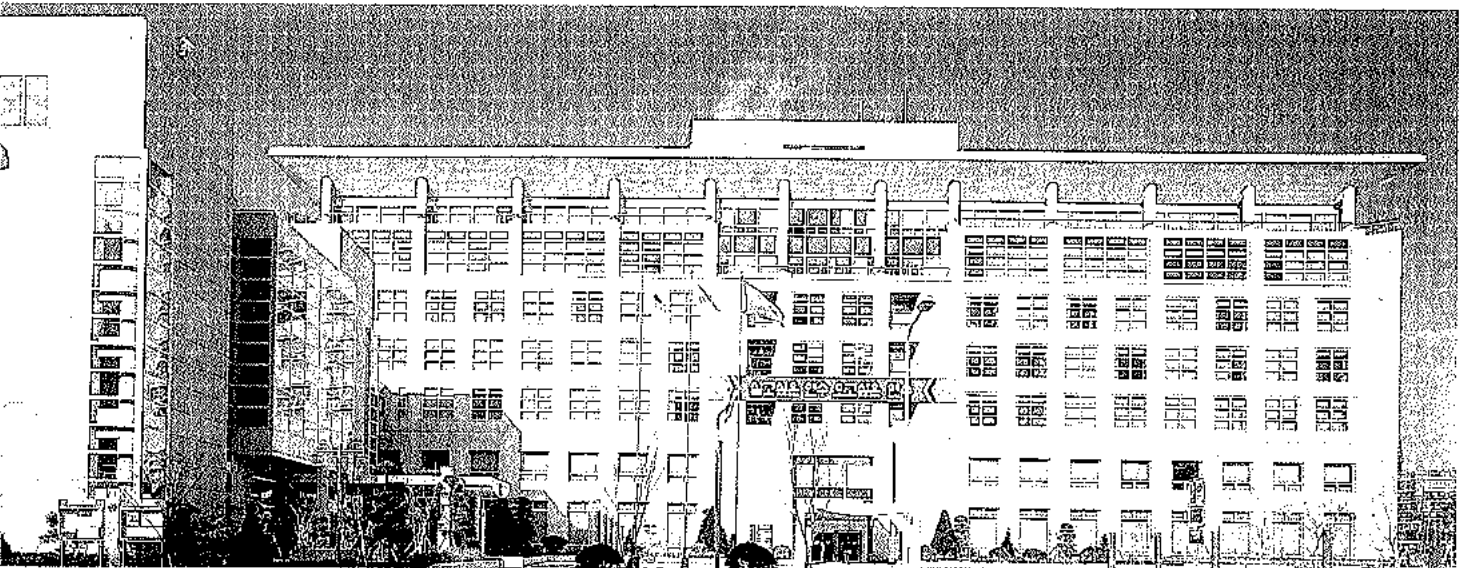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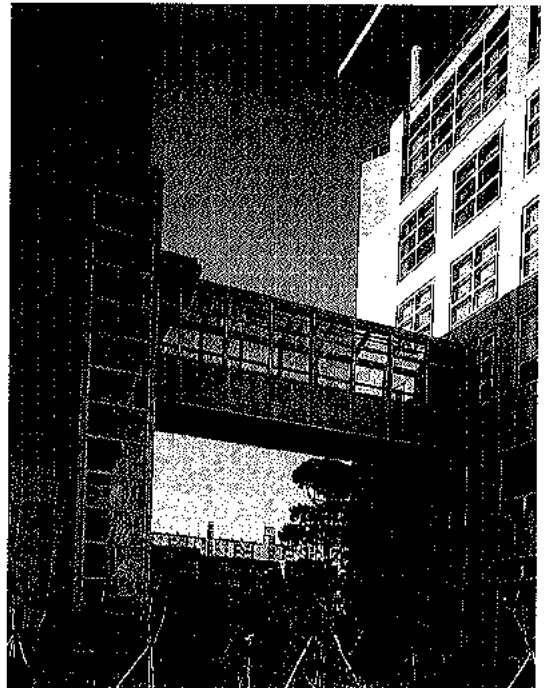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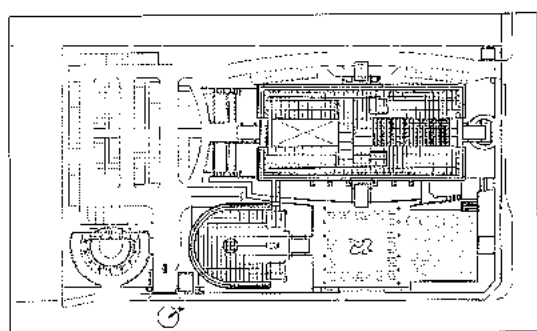


차장으로의 연결을 아주 용이하게 처리하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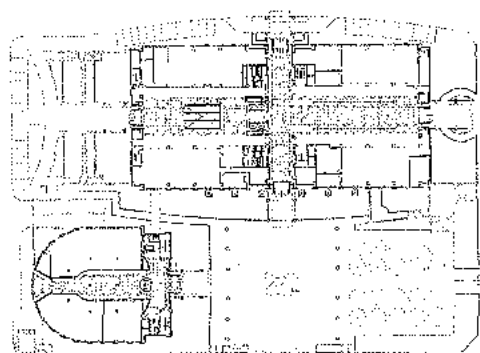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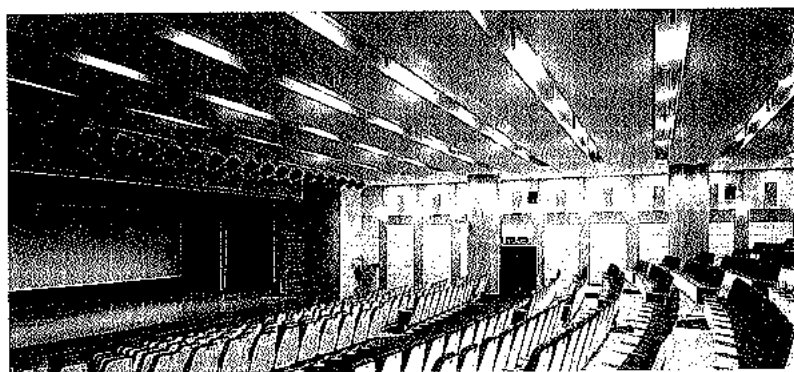
당초 이 프로젝트는 공사 및 설계 일괄 발주 방법(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기본설계 입찰이라는 '설계경기 및 입찰'의 경쟁에서 당선된 프로젝트이다. 실시 설계 적격자라는 통보와 함께 5개월의 실시설계 기간을 소모한 후 공사가 착수되었다. 기획단계에서 모든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기간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난 후 조정할 수 없는 프로젝트로서 상당한 무리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행과정에서의 모든 결정은 건물의 질을 위하기 보다는 행정적 편의를 위주로 이뤄지는 셈이어서 '좋은 건축'이 이뤄지는 방법으로 이해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너무 부족한 공사비, 짧은 설계기간, 연장 불가능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지침서는 공사비 수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요구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조정과 협의가 불가능하여 발주처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승자박'의 결과가 되고 만 셈이다.

그래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설계'에서 '감리'까지 일관되게 우리 팀이 관여할 수 있게 추진이 되었고, 시공자 발주처의 협조로 당초의 설계의도에 맞추어 비교적 우수하게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건축팀에서 제안된 상징물의 처리가 인식의 차이로 다르게 소화되었으며, 내부 signage계획도 색채 및 형태에서 건물의 이미지를 따르지 못한 것 같아 아주 아쉽게 생각된다. (글: 장응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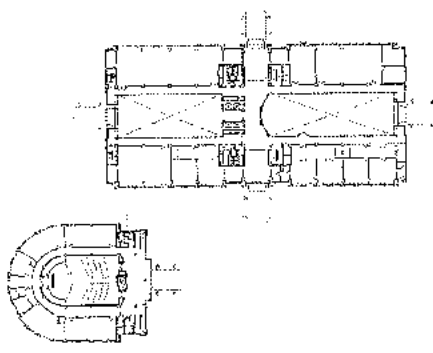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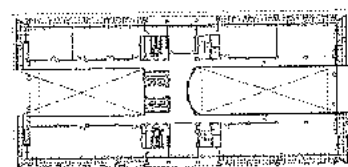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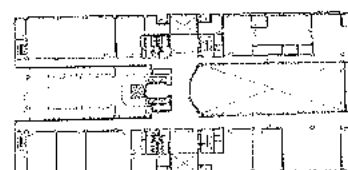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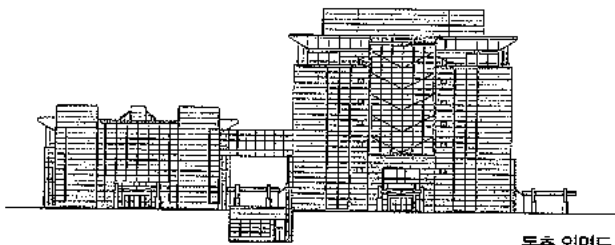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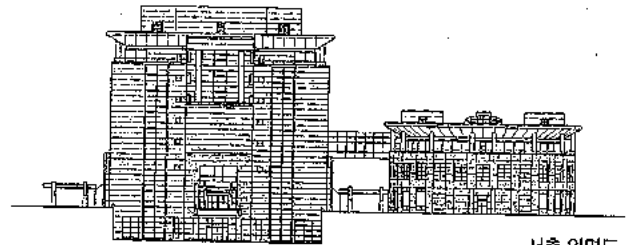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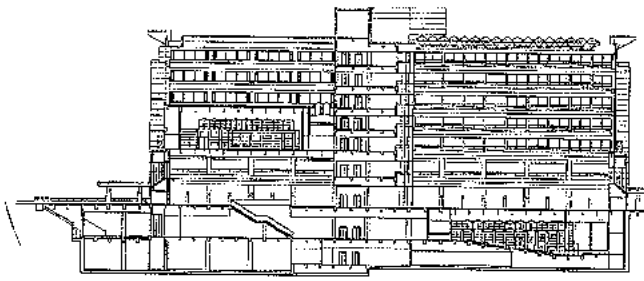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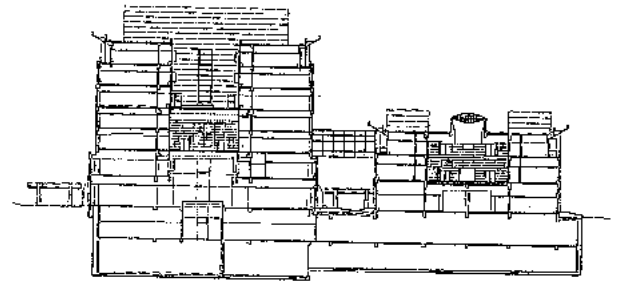
동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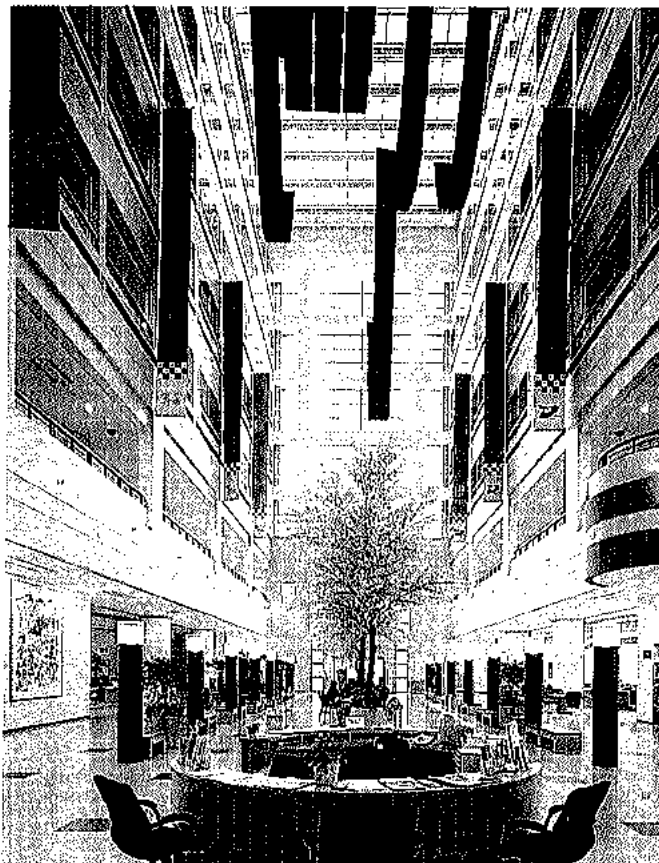


일반단면도-1



0 2 5 10M

일반단면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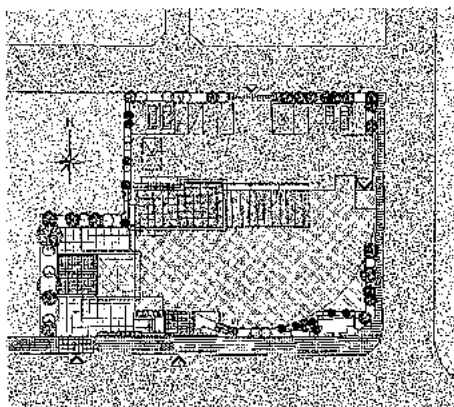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 Yanggu Branch of Nonghyup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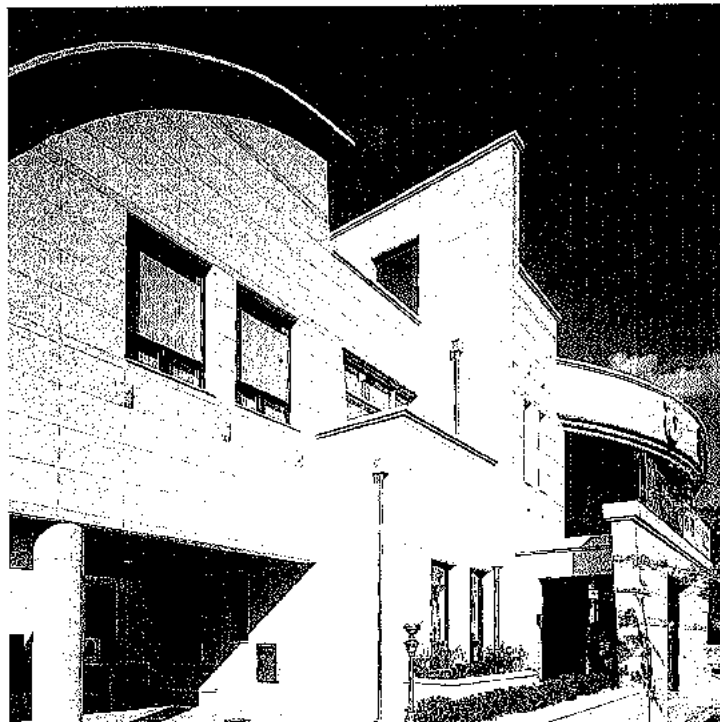
하금현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산
Designed by Ha Geum-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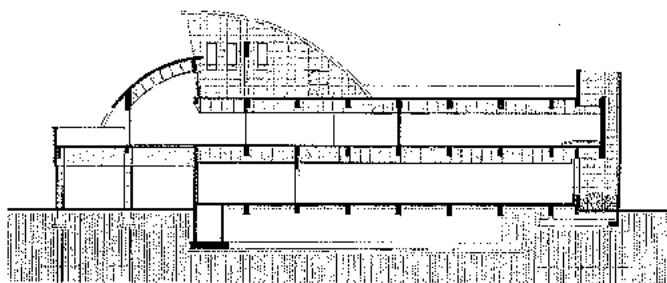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양구군 상리 523-8
대지면적	1,757.20㎡
지역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827.95㎡
연면적	1,640.41㎡
건폐율	80.19%
용적률	84.19%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설계담당	조호성, 김진웅, 김희옥, 백충현 추성희, 문윤기, 김진상
사진	김재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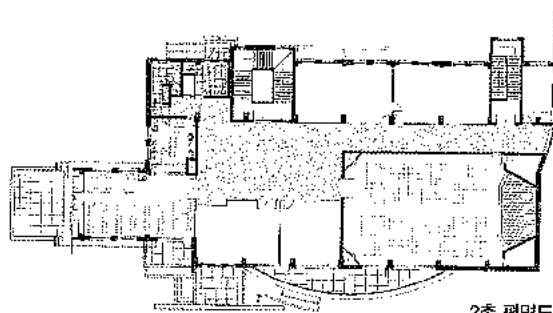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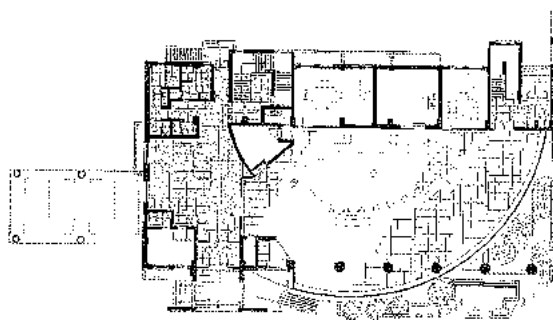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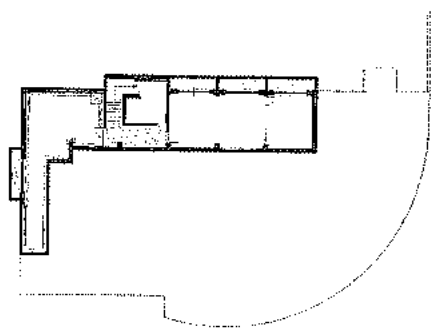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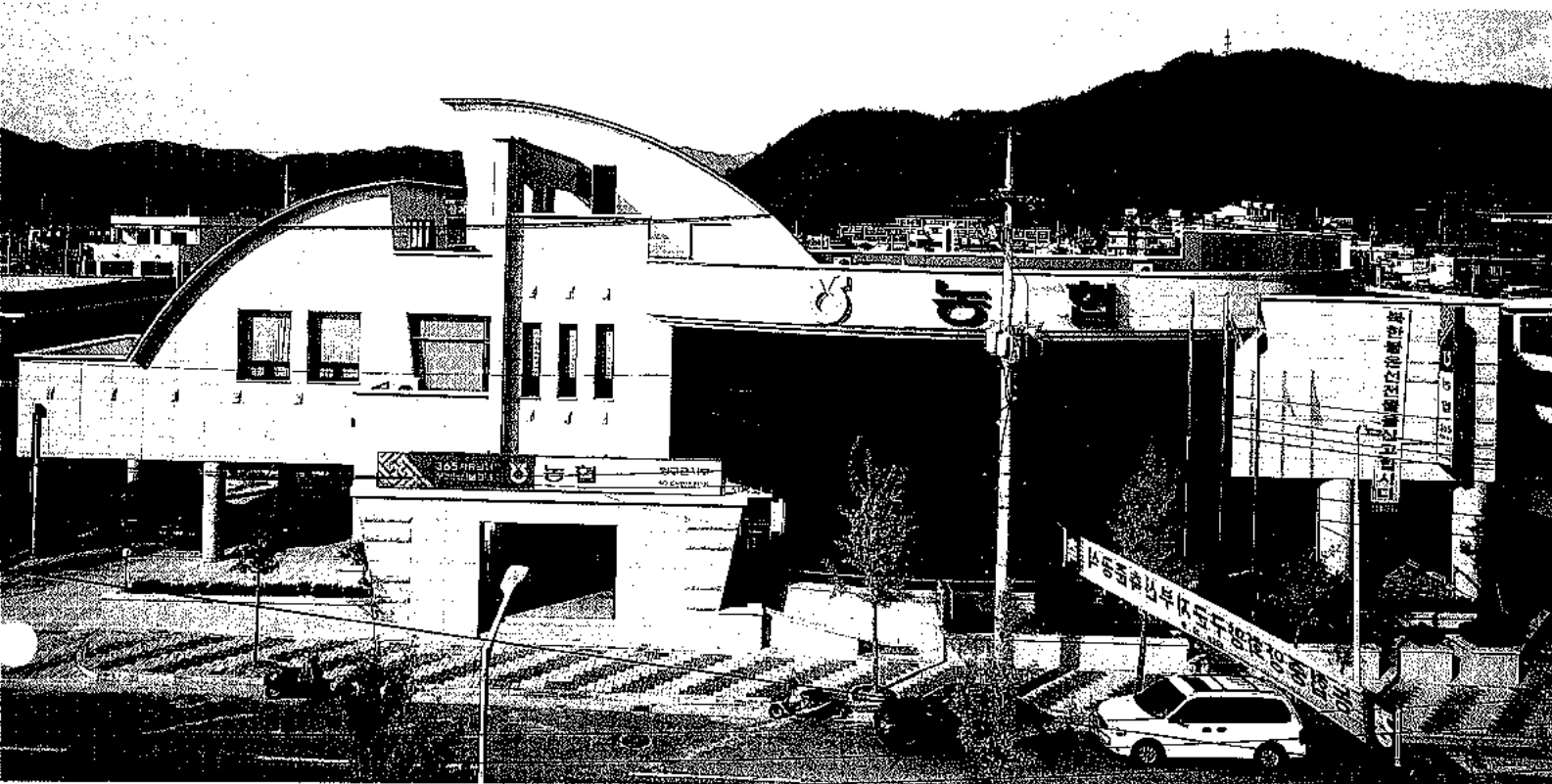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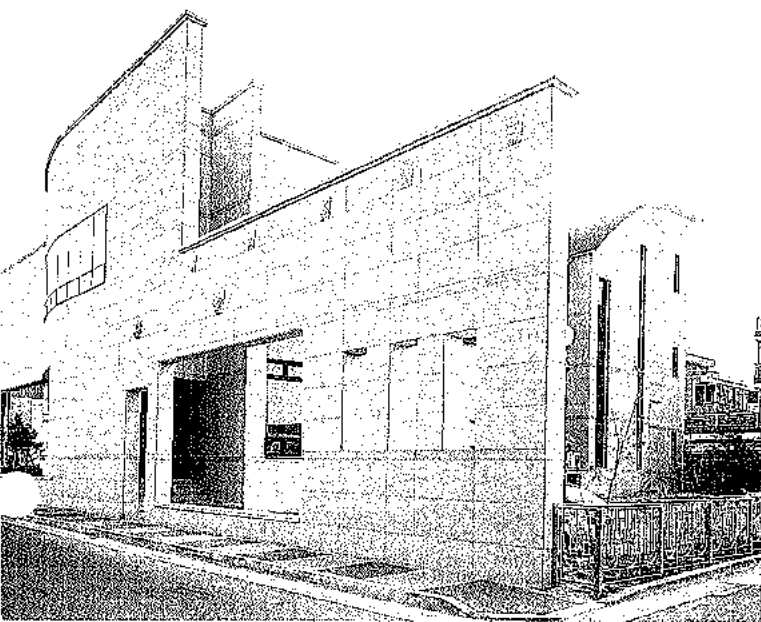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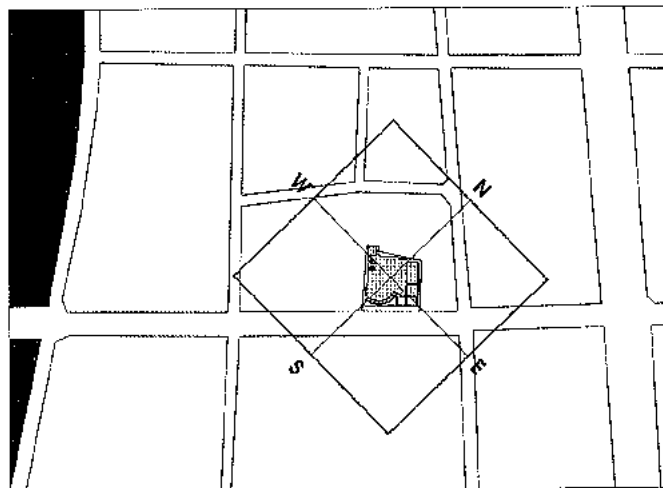
엔터테마빌딩 ENTER Thema Building

박홍근 / 우토건축사사무소 + 최 일
Designed by Park Hong-Guen & Choi 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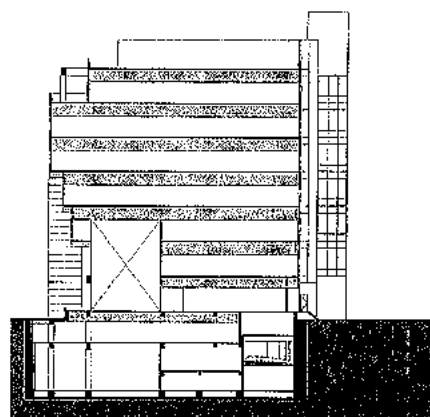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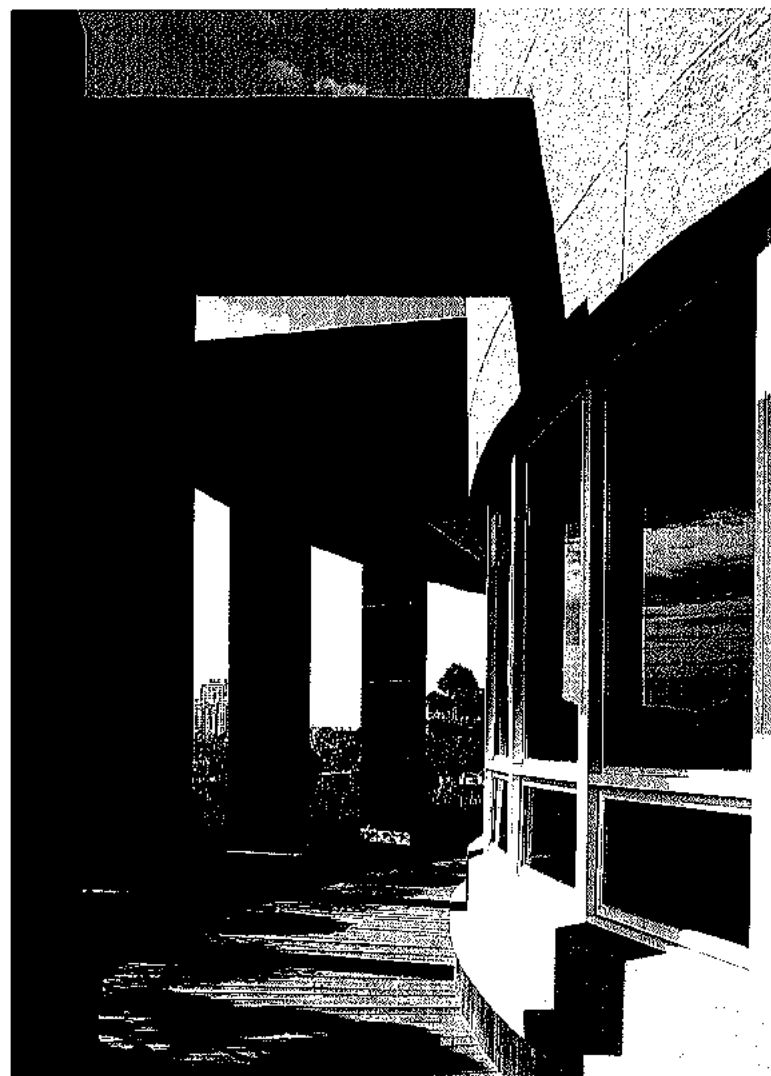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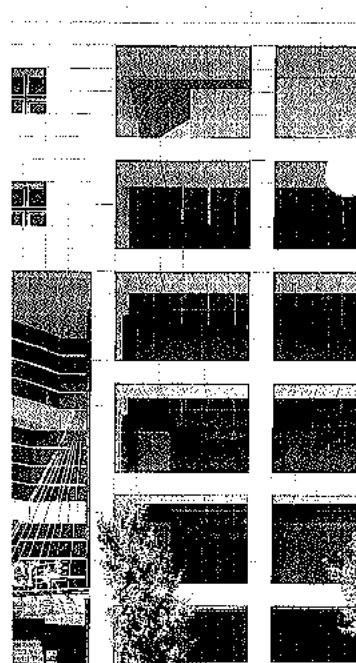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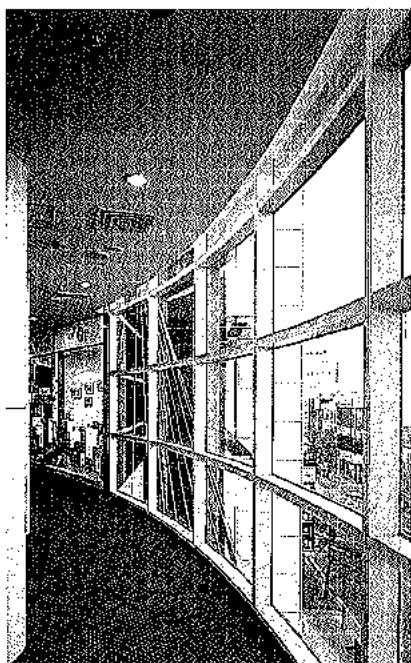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78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 방화지구
대지면적	1,403.6㎡
건축면적	1,075.21㎡
연면적	8,376.94㎡
건폐율	76.60%
용적률	438.28%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조경	221.55㎡
설비	A.H.U방식 & FCU방식
주요마감	외부 - 발랑패널, 드라이버트, 복층유리 내부 - 화강석물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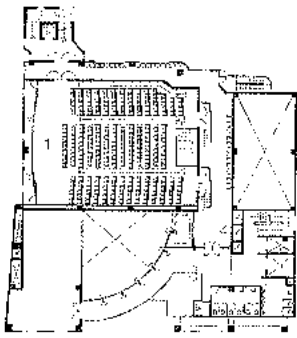
광주의 도심부인 충장로엔 일명 “우다방”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만남의 장소이며, TV기자들의 도심 인터뷰 장소로도 많이 애용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어떤 곳이기에...,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승용차 두대가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도로에 접한 4거리이며, 이곳 한 모퉁이엔 1층 바닥이 높게 계획된 광주우체국이 있어, 이 곳으로 진입하기 위한 계단을 만들기 위해 건물이 약간 후퇴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형성된 그런 곳이다. 서성거리기 쉽고, 잠시 앉아 있기 괜찮은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고, 인지하고 있는 이곳 우체국 앞 계단, 일명 “우다방”에서 1차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후의 장소로 이동을 하는 광주의 명소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형성된 광주 우체국 앞의 “우다방”과 같은, 또는 주변에 수많은 극장과 영화관, 다양한 숍, 바 등이 들어서 있어 낮이나 밤이나 많은 사람들로 넘치는 뉴욕 미드타운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광주의 젊은이들과 시민들에게 문화와 오락, 휴식 그리고 간단한 쇼핑을 위한 흥미로운 장소, 만남의 장소는 없을까? 이런 개념과 테마로 접근을 한 것이 엔터테마빌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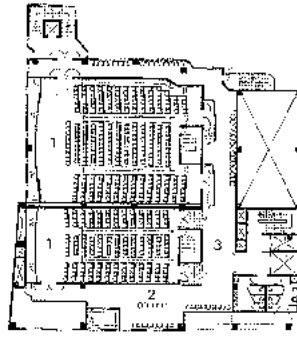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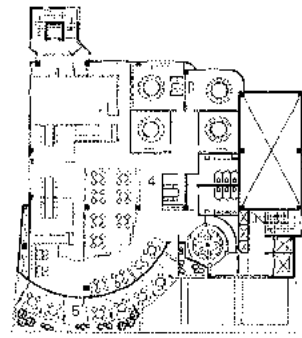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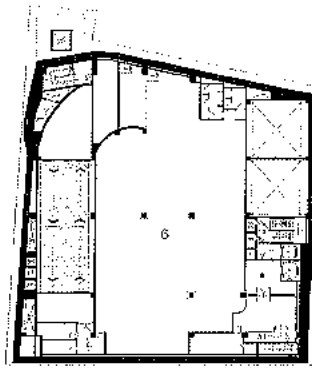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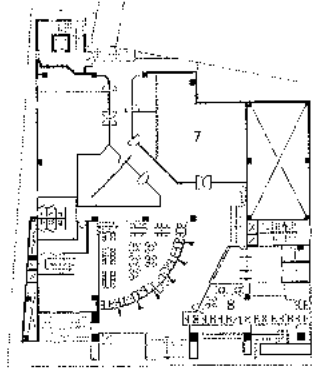
5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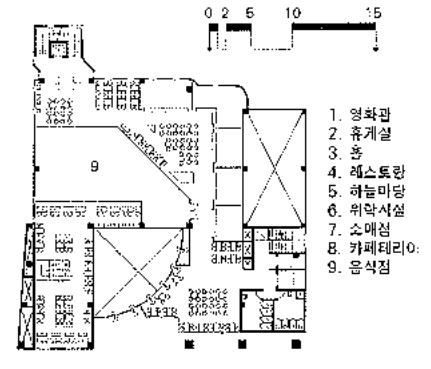
7층평면도



지하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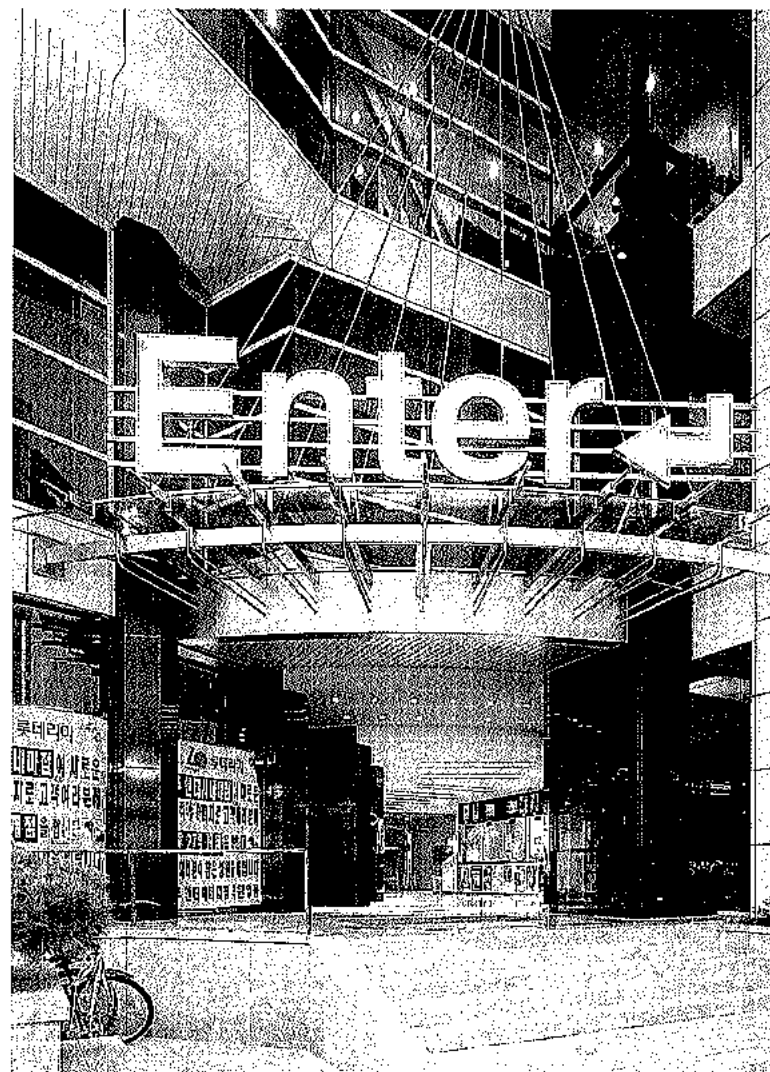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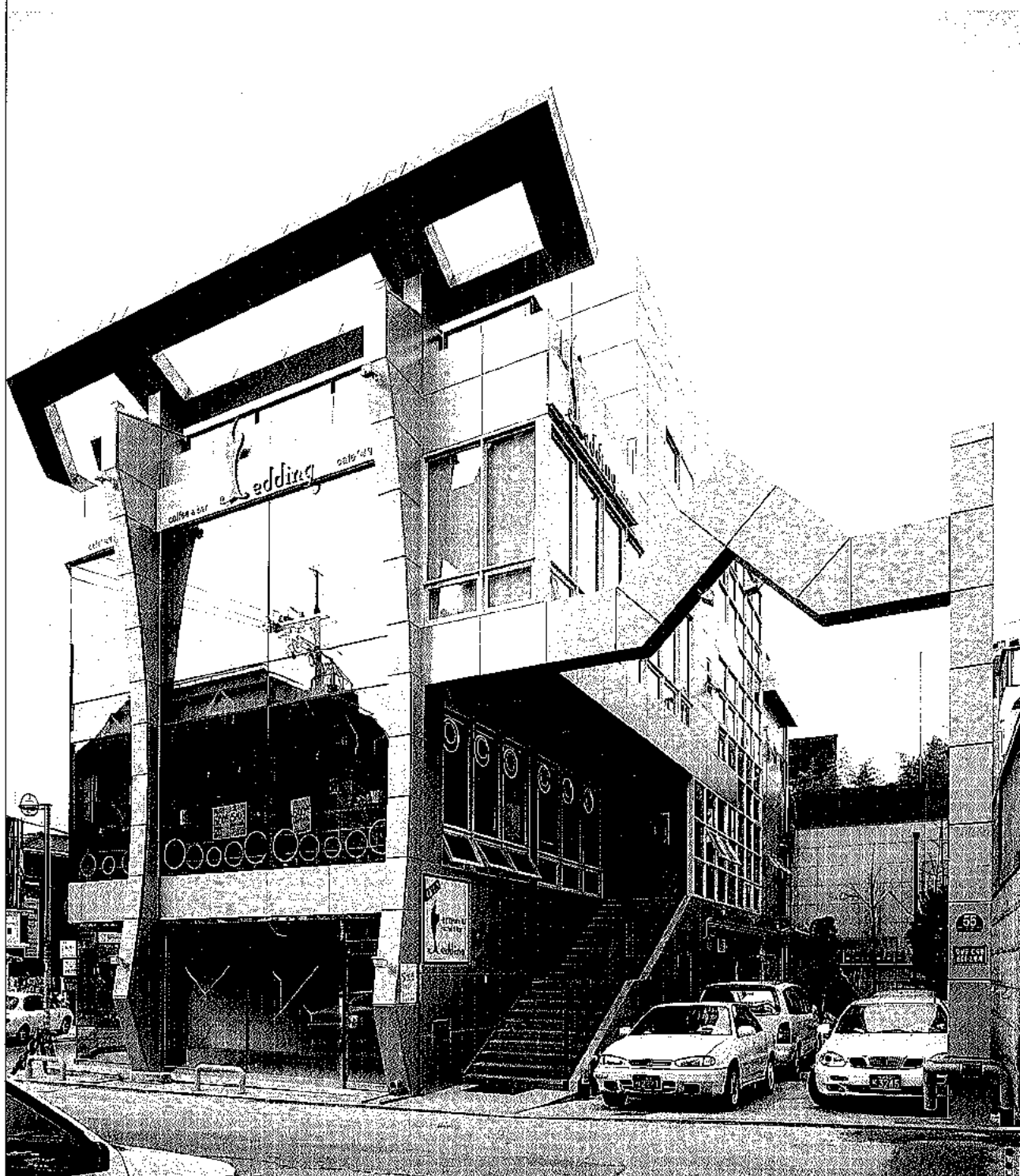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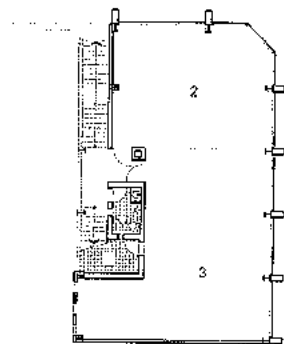
1. 영화관
2. 휴게실
3. 홀
4. 레스토랑
5. 하늘마당
6. 위락시설
7. 소매점
8. 카페테리아
9. 음식점



계전빌딩 Gyejeon Building

정대락 / 건축사사무소 해암
Designed by Jeung Dae-L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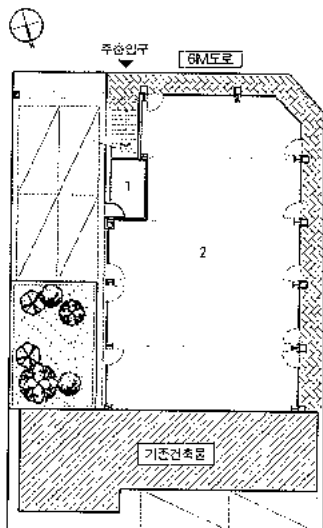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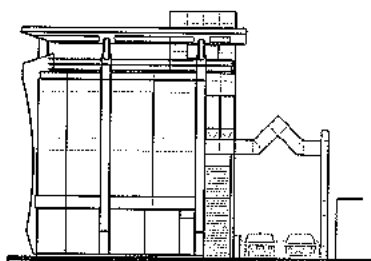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 관리실
2. 소매점
3. 음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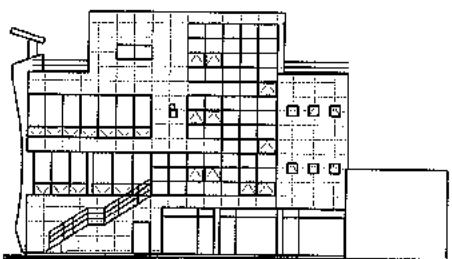
0 1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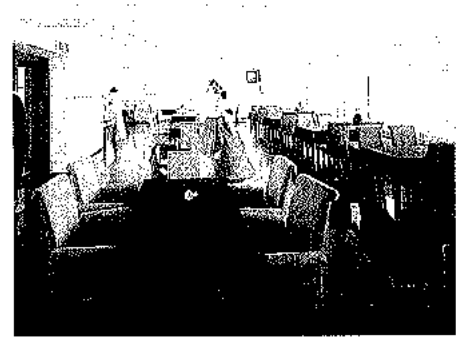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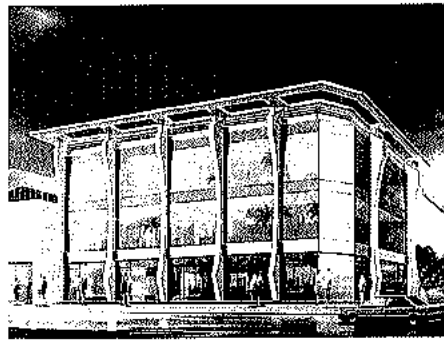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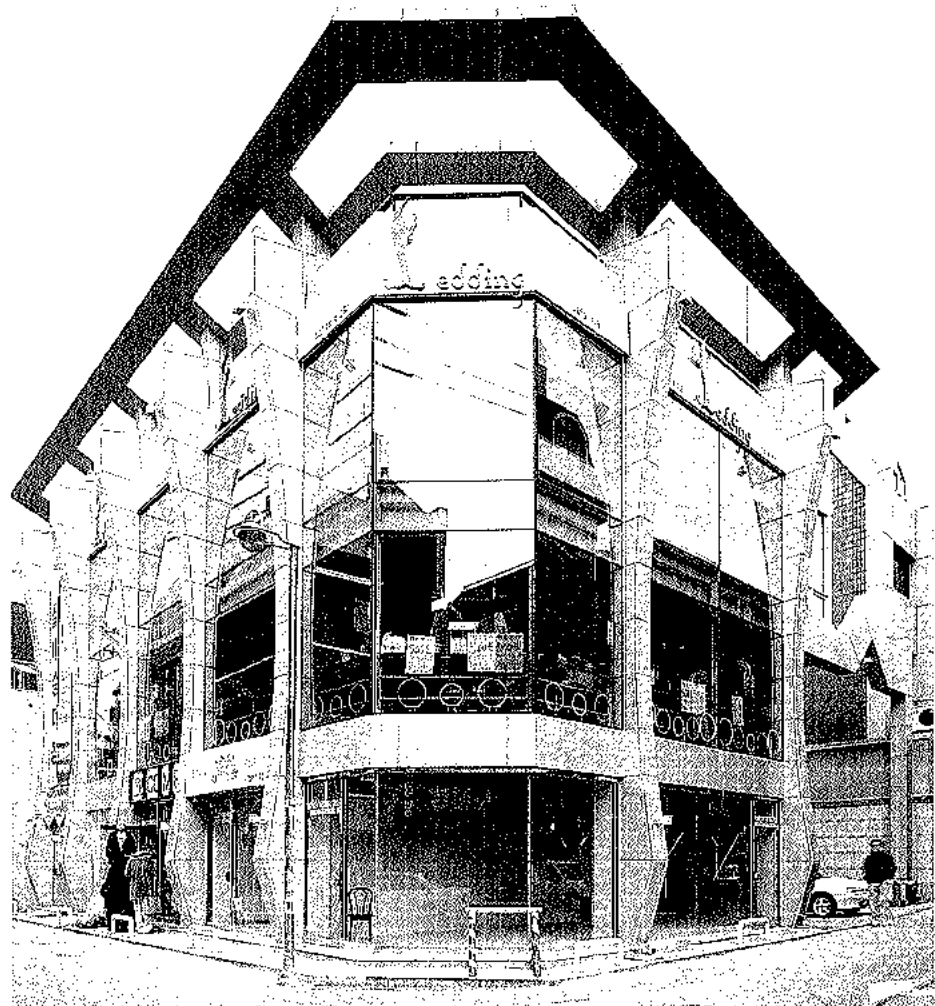
동측면도



압구정 로데오거리... 강남의 상권으로서는 가장 지명도가 높은 장소중의 하나일 것이다. 덕분(?)에 높은 지가(地價)의 대지이다. 건축주의 요구는 최대한의 상업용적률과 주변건물보다는 개성적이고, 인상적인 건물을 원했다. 지극히 간단하지만 설계자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요구이다. 법적인 범위내에서의 최대 건폐율, 도로사선에 의한 최대층고, 주차효율에 적합한 건축규모, 공사비와 임대비에 따른 지하층제외, 주변과 차별화된 건물외관, ... 규모는 작지만 상업적인 요구를 최대한 소화하면서 도시환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프로젝트였다.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4-2, 3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464.50㎡
건축면적	278.44㎡
연면적	835.38㎡
건폐율	59.94%
용적률	158.26%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외부마감	① 3mm알루미늄시트 마감, ② 24mm컬러복층유리(8+8+8)
시공	리마 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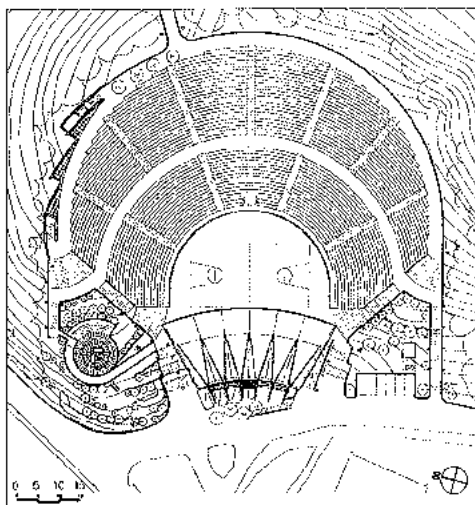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Amphitheater Renovation of Yonsei University

강철구 · 김태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Designed by Kang Cheol-Ku & Kim Tai-In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의 18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학교용지
주요용도	공연시설
대지면적	852,193.5㎡
건축면적	150.71㎡
연면적	1,768.42㎡
건폐율	0.017%
용적률	0.20%
조경면적	3,825.4㎡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마감	바닥 - 벽 - 화강석바너구이, 무대지붕 - 산화 녹청동판(0.6t), 철골기둥 - 불소수지페인트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물갈기, 벽 - 화강석물갈기 + 줄라톤, 천장 - 석고보드 + 흡음재 뽕칠
설계팀장	우성숙
설계담당	우동우, 이승훈
구조설계	이종식(동우구조)
음향설비	한진훈(충북대), 사운드스피어
조명설비	대형엔지니어링
시공	(주)대우



배치도

〈노천극장〉은 연세인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장소다. 1934년 당시 교직원과 학생들의 노력과 봉사로 건립된 이래 60여년 동안 많은 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어 왔다. 그러나 날로 발전하는 대학 규모와 3만명 수준의 재학생수에 비해 노천극장의 규모와 시설수준은 열악한 상황이었으며, 1995년 5월 동문의 날 행사로 열렸던 '열린음악회'가 계기가 되어 동문들의 힘으로 〈노천극장〉을 재건축하여 후배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활동무대를 물려주자는 동문회측의 의도에서 시작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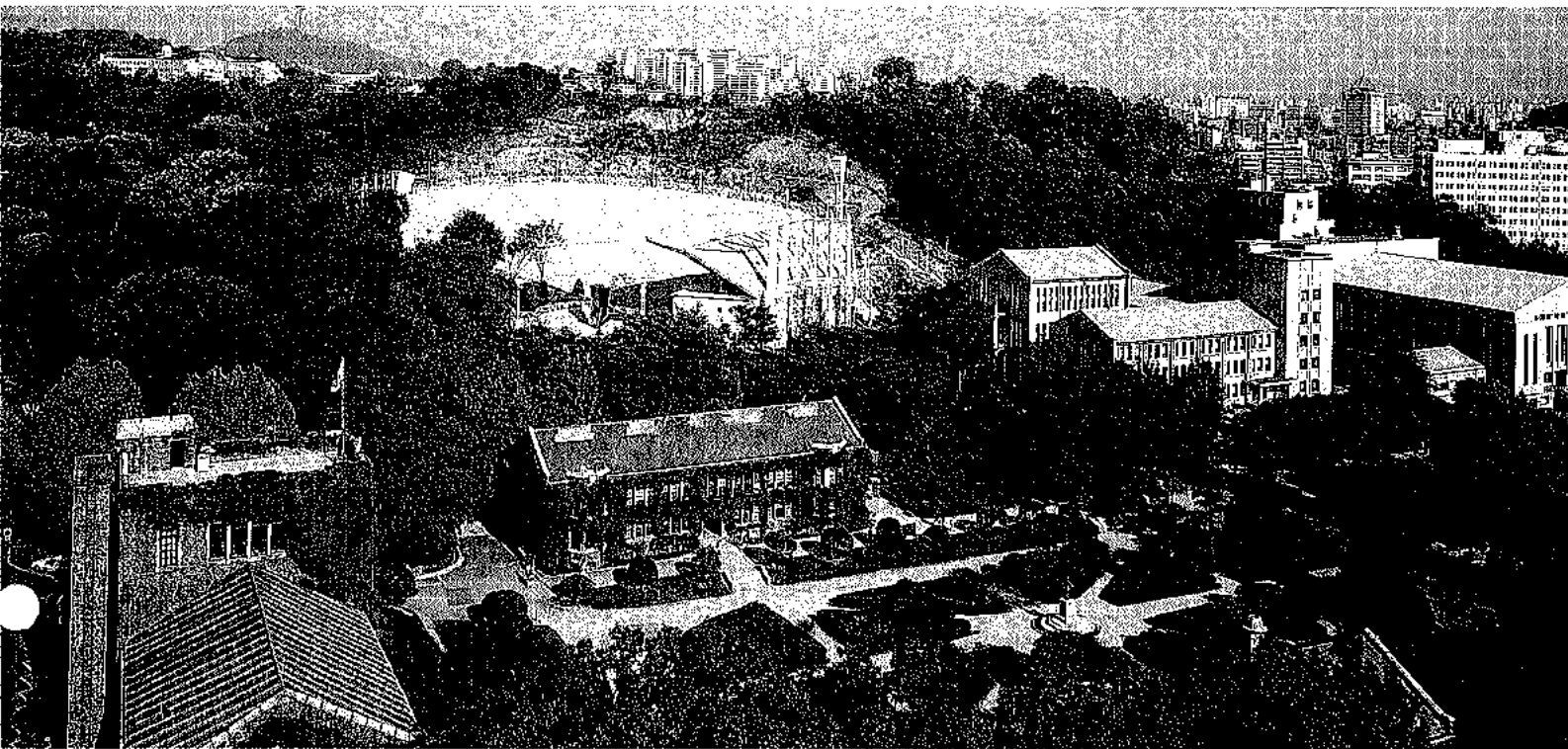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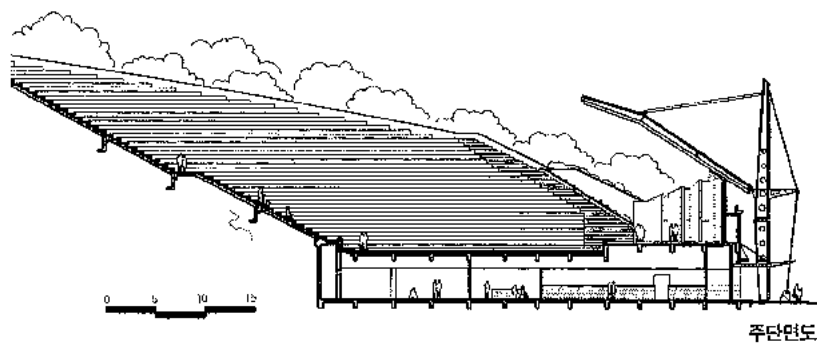
설계의 기본방향은 노천극장을 하나의 조형물로써 건축적 미를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캠퍼스 문화활동의 중심지로써 기능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캠퍼스를 주도하는 고전적 스타일의 건물군들 속에서 나름대로의 기념비성을 표현하려는 건축적 형상을 제시하였으며, 미래지향적인 '연세 정신'을 담고자 했다. 양호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는 입지상황에서 불필요한 공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 〈노천극장〉의 축과 위치는 변경시키지 않고, 주변녹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을 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하여 7천2백석 규모의 원형 스탠드로 계획했다. 스탠드의 화강암 좌석에 기부자 명단을 각인하여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모교사랑의 증표로 기억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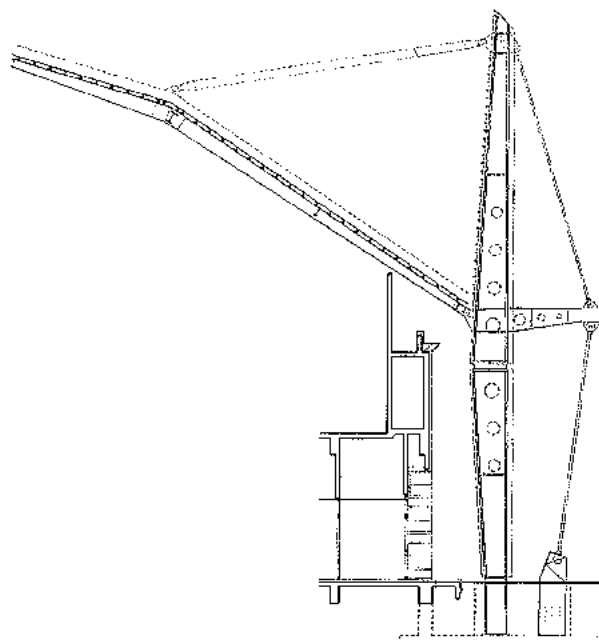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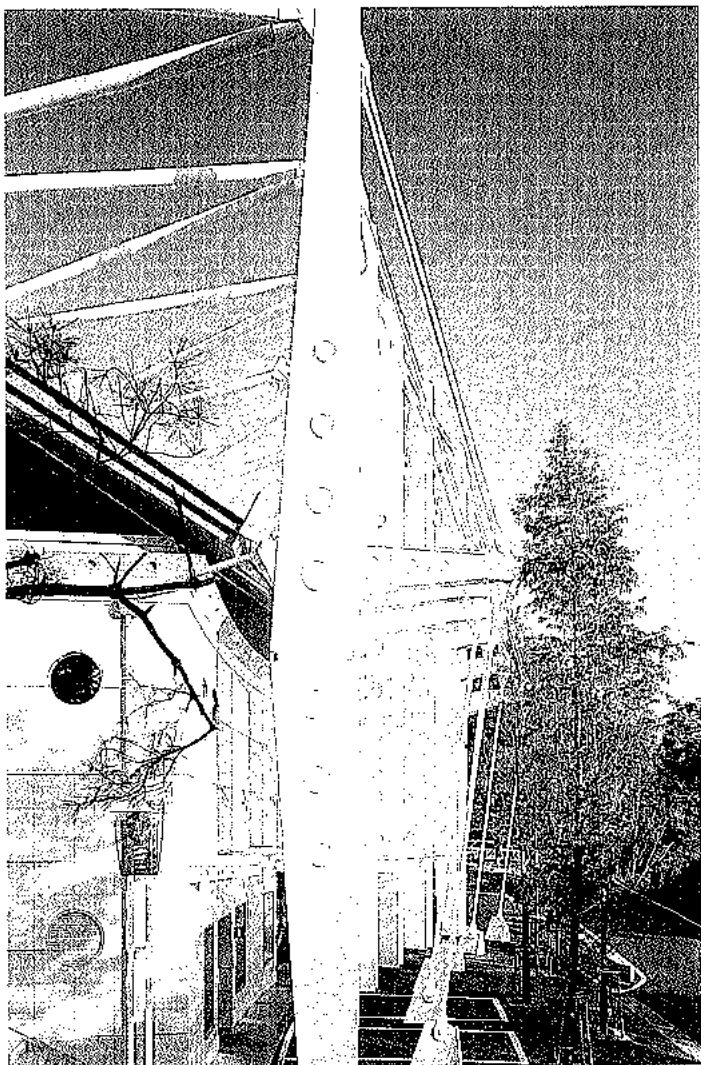
시설내용은 무대와 객석, 부속시설로 계획됐는데, 무대규모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연극, 강연, 학교행사 등을 다양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들었고, 무대 전면광장에서는 농구경기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했다. 5백여 평의 부속실에는 연습실, 대기실, 분장실, 탈의실 등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행사 및 공연에 대비한 기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

외부의 주요 사용재료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화강석(운천석)을 사용했으며, 〈노천극장〉의 상징요소인 철골기둥과 지붕구조물은 철판에 불소수지페인트와 산화녹청동판으로 마감했다. 미래지향적이며,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전체적인 색조는 무채색 계열(하얀색)로 구조를 이루었으나 지붕의 재료가 시공 중에 변경되어 계획의도대로 완성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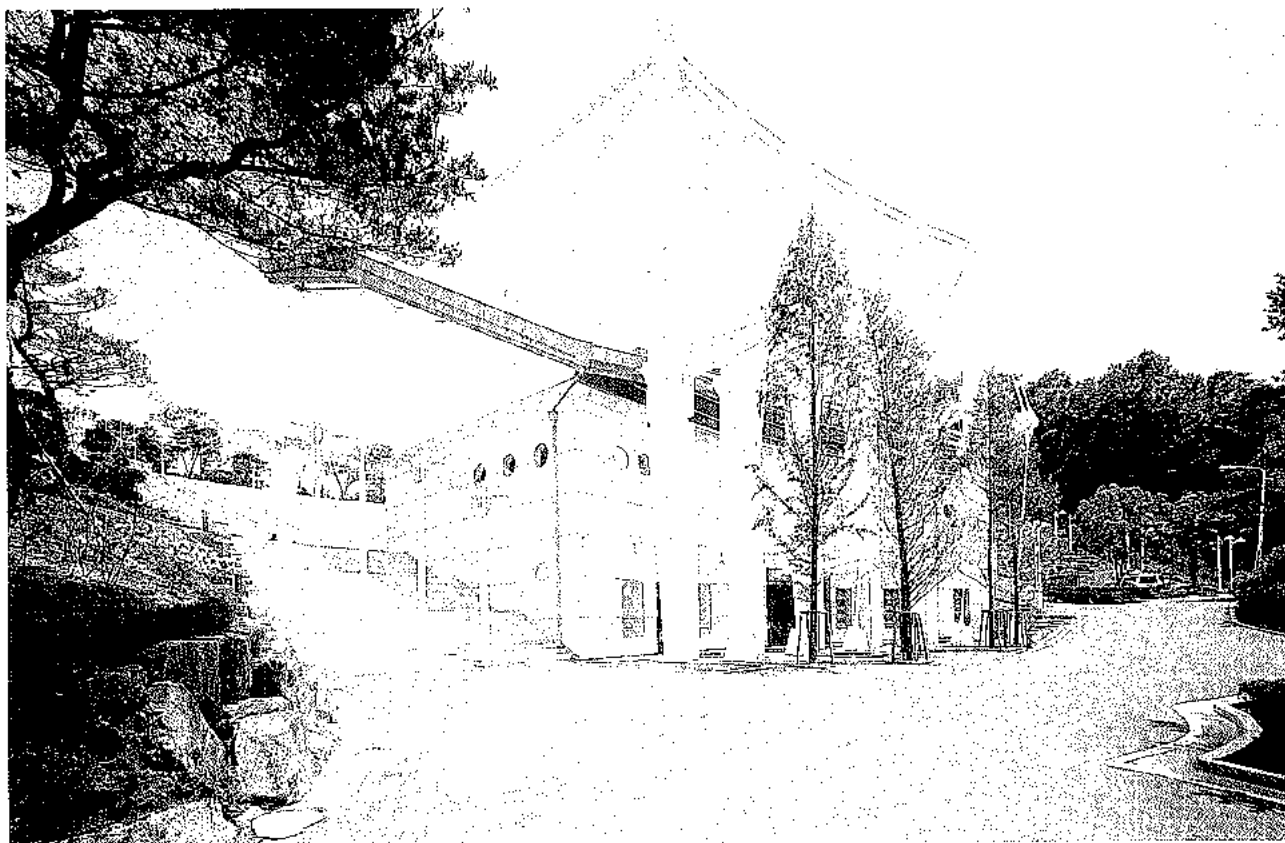
〈노천극장〉은 언제나 연세인의 창조적 활동무대가 되어왔다. 이곳이 앞으로 새로운 대학문화의 창조적 마당으로써, 연세의 또 하나의 '열린마당'을 기대하며, 연세인의 문화적 산실이 되길 희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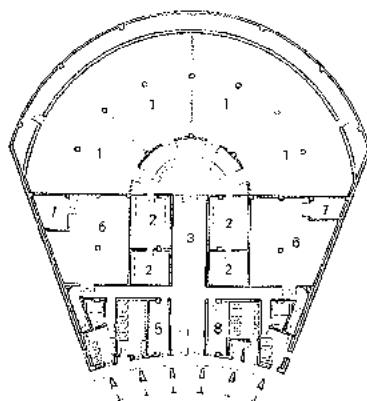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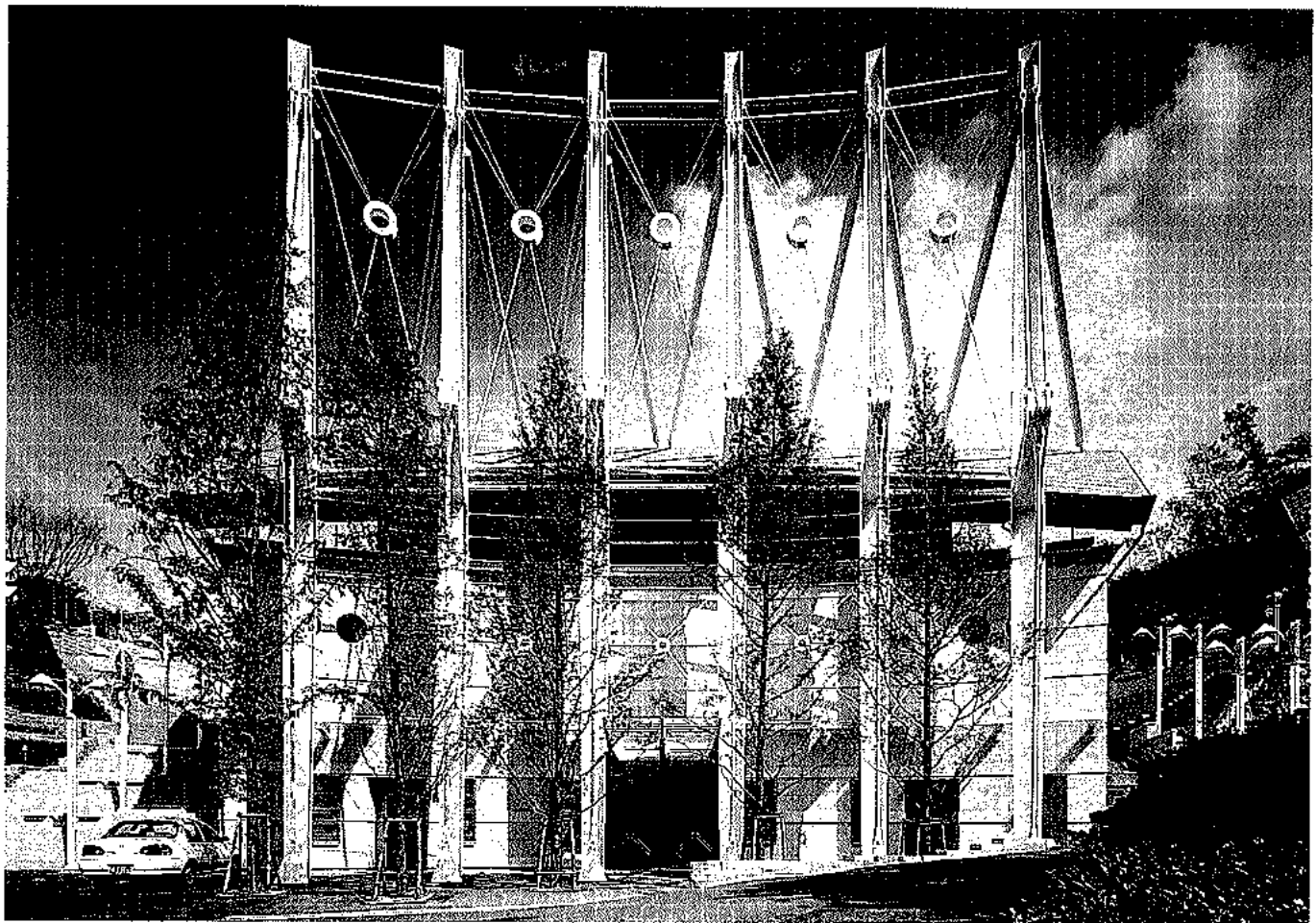
(글: 우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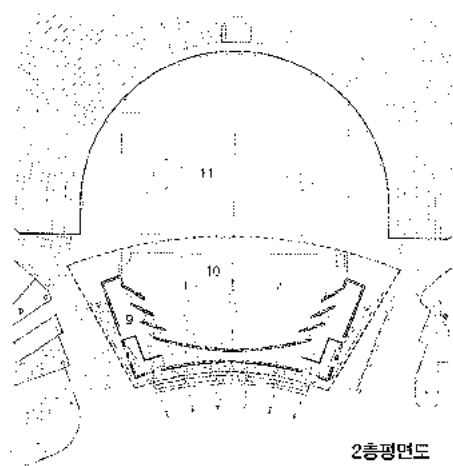
철골 기둥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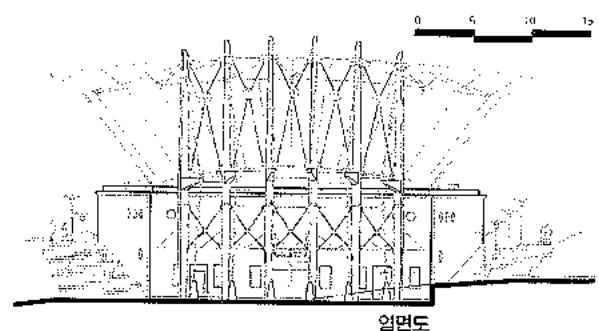


- 1. 연습실
- 2. 분장실
- 3. 홀
- 4. 대기실
- 5. 관리실
- 6. 창고
- 7. 전기실
- 8. 조광실
- 9. 준비실
- 10. 무대
- 11. 전연광장

1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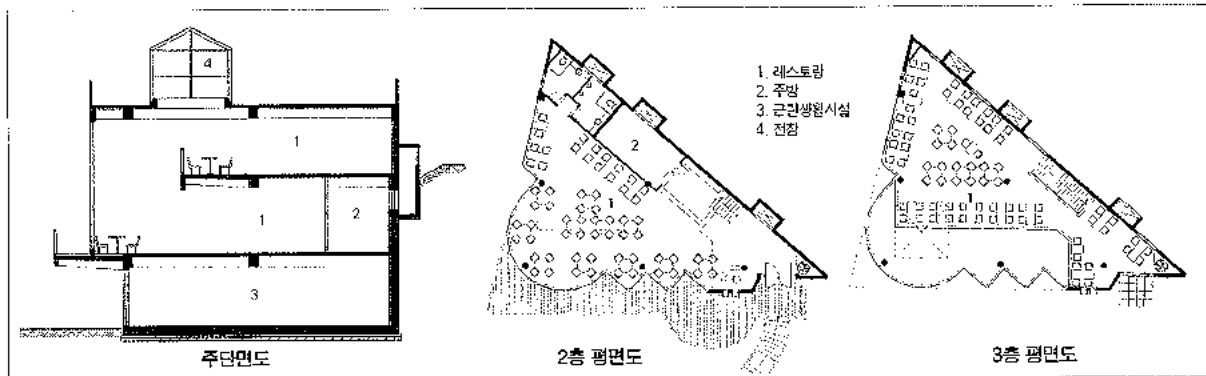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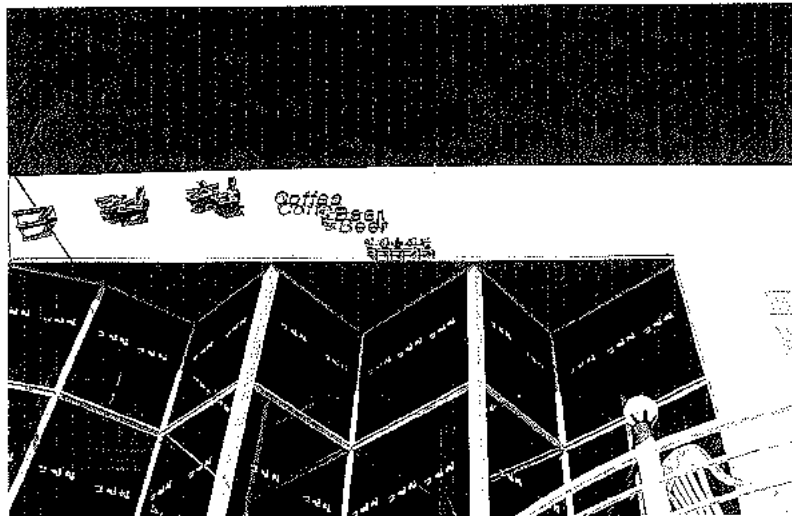
일면도

그린힐 레스토랑 Green Hill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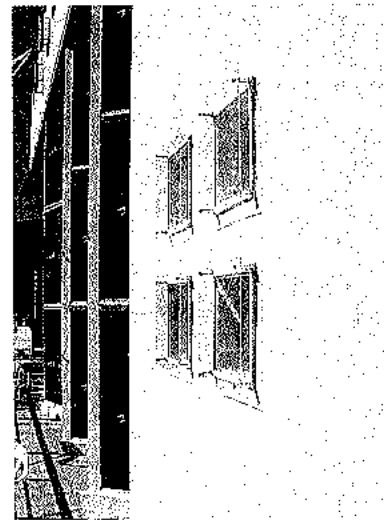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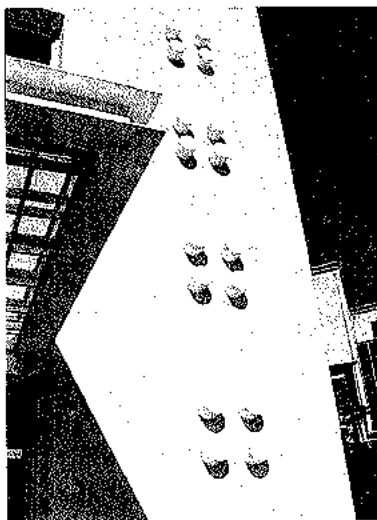
김성곤 / 성·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Sung-G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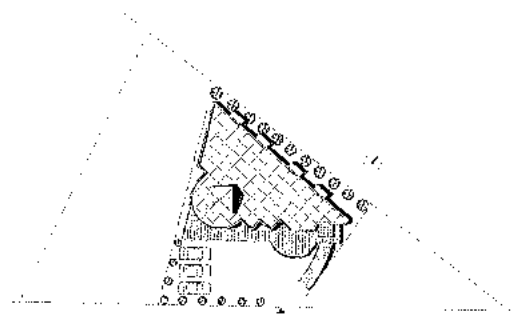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51-2번지
대지면적	474.0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248.61㎡
연면적	475.63㎡
건폐율	52.45%
용적률	100.34%
용도	근린생활시설
규모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 마감	드라이비트 + 그린색복층유리
설계담당	진현수, 김종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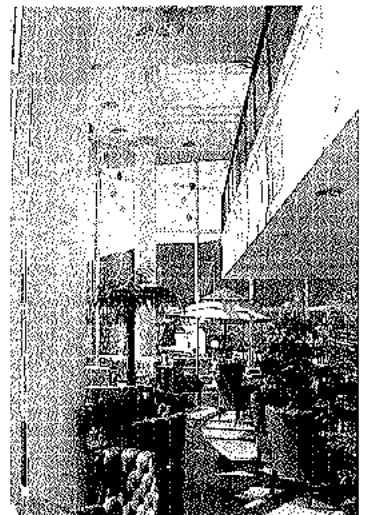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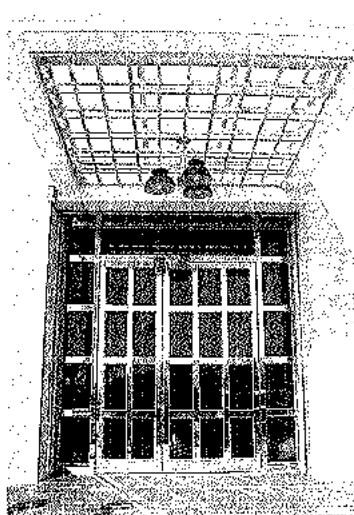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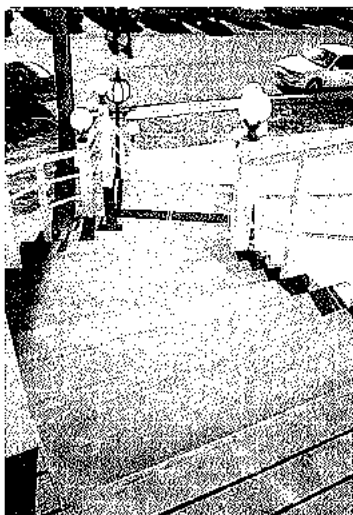


대지 뒤편은 빼어난 산세에 어린이대공원과 부산시립 도서관이 밝은 색조를 띠며 높게 위치하고, 전면 시야에는 녹색의 푸른 산들이 멀리서 물결치듯 한눈에 들어온다. 기존 도서관보다 스카이라인을 낮게 하여 층수를 결정하고, 자연과 인공환경에 동화되게 한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잠시나마 산과 하늘이 있음을 느끼며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될 공간을 만든다. 내, 외부의 색상은 백색 톤으로 통일하게 마감하고 실내는 대형 창과 빛, 절제된 단순한 장식으로 처리하여 미니멀리즘 건축이 되게 한다.





배치도



TF Territory File

최수익 / 건축사사무소 팀531
by Choi Soo-ik

만남

TF—territory file—굳이 이 집의 이름에 영역이라는 뜻을 갖게 한데에는 건축주의 의식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대지, 주변 컨텍스트(context)와의 관계에서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삼각형형상의 이 대지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의 인상은 강력한 두 개의 수직콘크리트옹벽에 의해 레벨이 조정된 흔히 보이는 전원주택단지의 한 조각이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아련한 면산과 가까이 소나무가 울창한 숲, 그 사이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새소리도 맑고 투명해서 나의 생각은 주변의 풍경에 스며드는데, 그 위에 담장을 올려 쌓아 경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건축주의 보충설명이 뒤따랐다. 차단이었다.

한정과 무한정사이, 영역을 지킨다는 의식과 허물려는 의식의 만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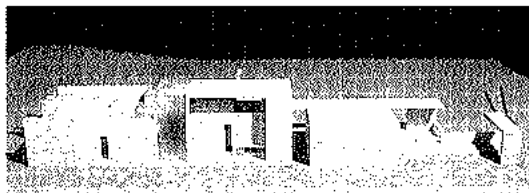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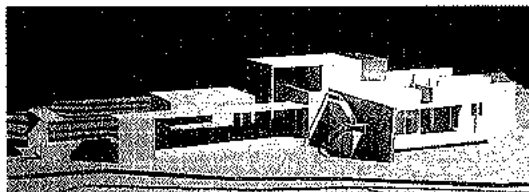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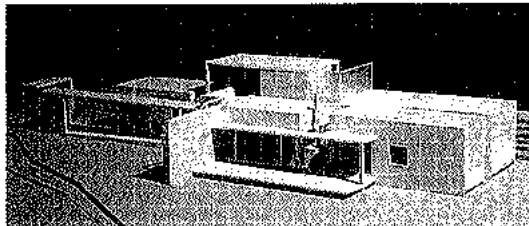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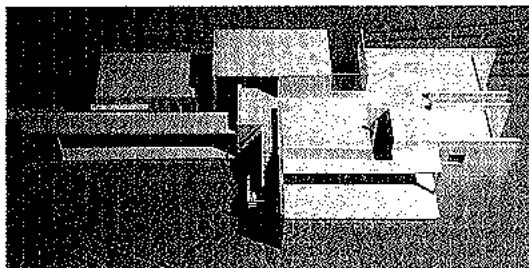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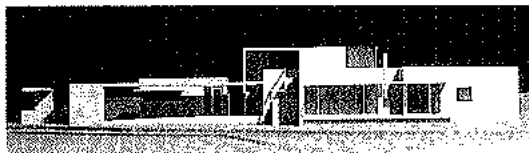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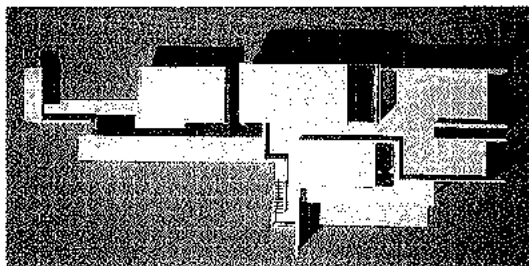
영역

영역이란 감히기도 하고 무한히 확대되기도 하는 것이다. 감해서 확대되기도 하고 확대된 것은 의식이 막히면 다시 감히기도 한다. 에너지가 넘쳐 전율이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너무 멀어 소멸된 에너지의 꼬리를 보며 줄리웁기도 하다.

속삭이듯 다가오는 낮은 창으로 보이는 바깥 풍경, 좁고 수직으로 열린 벽뒤로의 호기심어린 공간,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는 높게 달린 창. 한껏 열어젖히고 마음껏 받아들이는 없는 벽. 이러한 장치들은 영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용한 것들이다.

벽

중력이 없는 벽은 자유롭다. 서 있는가 하면 눕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벽과 바닥 혹은 지붕이라 한다. 그런 벽들에 의해 사물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수직과 수평으로 선 벽들에 의해서 외부의
돌이 한정되고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필터가 된다. 벽이 있음
만으로도 에너지가 생성되어 파장의 흔들림을 느끼고 벽으
로 구석이 생기는가 하면 그 벽이 움직여 일순 또다른 힘이
그 뒤편에서 맴돈다. 내외부가 하나가 되고, 흩어져 무한한
바깥 세계로 인도되는 신비이기도 하다.

나는 이 대지 위에 서있고 주변의 풍경은
스스럼없이 눈으로 들어온다. 익숙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 교차되어 들어온다. 원색의 양철지붕, 폐광이 된 채석장,
굽어서 힘차고 빛깔도 푸르게 성성한 소나무 숲, 그리고 논
과 밭. 이러한 것들이 빛을 매개로 하여 벽으로 걸려져 보여
질 터이다.

벽을 하나하나 좋아본다.

깔아 놓고, 얹어 놓으며 세우기도 한다. 그
럼에 따라 미분화된 돌이 생겨난다. 생겨난 크고작은 돌은
거실과 방, 욕실 속에 녹아든다. 도시에 길이 있고 길에는
집이, 다시 집안에 뜰과 방이 있듯이 그렇게 이 집은 마을
한쪽에 자리잡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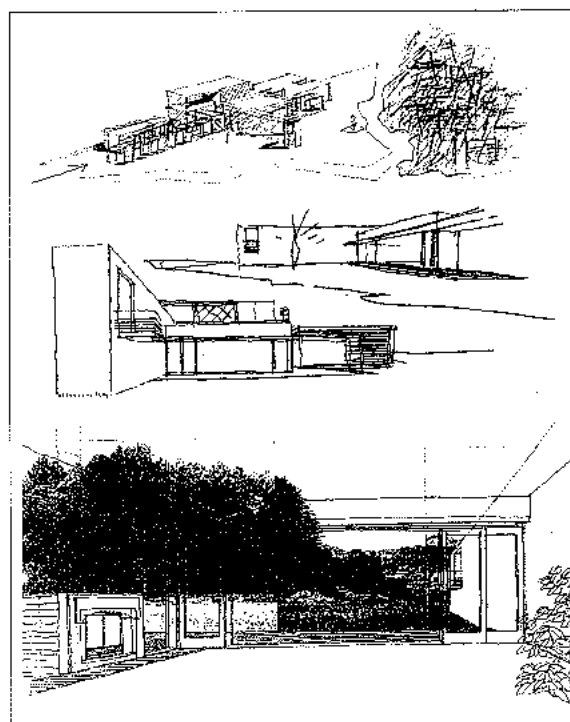
해야할 일

이제 봄에는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는 시작
되려는데 걱정이 된다. 도면을 놓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데 질문은 다른 주제로하여 화제가 바뀐적이 많았다. 설계
할 때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 공사할 때에는 변경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가 모르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로 감리에서 손떼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했지만, 웬지 미
진한 느낌이 든다. 전적으로 설계자의 의견에 맡기겠다는
건축주의 말이 그래서 공허하게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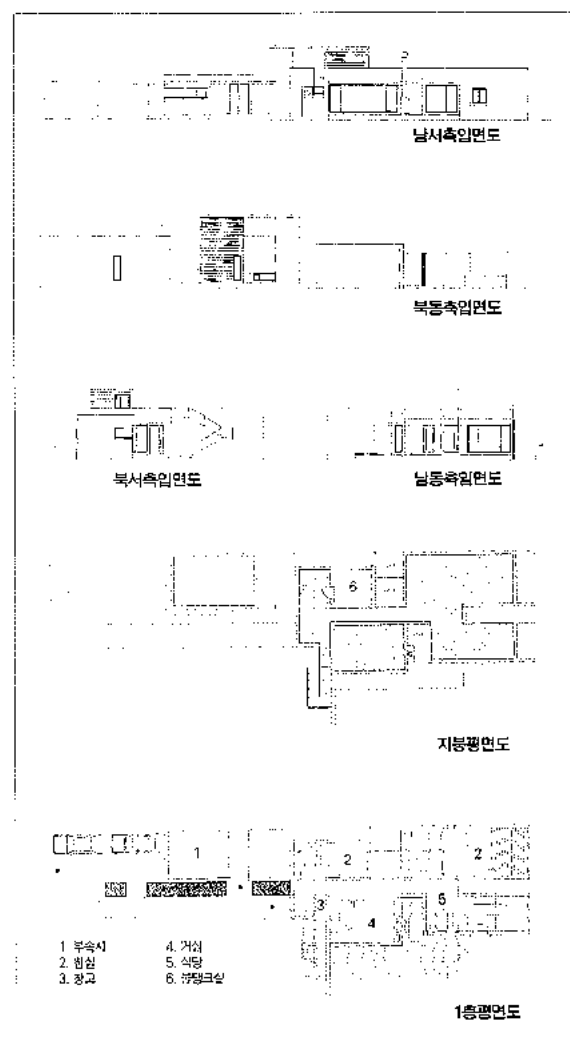
그래도 내가 해야할 일은 엄연히 있다.

차단의 상징인 옹벽을 정리하고 자세히 보
면 시멘트로 포장된 개울바닥을 뜯어내야 한다. 어지러운
풍경을 걸러내고 근사한 조망을 얻는 것은 권리이다. 돌이
란 건물을 짓고난 나머지가 아니다. 한정과 무한정으로 위
요와 확대를 이루고 벽의 적절한 위치와 크기가 그런 공간
을 이룬다. 그러기 위해 놓여진 벽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
지 검증되어야 하고, 공사비 예산에 맞추는 노력도 필요하
다. 그리고도 현장에서 생기는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

그것들이 앞에 있다.



스케치



지역건축탐방 15 - 신도시(하)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Newtowns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1980년대부터 건설되어 왔다.

행정기관의 분산정책과 함께 개발된 과천 신도시와, 주택 20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급조된 분당, 일산 등 신도시들이 건설되면서 건설업계는 한동안 호황과 함께 자재, 인력 부족이라는 몸살을 앓기도 하였다. 고층 고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시는 주택 보급을 향상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주거의 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빠른 기간에 거대한 신도시 건설은 세계 도시사에 신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건설배경이나 건설과정의 어려움을 잊고 이제는 위성도시로 자리잡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지역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한 신도시의 주민은 수도권 주변에서 떠돌다 모여들었고, 서울을 생활기반으로 살고 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도시설계 기법으로 설계된 낯선 도시에서 만나 살아가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새로운 도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급변하는 우리 현실에서 신도시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도시, 그곳에도 지역성은 있는가? 각 지역별로 새롭게 형성된 신 문화지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자라나고 있는 도시건축문화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은 건설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이 완성될 때까지, 또 계속 팽창되어 가는 신도시에 던져질 화두이다.

지역건축탐방은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아 이제 신도시와 북한 편으로 마감하게 되었다. 이 연재를 계기로 지역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고조되었고, 또 지역건축에 관심이 있었던 건축사(가)나 학자들의 모임이 활성화 되기도 하였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꾸준한 관심에서 출발되고 그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건축사(가)들의 의식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 또한 지역건축의 활성화는 지역문화형성의 밑거름이 되고 나아가 우리문화의 원천이 될 것이다. 지역성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욱 논의가 되어야할 영원한 과제이다. 신도시 편은 1999년 12월호 상편에 이어 이번호에 하편을 게재한다. <동정근(안하대건축공학과 교수)/편집디렉터>

〈상편〉	신도시 건설의 배경과 도시계획적 의의 / 민범식(국토개발원 연구위원)	
	과천 역사와 삶이 담긴 지역만들기 / 이영수(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평촌 역사환경에 따라서 / 최승원(양기주망건축)	
	중동 주변과 지역성 / 손기찬(동이건축)	
〈하편〉	신도시의 주거문화와 삶의 질 / 권용우(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44
	분당 신도시 분당 / 이영(경원대 건축공학과 교수)	49
	일산 신도시 산책 / 김성홍(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53
	좌담 신도시의 건축과 도시문화	57

신도시의 주거문화와 삶의 질

The Living Culture and Quality of Life in Newtown

권용우 / 성신여대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by Kwon Yong-Woo

신도시 주거문화의 형성과 의의

도시를 문화적으로 진단하는 시각은 다양하다. 도시문명론, 도시적 생활양식론, 도시문화공간론, 도시정치론 등 관심방향에 따라 제각각이다. 그러나 도시문화에 관한 백화제방의 논의 가운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인간에 관한 주제다. 도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수도권 신도시의 주거문화 내지 주거환경은 필연적으로 신도시에 사는 보통시민의 삶터 문제 내지 삶의 질의 문제를 검토하는 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그것은 신도시에 사는 보통시민들이 수준있는 문화와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유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도시에는 과천, 안산, 분당·일산·중동·평촌·신분 등 7개 주택신도시 등이 있다. 이중 과천은 서울의 수도기능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안산은 공업기능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70년대 후반 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80년대 말 서울의 주택위기에 대처한 공간적 산물이 분당 등 5개 신도시다. 이처럼 수도권 신도시들은 모두 중심도시인 서울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분당 등 5개 신도시와 기개발된 신시가지와 비교하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확인된다. 5개 신도시 주거환경의 질은 과천이나 목동 등은 물론 서울의 평균보다도 낮다. 총인구밀도의

경우, 5개 신도시의 평균은 1ha당 235명인 반면, 목동이 264명, 과천이 235명, 서울평균이 181명이다. 그러나 총인구를 주거용지로 나눈 순인구밀도는 5개 신도시가 686명인 반면, 과천이 542명, 목동이 495명이다. 특히 서울평균이 364명으로 집계되어 5개 신도시가 서울평균보다 2배 정도 높다. 주거밀도를 나타내는 용적률은 5개 신도시가 169~226%로 평균 197%이다. 이는 과천의 97%, 목동의 122%는 물론, 168%의 상계동보다 높다. 5개 신도시의 총인구밀도는 외국의 신도시가 1ha당 100명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표 1).

이처럼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주거환경은 기존 중심도시의 고밀도 주택개발지보다 더욱 열악하다. 신도시 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수도권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주택분양가격 상승요인을 고밀화로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이다. 수도권 주거문화의 해결 및 향후 정책방향은 단순한 경제논리나 양적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고려한 질적인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목적 중의 하나는 주택문제로 고통받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다는 명분이었다. 5개 신도시의 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23.7%를 차지하고 있으나, 분당과 일산의 경우 전체의 20%도 채 안된다. 또한 25평 이하의 소형주택 비중도 전체의 55~68%로 주택 2백만 호 건설계획상의 공급비율인 66.5%에 다소 미흡하고, 특히 과천이나 상계지구에 비하면 훨씬 낮다(하재완, 1995,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평가," 주택연구 3, pp.81-83). 이는 수도권 5개 신도시가 수도권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보다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내집마련에 더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주택신도시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을 보인다. 긍정적인 면은 두가지다. 하나는 주택신도시의 개발로 주택가격이 상당히 진정되었다.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은 중대형 아파트값의 하락을 필두로 서서히 진정되었고 이러한 하락의 리듬은 소형 주택으로 전파되었다. 아파트를 대량공급해서 주택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현재의 집값으로 평형도 낮히고 실제로 돌아오는 이

표 1. 외국 신도시의 개발밀도

구 분	多 摩	Milton Keynes	Cergy-Pontoise	Mame-La-Vallee
계획면적(ha)	3,080	8,863	10,850	15,000
계획인구(명)	300,000	250,000	330,000	500,000
총인구밀도(명/ha)	98	28	30.4	33.3

(출처: 김영하, 1995, "신도시의 기능과 역할", 건축:대한건축학회지 39(1))

특도 있다고 판단한 수요자의 의지가 일치한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주택공급량을 늘려 주택보급률을 높였다. 새로운 집을 많이 지어 집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 경제력 부양을 도모했다.

부정적인 면 또한 두가지다. 하나는 분당 등 신도시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초래했다. 서울의 강남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서울의 강남인구가 분당 주택도시에 몰렸다. 인구가 빠져 나온 강남의 주거지에는 강북 내지 서울 이외지역으로 부터의 유입 인구로 메워졌다. 이러한 주택순환과정(filtering)은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주택에 적용되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었다. 다른 하나는 분당 신도시의 건설로 서울 주변지역에는 신도시 건설이 줄속적으로 줄을 이었다. 어떠한 형태의 도시이건 간에 도시건설에는 상당한 계획기간이 소요되고, 상하수도·전기·도로 등의 도시하부구조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어야 함은 도시건설의 원론에 속한다. 이제까지 서울 시내의 영동·잠실, 고덕, 목동, 상계지역 등에 대규모의 '도시내 주택단지(town in town)'를 만든 바 있다. 그러나 분당 신도시의 출현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우후죽순격으로 '주거용'의 주택도시와 미니신도시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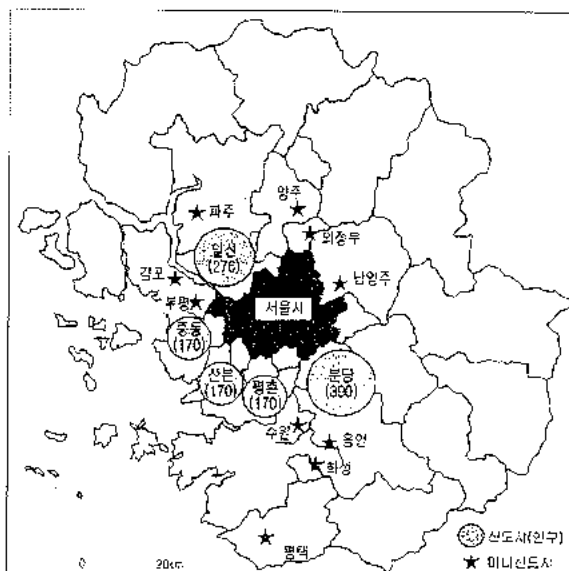
수도권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신도시 건설의 의미를 찾는다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도시개발의 흐름을 확대정책으로 전환시켰다. 분당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수도권 지역정책은 수용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도시를 개발하는 확대정책으로 변해되었다. 둘째로 신도시 건설은 집단적 교외화의 특성을 보인다. 중심도시(central city)로부터 주변지역으로 진행되는 교외화(suburbanization)는 개인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신도시의 경우 공기관의 주도하에 수십만 명의 대규모 인구 집단을 단기간에 중심도시 주변지역으로 끌어내는 '비상한' 방법이 선택되고 있다. 주택신도시는 애당초 서울의 거주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계획되었고, 독자적인 행정체제(municipality)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독립된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부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수도권 주택신도시들은 서울의 대규모 거주교외지역(residential suburbs)에 다른아닌 지역으로 평가된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이는 기존 수도권 5개 신도시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혹시 잘못된 신도시 건설에 대한 평

가가 과거의 잘못에 면죄부를 주고 향후 전개될 새로운 신도시정책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러한 우려는 최근 일련의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97년 2월에 2002년까지 수도권 권을 중심으로 인구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미니신도시를 30여개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여 개 단지는 서울을 중심으로 40km 이내에 위치한 수원, 용인, 부천, 김포, 파주, 부평, 남양주, 의정부 등의 인근에 개발가능한 자연녹지나 준농림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 개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97년 7월 건설교통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평택 청북지구, 파주 교하지구, 양주 덕정지구, 화성 태안지구 등 4개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중 평택 청북지구의 개발규모는 150만평, 16만명 수용규모로 평촌과 비슷한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그림 1).

정부는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모를 줄인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규모가 줄지 않은 '미니신도시'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도시개발은 결코 평평한 땅 위에 단순히 집만 지어 '주택병영'을 만드는 토목공사가 아니다. 미니신도시 구상은 문제많은 신도시 개발을 재차 반복하는 땀질일 수 있다. 친환경적 논리로 볼 때 서울주변에 그나마 남아 있는 녹지와 준농림지역을 파헤쳐 기존 5개 신도시 개발과 유사하게 또 다시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그에 따른 제반 대도시 문제를 양산하는 수순을 밟는 셈이 된다. 이는 환경적으로 건강하



출처: 권영우, 1999, 수도권의 이해, 보성각, p.289

(그림 1) 수도권 신도시와 미니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고 지속가능한 개발(ecologic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과 거리가 있는 조치이며 더욱이 균형적인 국토관리의 패러다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신도시 주거문화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증후군

신도시 개발은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개발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개발상의 계속적인 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도시생활의 불편이 간단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신도시 주거환경을 무너뜨리는 여러 증후들이 입주 초부터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받고 있다. 5개 신도시 주민입주율이 92%를 넘는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부족하다. 96년 8월의 경우 동사무소가 43개소(계획 64), 경찰서가 3개소(계획 6), 파출소가 24개소(계획 58), 소방서가 2개소(계획 5), 소방파출소가 13개소(계획 15), 우체국이 3개소(계획 5)가 건설되어 계획에 비해 실제 시설공급이 극히 저조하다(경기개발연구원, 1996, 신도시 기능정착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p.81).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종합병원의 경우 신도시 주민의 22%만이 해당 신도시내의 종합병원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서울(55%)과 기존 도시(19.5%)를 이용하고 있어 외부 의존성이 높다.

문화 서비스면에서 연극·영화 관람의 경

우 해당 신도시지역이 12%에 불과하고, 주로 서울(66%)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 박물관·미술관 관람의 경우는 해당 신도시지역이 6%인 반면, 서울이 72%로 서울 의존성이 더욱 높다(표 3). 전반적으로 신도시의 문화 서비스는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신도시내의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제대로 공급되어 있지 못하다. 주거문화와 삶의 질의 측면에서 문화 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도시의 문화공간 부재로 인한 '문화갈증' 현상은 신도시의 삶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외부 의존성과 신도시 주민의 장소적 이탈감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신도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 신도시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는 높지 않다. 신도시 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는가에 대해 주민들의 46.1%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제대로 추진되었다는 주민은 5.5%에 불과하다(경기개발연구원, 1996, p.132). 국토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신도시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주거비용을 비롯한 교통·교육·공공편의 등 제반 여건이 신도시 입주 전의 기존 주택에 비해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했다(고철 박종택, 1993,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구이동 및 주거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pp.48-52).

총체적인 삶의 질에 관한 불만족은 인구·주택센서스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95년 주민등록상 총가구수는 173,968가구이지만, 95년 1인

표 2. 신도시 주민의 연극·영화관 관람지역

(단위: %)

관람지역 \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전체
신도시내	17.2	9.9	10.2	6.7	11.4	12.1
서울시	69.9	87.3	65.7	42.4	44.7	65.9
기존 도시	10.6	1.1	22.7	39.5	38.4	18.2
기타	2.3	1.7	1.4	11.4	5.5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1996, 신도시 기능정착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 p.65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함.
주: 기존 도시는 성남·고양·인양·군포·부천시임.)

표 3. 신도시 주민의 박물관·미술관 관람지역

(단위: %)

관람지역 \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전체
신도시내	9.2	5.6	4.2	3.8	4.6	6.2
서울시	72.7	88.1	63.9	52.9	68.9	71.7
기존 도시	5.6	0.3	15.7	29.5	18.7	11.1
기타	12.5	6.0	16.2	13.8	7.8	1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1996, p.66을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함.
주: 기존 도시는 성남·고양·인양·군포·부천시임.)

구주택총조사보고서} 상의 실제 거주가구수는 144,677가
 가로 2만9천여 가구가 적어 주민등록상 전체 가구의
 16.8%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신
 도시초기에 투기성 가수요자가 많았고, 입주 뒤 교육·직
 장·교통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은 남겨둔 채 다시
 서울 등지로 이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신도
 시가 초기 계획에서 제시했던 “교통·교육·문화·환경…
 그 모든 면에서 이상형을 추구하는 꿈의 신도시”가 실현되
 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신도시 입주 주민의 입장에
 서 신도시의 당면 해결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신도시
 전체적으로 보아 교통문제, 의료문제, 치안문제 등이다. 이
 중 1순위로 지적된 교통문제는 2, 3순위에 비하여 압도적
 으로 높은 지적률을 보이고 있어 신도시의 도시 기반시설
 공급의 미흡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
 여 준다. 또한 의료·교육·위락 서비스 등도 주민들의 기
 대에 못미친다(표 4). 그러나 97년 2월 조선일보와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신도시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신
 도시 주민 생활만족도 및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신도시가 서울에 비해 더 살기 좋다’는 응답이
 전체의 67%에 이르러 점차 신도시의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주기도 했다.

신도시 주거문화와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
 후군은 크게 네가지이다. 첫째는 서울권으로의 지속적인 집
 중이다. 신도시로 인구가 빠져 나온 서울의 주거지에는 서
 울내의 타지역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의 유입인구로 메워져
 서울권의 집중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서
 울은 시경계 14km를 뛰어넘어 서울로부터 30~40km까
 지 확장되어 있다. 이곳에 수도권 인구의 85%가 몰려 있으
 며, 수도권 전체 제조업의 2/3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수도권 전체 제조업 증가율의 85.4%, 종업원 증가량의
 74.4%가 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94년의 경우 수도

권 신도시로 이사온 이주민의 76.4%가 서울에서 온 사람
 들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에 공급된 주택물량은 총 29만3
 천 호이다. 이것은 90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총주택수 31만
 호에 거의 육박하며, 서울 총주택수의 20.5%에 해당할 뿐
 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택수의 10.7%에 이르는 막대한
 물량이다.

둘째는 신도시의 자족성 부족이다. 신도시
 는 모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용지 조성이 불가능한 과
 밀억제권역에 입지해 있어 자립기반 조성이 원천적으로 어
 령해 되어 있다. 96년 경기개발연구원이 5개 신도시에 입
 주한 가구주 1천5백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
 분당 88.3%, 일산 89.5%, 평촌 74.2%, 산본 85.2%, 중
 동 72.1%가 모도시로부터 독립해 자족적인 기능을 갖춘
 시로 승격되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는 신도시의 교통문제이다. 수도권 신
 도시는 수도권내에서도 인구밀집도가 가장 심한 경인-경수
 축 및 서울-성남축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이들 지역의 혼
 잡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신도시 계획시의 예상치
 를 훨씬 상회하는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으로 교통대란을 불
 러오고 있다. 5개 신도시의 경우 입주가구주의 65.8%가
 서울에 직장을 두고 있다. 특히 일산에 거주하는 취업자의
 76.6%, 분당에 살고 있는 취업자의 72.5%가 서울에 직장
 을 가지고 있다. 5개 신도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는 15.3%
 에 불과하다(경기개발연구원, 1996, p.66). 신도시 입주
 자들의 통근통행수단의 분담률을 보면, 분당의 경우 가구주
 의 84%가 승용차를 이용하며, 평촌 72%, 일산 60% 등
 자가용 승용차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서울과 신도시간에
 전철과 대중교통수단이 연계되고 있지만 이들 대중교통수
 단이 원활하지가 않다.

넷째는 신도시의 안전이다. 신도시 건설은
 장기적인 개발계획 없이 동시다발격으로 추진되어 부실공

표 4. 신도시 주민들이 지적한 당면 해결과제

(단위:%)

순위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전체
1순위		교통문제 50.5	교통문제 39.5	교통문제 32.9	교통문제 28.6	교통문제 37.4	교통문제 40.4
2순위		치안문제 14.4	의료문제 26.3	위락문제 20.8	위락문제 19.6	의료문제 19.6	의료문제 17.0
3순위		시설하자 7.4	치안문제 18.1	의료문제 15.3	교육문제 17.6	치안문제 11.0	치안문제 13.6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1996, p.89를 토대로 필자가 재구성.)

사가 빈발하였다. 시공중이던 베란다가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바다모래를 써서 강도 미달의 불량레이콘이 공급되고, 질 낮은 자재를 사용해 철거 및 재시공이 속출하였다. 5개 신도시 입주 후 약 5만3천여 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96년 8월 말 기준으로 116만 명이 입주한 5개 신도시에 파출소는 24개소이며, 근무하는 경찰관수는 323명에 불과하여 경찰관 1인당 평균 3,605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137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96년 1~8월간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가 총 1,335건이나 발생하여 95년 동기간의 951건에 비해 1.4배나 증가하였다. 신도시 건설시에 주로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한 결과,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립은 뒷전에 밀린 결과이다.

신도시 주거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제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은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다. 지난 반세기 동안 풍미했던 도시화·산업화의 성장주의 논리는 더 이상 수도권을 이끌어 갈 원동력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성장의 폐해가 일상생활의 건강함을 망가뜨리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은 삶의 질, 친환경, 시민중심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개발철학으로 지역정책을 다시 세워야 할 때이다. 신도시의 개발이 미흡하고 개발일정이 촉박한 점 등의 문제를 대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국적 혹은 수도권 차원에서의 지역기능 배치를 신중하게 고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었지만, 서울시의 일부 업무 및 중추기능을 신도시로 유치하여 도심 과밀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자족기능의 구축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업무·연구·교육·문화·예술·공업 등의 복합적인 기능 유인방안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신도시는 서울과의 연계 아래 지역 기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과의 원활한 교통체계의 수립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단순히 연결도로만을 새로이 건설하는 것은 또 다른 교통을 유발하거나 신설도로 주변에 택지지구의 건설을 유도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과의 연결은 개인교통수단보다는 전철 등 대중교통 중심체계로 정착시키되 수도권 전체 공간구조 및 계획

과 연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편의시설과 도시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편의시설 가운데 공공부문의 제반 시설은 재정 형편에 맞추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은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치안과 방범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서 현재 건축되었거나 새로 짓고 있는 모든 건축물과 도시의 하부구조를 안전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에는 공원 등의 녹지공간이나 휴식공간이 충분히 갖추어 있지 않다. 그대신 도로확장과 건설공사, 계속되는 보수공사, 차량으로 인한 먼지, 소음, 매연 등이 가득하여, 전원생활의 기대를 가지고 들어 온 입주자들은 '잠만 자는 여관'과 같은 신도시에서의 불편한 생활에 실망하고 있다. 신도시에는 마땅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충분한 삶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어 지역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에 참여해야 하며, 특히 신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민운동적 차원의 참여와 개혁이 필요하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가왕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는 한국적인 신도시 개발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버린 계획과 개발이 결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음을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부분적이지만 수도권 신도시에서 전개된 주거문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주민의 손해배상청구운동, 주차공해보상운동, 준농림지내 위락시설 설치반대운동, 그리고 각 시민단체에서 펼치고 있는 삶의 질 개선운동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향후 신도시 주민을 비롯하여 주거문화와 삶의 질 향상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 수도권 주거환경을 살맛나는 생활환경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신도시 분당 Newtown Bundang

이 영 / 경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Young

들어가는 말

I. 며칠 전 네프스키 가로를 양지바른 쪽에서 그늘진 쪽으로 건너가고 있었다. 아시다시피 네프스키 가로를 횡단할 때에는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마차에 깔리게 마련이다 - 위험한 통로에 들어서기 전에 자세히 살피고 기회를 포착한 다음 교묘하게 사이를 빠져나가야 한다.

... 중략 ...

II. 건축적인 면에서 볼 때 페테스부르크는 이 세상의 모든 건축, 모든 시대, 모든 유행의 반 영이다. 이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그것을 모두 자기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수필 '少景'에서

위의 글은 도스토예프스키가 19세기 중엽의 도시 페테스부르크의 상황을 묘사한 글이다. 위의 글이 도시조직인 건축물들의 상호관계망 즉 도로체계에 관한 것이

라면 위의 글은 그 도시의 세포단위가 가지는 건강성 즉 건축물 자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이 현재의 분당 또는 한국의 신도시들을 묘사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는 데 대하여는 독자들도 쉽게 동의하리라 생각된다. 도시와 건축,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부터 이 둘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해 왔다. 우리가 건축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도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도시 이야기 또한 건축에 관한 것이 된다.

분당의 도시성

분당은 10대 초반의 아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아직 많은 건축물들이 자리잡지 못하고 서성이며 떠다녀고 있으나 주민들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그 조직 속으로 동화되어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

현대적 계획도시 분당은 자동차의 속도규모에 맞도록 설계되어 지어졌다. 경부고속도로와 나란히 배치된 모습에서 그 것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으로 느껴지며, 또한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구 성남지역과 연결되어있는 대로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 대로가 구 시가지의 지날 때는 건축물들이 도로에서 바로 접근될 수 있는데, 분당으로 들어서서는 이 대로변 건축물로의 접근이 자동차 우선적 이동성의 극대화 추구로 인하여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대로상에 인도는 있지만, 차를 타기 위해 서있는 공간이지 보행자가 도로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분당의 이 중앙 대로변의 건축물들은 주입구가 뒷 편에 있으며 대로변에는 주입구가 없는 이중의 정면을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르 꼬르뷔지에 등 근대건축의 거장들이 제안했던 보차분리의 도로체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동의 편리함은 기존의 도시가 가졌던 인간중심의 기본구조를 흔들며 이제는 우리가 마땅히 감수하여야만 할 상황을 대신 주



중앙공원 위로 보이는 서현동 시범단지



아파트 주거군과 녹지가 만나는 접촉면



주택전시관과 지역공원

었다. 차에 대한 배려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먼저 만족되어야 할 부분임에는 아마 누구도 쉽게 부정만 하지는 못 할 것이다. 이는 성남의 구 시가지와 분당이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가로 상황적 유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차와 함께 사는 현재의 우리가 이동의 편리함과 인간적 척도 둘 다 모두를 가질 수는 없는 것 일까하는 의문도 가져진다. 분당이 차를 위한 공간만 배려된 것은 물론 아니다. 전체적으로 남북이 기다란 선형의 배치는 각 골짜기마다 옛 이름들이 붙여져 고유한 마을을 만들면서 마치 손가락을 펼친 것과 같은 형상의 독자적인 영역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이사이에 그린벨트나 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경관 상에 답답하여질 수 있는 고층아파트군 사이로 항상 녹색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 것이 신도시 분당이 전원도시로 불리워 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다.

중앙공원과 근래에 완성된 율동공원은 또 하나의 매력으로 등장했다. 한동안 율동공원에 서울랜드와 같은 시설이 들어선다 하여 많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성남시의 관계자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애써서 지금의 공원다운 공원이 탄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 경제적인 이익에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전체 분당 주민의 여윌공간을 마련한 배려는 당연히 높이 평가되어야한다. 이것과 연결해서 백궁역 앞의 주택공원도 지역주민에게 되돌려져야한다. 분당 건설초기 당시부터 있어왔던 주택전시관은 이제 그 기능을 다 하였고 여겨지니 임시건물 같은 그 도발적인 입면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철거되어서 본래의 지역공원의 용도에 맞는 적정 규모의 건축물로 되살아나야 할 것이다.

분당의 지역성과 도시건축

2000년 현재 대한민국 분당에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지역성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은 근

대건축의 주창자들이 맹렬한 기세로 20세기의 초기를 이끌어갔던 직후, 2세대 건축가들에 의해서 강하게 제기되었던 물음이다. 또한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에서처럼 주 문화권에서 거리가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항상 발동되는 자의식의 발로일수도 있겠다. 그리고 더구나 요즘은 미국이 흔들어대는 글로벌리제이션의 기치 아래에서 우리 나라와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 모든 분야에서 초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옛 도시와 건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여러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심리적 안정감과 동시에 소속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우리의 도시와 건축이 우리에게 시원적 감각과 더불어 초현대의 하이테크적 느낌까지 제공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이 필요하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닌 주민의 노력으로 새겨지는 시간이 중요하다. 분당의 구석구석에 그저 있는 물리적인 공간들이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공동의 장소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새로운 도시에는 새로운 시민의 합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지자체가 도입된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많은 건전한 시민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지속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분당의 건축물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건축에서 지역성을 찾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아마 안타깝지만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80년대에 서울 지역에 지어진 여타 아파트들과 좀 더 고층이라는 점 외에는 전혀 차별되지 못 하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고층 아파트의 맨 위층 부분만을 듀플렉스로 두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이나 새로운 주거형식을 모색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개발되는 판교 지역이나 운중동에서는 보다 새로운 주거형식이 들어서 앞으로의 미래



정자동 초입의 분당중학교



클락동 입구의 불곡초등학교



계원예술고등학교의 보다 바람직한 사례

주거형식에 대한 시험적 계기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린주구에 대한 정의를 꼭 들지 않더라도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건축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많은 분당의 학교건축들이 표준화 도면의 사용이라는 이름 하에 전혀 자신의 얼굴을 지니지 못하고 말았다. 획일적인 질은 적벽들의 사용이나 정리하지 못하고 색채가 남용된 사례, 비례감각의 기본적인 채움조차 거부한 채 남겨져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대부분 가장 눈에 띄기 좋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7차 교육과정으로 이들 학교들에 많은 중 개축의 요구들이 뒤따르리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여러 분당지역의 건축가들이 솔선 수범하여 이 분당 경관의 주인공들이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관상의 주요 역할을 지역사회에 해 줄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건축물은 종교건축이다. 분당에는 공원근처나 하천 변 등 열려있는 공간과 접해있는 대지에 많은 종교부지가 적절하게 배정되어 있다. 이들의 대지조건은 다른 건물로부터 시계가 차단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있으므로 시지각적 인지성이 매우 높아서 많은 건축가들이 부러워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작품이 수준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 효과가 거꾸로 배가가 되어 경관상 참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분당의 근린생활시설들은 대개 주요 가로 주변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데, 그 위치와 주변 상황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주택지구로 구상된 지역이 근린생활시설 위주의 동네로 바뀌면서 거의 음식점으로 화하였고 본래의 단독주택지로서의 기능은 상실되었다. 그 하나 하나의 모습은 가히 우리 건축설계 유행의 전시장이라고 하

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나마 음식점들은 유지가 되나 진정한 소규모 소매점들로 이루어진 근린생활시설들은 미국의 주차장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쇼핑센타를 닮은 대형판매시설들에 밀려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일부 가로의 생활을 연결시켜주던 기본적 고리마저 끊겨 버리고 말았다. 따라서 분당에서 더 이상 소원도우를 보면서 가로를 한가로이 거닌다는 것은 앞으로 더욱 어려울 듯이 보인다.

분당에서 적용된 또 다른 개념은 서울에 위치하는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유치계획으로 분당을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잘 지켜지지 못하여 이를 위해 마련된 다소 과도하게 마련된 업무, 상업지구들에 건물들이 들어서지 못하여 황량한 경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유치된 몇몇 공공 건물들도 분당의 도시조직 속에 일부로서 작용치 못하고 따로 드넓은 부지 속에 파묻혀 홀로 동떨어져서 자연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본래의 의도대로 도시조직의 일부로 살아있는 사례도 많이 있다. 차병원과 대한주택공사가 그 중의 일부인데, 차병원의 특이한 형태는 주변지역에 차별성을 갖도록 하여 하나의 기억될만한 장소로 만들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불곡동 거리 모퉁이의 작은 파출소 건물도 건축설계에 따라 훌륭한 지역의 마스크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도시고속도로변에 외로이 서 있는 지하차로 배기탑이나 지역난방공사의 거대한 굴뚝들도 재미있는 형태를 가져서 해당지역의 시각적 결절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맺는 말

분당은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다. 도시설계가 된지 이미 10년을 넘고있으므로 지금의 도시상황들이



에덴교회 분당의 교회답게 주차시설이 완벽하다



천주교회당 주변의 스케일과 조화가 모색되지 못한 사례이다



전통적인 음식점 사슬로 이루어진 근린생활시설의 가로경관

설계 당시의 계획지표들과 면밀히 비교 검토되어 도시 만들기의 방향을 한번 되 짚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의 도로가 너무 넓다면 한번에 건너기 어려운 어린이나 노인들이 잠시 피할 수 있는 도로 중앙에 피난복지대도 마련하는 등 지금의 현상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체 도로의 스케일도 축소시켜 자동차 과속의 심리적인 원인도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설계 당시의 보행자전용로 개설, 적절한 공원의 배치, 대지규모의 조정, 의한 건축물 규모의 적절한 배치 등 좋은 개념들은 도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기본적인 내용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당의 여러 시민 단체들이 이러한 실지 도시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들린다.

아직도 I.M.F.의 영향으로 분당의 업무 상업지구의 약 절반이 비어있다. 오히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도시 만들기 필요한 시간을 주민에게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때 오피스텔의 열풍이 I.M.F. 직전까지 정신없이 불어 전체 분당이 10만평 단위의 고층 복합 건물로 채워져 버릴 듯한 위기가 도래한 적이 바로 얼마 전이었다. 이 오피스텔은 업무, 상업지구엔 적합한 직장 거주자가 합쳐진 최첨단 벤처기업들을 위한 오피스와 호텔이 결합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주거의 대응으로 인식되면서 불법 아파트로 개조되어 학교나 여러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를 야기 시킬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나 공공기관에서만 애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 시민이 이에 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체해 나가야 한다. 토지공사도 높은 지가의 고수나 현재의 수지타산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보다 분당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의 결과로서 지역 하나 하나 미다 분당의 각 지역에 특색을 줄 수 있는 건축물들을 세워 나가면서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면 전

체의 지역성도 동시에 추구될 수 있겠다.

지금 한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분당 도시설계의 기본인 여러 소중한 개념들이 말살되도록 방치하면 앞으로 우리들의 후손이 살아갈 분당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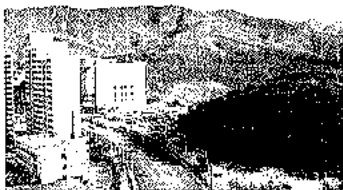
가로 모퉁이의 파출소



도시고속도로 지하차로의 배기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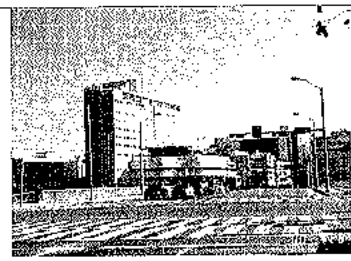
지금은 황량하지만 보행자도로는 그 언제인가를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주차장에 둘러싸여 설쳐릴 존재하는 아-마트 분당점



한국가스공사 수평선이 강조된 유사한 일면



차영원의 특이한 형태

일산신도시 산책

Strolling about in the Ilsan Newtown

김성홍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by Kim Sung-H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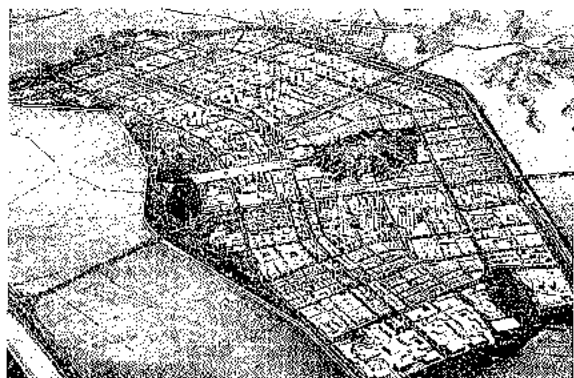
서울에서 일산신도시를 가는 길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는 경부고속도로만큼이나 넓게 뚫린 자유로를 달려가다가 호수공원을 지나 일산신도시를 횡단하는 백마로로 들어서는 것이다. 둘째는 수색이나 구파발에서 능곡을 경유하여 국도로 일산신도시의 북측 뒤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셋째는 전철3호선을 타고 구파발, 화정을 지나 일산을 동서로 종단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길은 일산신도시에 사는 사람이건 방문하는 사람이건 잘 알고 있으나 네 번째 방법을 알고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알고 있다고 해도 서울을 출퇴근하는 신도시사람에게 조차 인기가 별로 없는 길이다. 서울역에서 한 시간 마다 떠나는 열차를 타고 신촌, 화전 그리고 이름이 낯선 몇 개의 간이역을 지나 백마역이나 일산역에 이르는 철길이다.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 이 철길은 경부선과 함께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혈관역할을 하던 경의선이다. 해방 후에는 만주벌판을 헤매던 사람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 철

길을 따라 서울로 들어왔을 것이고, 그 이후 철길이 동강나기 전까지 평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정치적 통로이기도 하였다. 일산신도시가 생기기 이전에 경의선 기차는 백마역 근처의 카페와 주점 그리고 자연을 찾아 서울을 잠시 탈출하는 대학생의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현재 경의선 철길은 자유로, 전철3호선과 평행선을 그리며 일산신도시와 구일산을 가르는 경계를 만든다. 대학생들이 찾았던 백마역 근처의 카페들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오는 손님을 받기에 분주하다. 일제시대 지어진 일산역사는 목조지붕, 회벽마감, 단아한 역사앞들을 아직도 지키며 서 있지만 읍내의 중심을 지키던 옛 위용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일산에 살았던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침저녁으로 서울역까지 오가는 동안 방해받지 않고 차창을 바라보며 침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눈을 맞으며 플랫폼 위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여유도 좋았고, 역에서 집까지 도보로 20분 정도를 걷는 것도 자투리땅을 일궈 여러 가지 채소가 심어진 밭을 지나는 길이어서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치였다. 불과 50분 거리이지만 고객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차내 방송은 마치 먼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만든다. 출퇴근 시간을 조금 넘기면 홍익회 아저씨가 과자와 음료가 담긴 수레를 끌고 다녀 이 기분은 더해진다. 서부 전방에서 휴가를 나오는 장병들이 객차를 가득 메우는 경우도 많다.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쪽에서 떠돌아 대고 반대쪽에서 문산의 미군들이 지껄이는 때면 기차는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차창을 통해서 느낀 가장 강한 도시건축적 체험은 마치 버려진 것 같은



한강과 연결되었던 白石場과 注葉里는 지금은 자유로 때문에 강과 단절되고 강변에는 군사용 철책이 쳐져있다. 동서로 달리는 신작로와 평행으로 경의선이 놓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金正浩의 東輿圖, 1860년경, 자료: 李基燾, 韓國의 古地圖, 범우사, 1991)



서울역에서 한 시간 마다 떠나는 열차를 타고 신촌, 화전 그리고 이름이 낯선 몇 개의 간이역을 지나 백마역이나 일산역에 이르는 철길이 북측에 보인다. (자료: 韓國土地開發公社, 一山新都市 開發史,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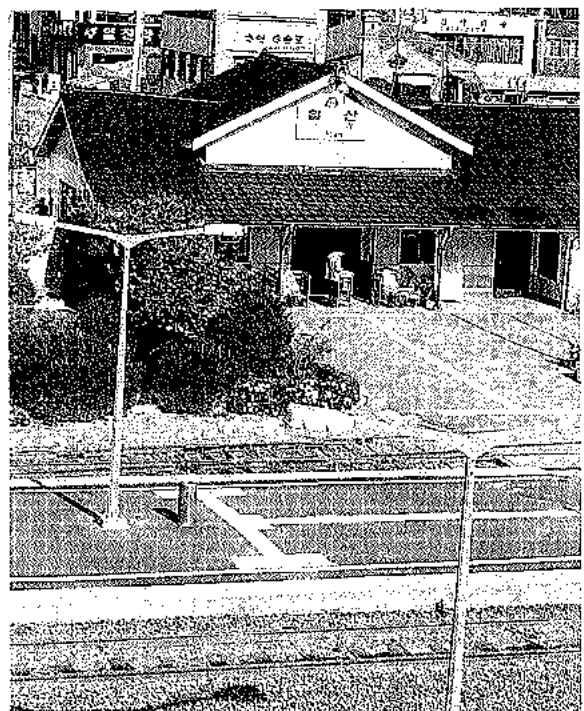
도시의 뒤편을 만나는 것이다. 자동차에서 보는 도시의 거리는 어디를 가나 상업화된 앞의 얼굴이다. 간편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으면 상점의 내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커다란 유리창이다. 반면 기차를 타면 한가한 들판과 아산, 어설픔지만 비어있는 땅을 지나 서울로 들어오면서 주택의 조그만 창, 기차의 소음을 막기 위해 세운 방음벽, 축대, 터널, 건널목을 만나게 된다. 철길이 만나는 것이 화장한 도시의 얼굴이라면 철길이 만나는 것은 가식이 없는 도시의 단면이다. 상업자본주의가 도시를 지배하는 지금 이러한 도시의 뒷모습이 남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승객 모두가 웬만큼 자리를 잡고 아침의 일산을 가를 때 차창밖에는 항상 반대의 풍경이 벌어진다. 중산지구나 인근에서 일산신도시를 횡단하여 서울로 나가려는 자동차로 백마로와 자유로는 꼭 막힌다. 능곡에 이르면 체증은 더욱 심해진다. 기차를 스쳐가는 전철 3호선의 내부를 들여다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뺨뺨이 들어찬 사람들로 전철은 만원이다. 한가한 차창에서 이러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마치 70년대의 공간에서 90년대의 공간을 내다보는 착각을 하곤 하였다. 시대가 갈리는 경험은 일산신도시와 철길들 사이에 둔 구일산을 바라보면 더욱 강해진다. 한 쪽은 20여 층이 넘는 고층아파트, 잔디와 나무로 덮인 산책로가 있다면 반대쪽에서는 아직도 어설픔 70년대의 집들과 농사를 짓다 만 땅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온다. 군데군데 신도시 흉내를 낸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러한 착각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일산이 매력있는 것은 철길주변의 어설픔 풍경이나 시대의 단층이 아닐 것이다. 아직도 빈땅으로 남아있는 곳에 상가, 빌라트, 혹은 무슨 토피아니 하는 고층주거를 짓는 것일 것이다. 작품성을 추구하는 건축가에게는 정발산 양쪽에 자리잡은 주택지이다 한 번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실험을 해보는 것일 것이다. 이국적 풍경을 드러내는 이곳을 대중매체도 좋아한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는 장면은 이곳에서 흔한 광경이다. 그러나 산을 끼고 저층 단독주택의 마을을 이룬 이곳은 고층아파트 속에서 마치 섬처럼 느껴진다.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이 갇힌 섬도시 시헤이븐처럼. 이 영화 속에서 파스텔조의 거리풍경과 복고적 건축형태를 배경으로 일상의 삶이 바빠 펼쳐지는 소도시로 그려지지만 실상 이곳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주말이나 1년에 한 두 번밖에 가지 않는 플로리다의

휴양지 시사이드(Sea Side)란 곳이다. 영화에서처럼 이곳의 실제의 삶 역시 세트의 삶처럼 짧은 시간에 기획되고 제작되어진 것이다. 아직까지 일산의 단독주택 역시 내게는 우리도시의 보편적 삶을 담고 있지 않는 타자의 공간으로 느껴진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정주의 의미보다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아파트 사이에 끼여진 그림과 같은 이곳에서 건축가의 실험은 우리사회의 거주성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일산은 이제 입주가 된지 1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신도시 개발에 관한 많은 전단과 비평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건설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지금 일산신도시는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옮겨가야 할 때인 것 같다. 일산은 건축물과 인구를 산출해서 만든 계획도시이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담당했던 관료들의 입장에서 주택의 수요를 충족했다는 점에서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본다. 베드타운이라는 한계도 공공시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일산신도시를 감싸고 있던 배경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원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태생할 때 주위는 논과 밭 아산 그리고 드라마 전원일기의 세트나 되는 근교농업촌이었다. 일산신도시의 땅과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로 확인되는 때부터 주변은 그대로 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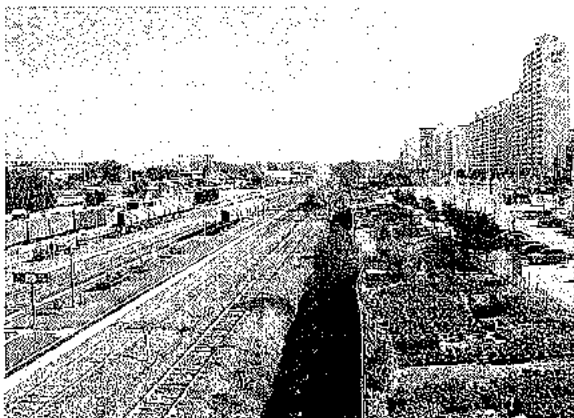
일제시대 지어진 일산역사는 목조지붕, 회색마갈, 단아한 역사앞들을 아직도 지키며 서 있지만 읍내의 중심을 지키던 옛 위용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있지 않았다. 철길 넘어 중산, 탄현 등이 커지고 있고, 휴전선을 지척에 둔 파주 교하 일대는 미니 신도시로 이미 바뀌어져 가고 있다. 건축가들이 관심있게 지켜보는 헤이리밸리, 출판문화단지 역시 일산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의 위성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이제 그 아래에 포도송이처럼 작은 도시들을 달고 있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쇼핑과 상업시설들 때문에 출판문화단지, 헤이리밸리 주민은 일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미니 신도시를 빨아들이는 마지막 자석은 서울이라는 중심이다. 중심이 존재하는 한 주변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다음 문제는 중심과 주변을 연결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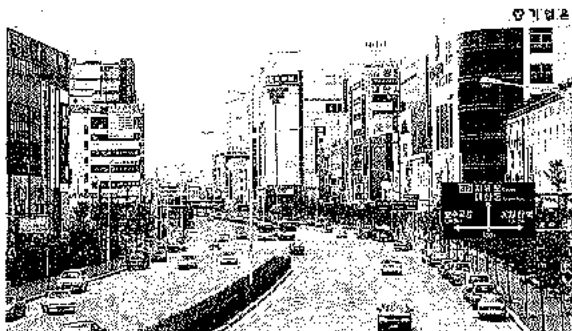
내가 70년대 분위기의 한적한 기차통근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신도시가 훌륭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외면하고 도로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일산역이나 백마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철길은 빨리 달리면 20분내에 갈 수 있는 거리이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철도망, 정차역을 구분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일본의 도시를 보면서 나는 우리의 신도시는 왜 이런 모습은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문하곤 하였다. 한국경제를 비판한 오마에 겐이치에 따르면 전후 복구에 일본의 관료들은 미국과 달리 국토가 좁은 일본에서 철도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철도를 건설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요타 기이치로 같은 사람들은 자동차 산업을 일구어 내었다 (매일경제, 99.9.1). 민간기업의 역동성과 공공의 힘이 서로 상승작용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경제모델 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델조차도 미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

료에 의하면 2000년대 초에는 수도권에 113개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고 230여만명이 입주할 예정이다(조선일보, 99.8.30). 이 정도의 인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큰 도시에 해당한다. 이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가솔린을 태우며 서울을 오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암울하다. 루마니아의 작가 게오르규는 소설 25시에서 암울한 유럽사회를 산소가 결핍되어 가는 잠수함으로 비유한 적이 있다. 산소에 민감한 동물이 이미 죽음을 감지하고 있을 때에도 인간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의 도시는 지금 심각한 산소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의 도시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새로운 도시관을 제시한 사람들은 관료나 계획가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이었다. 거시적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건축을 더 큰 그림에서 실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험에 대한 이론과 비평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 전후 미국의 도시건축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일관되게 글로 옮긴 두 사람은 오늘 한국의 신도시를 위해서 재론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은 "미국도시의 죽음과 삶"이란 제하로 미국의 도시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한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이다. 제이콥스는 교외로 뻗어 나가는 미국의 도시를 사회계층이 공간으로 분리되는 반사회적 현상으로 진단했다. 제이콥스의 비판은 궁극적으로 근대 도시계획의 대부인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와 건축가 르코르뷔지에의 가부장적 도시관을 향한 것이었다. 제이콥스는 주민의 유대가 끈끈이 지탱되고 있는 대도시의 주거지역을 관료나 도시계획가들은 사라져야 할 불량한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주거와



일산역에 내리면 자투리땅을 일구어 여러 가지 채소가 심겨진 밭을 지나는 길이 펼쳐진다.



자동차에서 보는 도시의 거리는 어디를 가나 상업화된 앞의 얼굴이다. 한편으로 뒤돌아 있지 않으면 상업의 내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커다란 유리창이다.

상업이 복합적으로 얹혀 있던 도시구조가 슈퍼블록과 조닝 때문에 건조한 공간으로 바뀌어 가는 것도 관찰했다. 제이콥스는 이러한 도시의 공적공간의 죽음을 부채질하는 중심에는 자동차가 있다고 보았다. 제이콥스의 글은 19세기 도시에 대한 회고적 낭만, 자본주의 도시에서 부동산의 위력을 간과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도시관에 대한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이콥스가 주장하는 '밀도 높은 도시(dense city)'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반기술, 혹은 비시대적 발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생각이다.

제이콥스와 다른 관점에서 있었던 사람이 제이비 잭슨(J.B. Jackson)이다. 잭슨 역시 건축물로 에워싸인 광장이나 길이 더 이상 미국의 공적공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같은 언어, 가치관, 삶의 방식을 가지고 모여 살았던 과거의 도시에서 광장과 길은 집합적 인간 자체였으나 잭슨이 보기에 미국은 더 이상 균질한 사회가 아니었다. 잭슨에게 이상적 커뮤니티는 도시라는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개인이 만나는 교외이며 커뮤니티의 의미는 동질 의식이나 결속이 아니라 다양함이었다. 그리고 도시로부터의 해방, 자연과의 만남, 다양함의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동차이다. 잭슨의 관점에서 자동차로 갈 수 있는 모든 곳은 새로운 의미에서의 공적공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대지를 가르는 길과 자동차, 군데군데의 트레일러, 주유소와 모텔, 그 속의 나른 한 사람들의 모습. 잭슨의 글은 미국의 도시와 자연경관을 가장 잘 표현한 에드워드 하퍼(Edward Hopper)의 그림과 같은 서정성을 지닌다. 그러나 잭슨의 글은 기술결정론적 관점, 미국적 경험주의, 사회적 비판결여로 미국 대중문화를 옹호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제이콥스와 잭슨의 주장이 일산신도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세계에 공존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도시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원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픈 욕망과 도시라는 중심에 여전히 기대고 싶은 욕망. 스스로 자동차 매연을 뿜어대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지 못하는 정부를 탓하는 심리. 경기도에 살면서 다른 근교농촌 부락과는 다르게 대접받는 서울의 특별구로 남고자하는 이중심리. 도시안구밀도가 전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곳에서 살면서 공존의 법칙보다는 광활한 대지에 세워진 미국의 개인주의를 꿈꾸는 심리. 건축계에서는 최근 자연과 건축을 기술적 관점에서 접목하려는 연구와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건축물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환경친화적이라고 할지라도 건축을 담는 도시에 대한 전제가 이와 모순된다면 무의미한 것이다. 로스엔젤리스의 외곽에는 자연과 그림처럼 어우러진 전원교외들이 숨막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부러움을 준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이 일터로 이동하기 위해 소비하는 에너지가 천문학적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국의 도시모델은 결코 로스엔젤리스가 아니다. 나는 일산신도시와 일산신도시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미니신도시를 계획했던 관료와 계획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자유로를 따라 생겨나고 있는 헤이리밸리와 출판문화단지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에게 한 번쯤은 서울역에서 떠나는 경의선 열차를 권하고 싶다. 차창을 통해서 방치되고 일그러진 도시의 공공성을 피부로 느끼고 공존의 법칙을 찾아내는 도시건축의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신도시 남북을 관통하는 보행자로, 전철 3호선 주엽역 쪽은 붐비지만 경의선 일산역 쪽은 이용하는 사람 없어 늘 한산한 편이다.



아직까지 일산의 단독주택지는 우리도시의 보편적 삶을 담고 있지 않는 타지의 공간으로 느껴진다.

신도시의 건축과 도시문화

Urban Culture and Architecture in Newtown

일 시 / 2000년 2월1일 14시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

참석자 / 권용우(성신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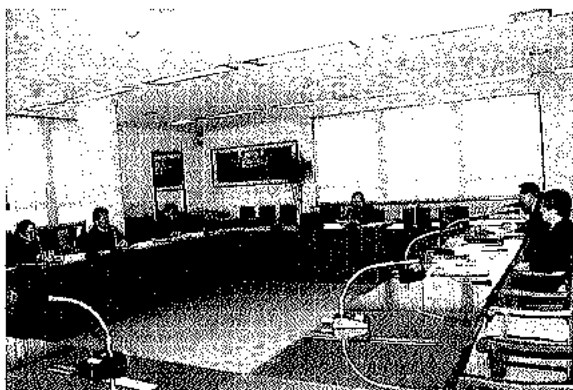
김성홍(서울시립대 교수)

손기찬(동이건축 소장)

전진삼(건축발전연구소 소장)

최승원(양가주망건축 소장)

동정근(안하대 교수, 편집디렉터)



좌담광경

동정근 __ 오늘 좌담회는 지역건축 탐방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60년대부터 건설한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 6대 신도시를 좌담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신도시라는 곳은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도시설계 기법도 새로운 방법으로 급조된 도시이지만 나름대로 새로운 도시생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라는 특성상 과연 지역성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근원에 의해서 지역성이 형성되는가? 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홍 __ 우리나라 신도시의 지역성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장소하고 무관하게 만들어진 도시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대 신도시 중 중동은 예외이겠지만 일산, 분당은 사람, 장소와 무관하게 이입된 도시라는 점에서 다른 신도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도시 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도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새로운 문화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를 탈출하여 자연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도시민의 욕망과 과거에는 꿈꿀 수 없었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주거, 소비 등이 이것입니다. 1920년대 이전 미국과 유럽의 도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80년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손기찬 __ 중동은 예외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중동을 보면 실제 부천이라는 기존도시에서 배후주거도시로써 조성을 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시청사라는 부천 중심을 중동 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여타 시설들을 주변에 안배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의 중심이 형식적으로는 주변인 중동에 옮겨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층들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가 하면 이렇다할 시설들이 거의없는 부천역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중심시설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역앞에 청소년들이 몰려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신도시의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도시계획상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정근 __ 신도시에서 지역성은 김교수님과 손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형성의 내재된 문화이데올로기가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 본다면 일산이나 분당 그리고 산본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동이

나 평촌은 기존시가지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당이나 일산과는 다른 인문환경과의 관계에서 지역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원___평촌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면서 주변과 접촉을 해보니 지역성이라든가 역사성 등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평촌이 만들어진 것이 7년됐는데 13년, 15년 후면 철거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인 10년정도 되면 수명연장 및 현재 부족한 지역성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역사성 등을 첨부해서 리노베이션을 통해 다시 손질해서 써야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신도시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계되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공기가 짧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재점검해서 도시설계를 다시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지역성을 부여하는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권용우___신도시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상황에 맞도록 꼼꼼히 따져가면서 신도시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먼저 비판적인 화두를 던집니다. 도시를 제 아무리 빨리 만들더라도 최소한 10년 내지 15년 이상이 걸린다는 사실은 교과서적인 얘깁니다. 저는 89년에 신도시를 건설할 때부터 “4, 5년 내에 미구잡이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게하는 것이 신도시가 아니다, 기간시설을 다 갖추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놓은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재의 신도시는 문화를 논의하기 이전단계라고 봅니다.

신도시를 제나름대로 규정하자면 집단적 교외화(mass suburbanization)에 의한 대규모 거주교외 지역(residential suburbs)에 다른아닌 지역이라고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경우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여 서울과 연계되어 있는 교외지역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자체를 논의하기 보다는 중심도시인 서울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문화성을 논의해야 하는 지역문화의 초보 단계라고 진단합니다.

동정근___도시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보면 생활과 물리적인 환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지금 신도시는 물리적인 환경이 먼저 지어진 다음에 그곳에 생활을 담는,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생활은 담고 있을지라도 도시생활은 아직 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앞으로 조금씩 도시생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천의 경우는 개발이 시행되어 15년 가까이 됐는데, 서울 근교에서는 환경이 가장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고, 또한 시민들이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은 어떻게 보면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신도시 문화생성의 긍정적인 면도 찾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용우___제가 지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답사를 많이 다니게 됩니다. 영국 북부지역에 위치한 밀턴 케인즈(Milton Keynes)를 보고 느낀 것은 ‘과연 1층짜리 건물로 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지구상에서도 가능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밀턴케인즈는 67년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인구규모가 17만 여명에 불과합니다. 모든 건물의 층고를 1, 2층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런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족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천의 경우는 5대신도시와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천은 상당한 녹지공간이 있고, 층고도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으며, 중심도시인 서울과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하부구조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89년 이후에 지어진 다른 신도시와는 분리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진삼___신도시 그곳에 지역성이 있는가란 문제는 도시공간의 환경이라는 것이 일단 개발을 통해서 설정이 된 상태에서 지역성을 찾는 것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성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모든 문화영역에서 균형잡힌 노력의 결실로 탄생된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신도시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겠지만,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환상이 아니라 그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점에서의 지역성 논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도시라는 도시적 관점에서의 지역성 논의는 과천을 제외시키지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80년대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신도시에서는 아직은 지역성이라는 논의를 던져놓고 그 답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성홍 지역성에 관한 문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등장하는 화두가 아닌가 합니다. 지방의 모든 중소도시, 심지어는 제주도를 이야기할 때도 지역성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지역성을 다른 장소가 가지지 못한 그 장소로부터 자생하는 특성으로 정의한다면 신도시의 지역성은 없다고 할 수 있



겠지요. 권교수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의 신 도시는 짧은 시간에 관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개발과 입주에 관한 평가나 비판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점에서 한국의 신 도시는 독특한 지역성을 형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가 뚜렷한 하나의 인클레이브(enclave)에서 독자적인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적인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일산과 고양시와의 갈등, 분당과 성남시와의 갈등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신도시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신도시와 다른 도시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최근 신도시 주변에는 미니신도시들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붙어나고 있고 예상 입주인원이 2백만명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2백만의 사람은 매일 서울을 향해 가솔린을 뿜어대며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패러다임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도시가 서울이라는 중심에 기대고 있는 한 그 자장에 놓인 다른 도시와의 관계는 필연적인 문제입니다. 이점에서 최근 시민단체가 주관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은 왜곡된 지역주의 운동입니다. 신도시만의 독특함을 만들어 가는 과제 못지 않게 공존의 논리를 찾는 광역적 지역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정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데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요? 피상적으로는 같은 시기에 같은 목

적으로 같은 곳에서 시행하였지만,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각도 각 신도시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5대 신도시에서 산으로 둘러 싸여있는 분당이나 산본과 평지에 있는 일산이 서로 다른 물리적 환경을 표출하고 있고, 중동과 평촌에서는 3개 도시와 또 다른 도시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민들의 성향이 다르고, 자연이나 인문 등 주변환경에 의해서 도시와 건축이 생겨나고, 그 환경에 생활이 담겨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시 생활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서로 구별될 수 있는 도시 문화지형의 근원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신도시개발의 물리적인 완성도는 60~70%정도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도시 발전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손기찬 저는 신도시에서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중동을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편으로 권교수님께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도시현실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신도시를 보면서 지역성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지역성을 논할 만큼 우리의 삶이 다양하기를 스스로에게 되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에서 관의 정치행태라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다양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들이 그런 행태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를들면 관공서의 위치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아니면 도시전체가 조정기능이 전혀 없이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엉뚱하게 놓여진다는지, 물 같은 경우도 지역도시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해야되는데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서로 연결이 안된다든지 등은 우리의 현재의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 경향이 뭐냐고 다른 데서 해답을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신도시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부정적인 시행착오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성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분당은 강남의 주민들이 주로 이 전해서 강남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성남의 구시가지 시민들과는 처음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당이 분리돼야 하지 않느냐는 이

아기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시청을 중심지역으로 균형을 맞추어 보자는 명제하에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분당은 독자적으로 고급문화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평촌도 안양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갈등이 있습니다. 벌말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지만 그 보상비를 사용할 줄을 몰라 실패를 하고 사람들이 거지가 되다시피하여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신도시건설이나 재개발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또 주변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평촌의 건축형태가 획일적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 건설촉진법이라든지 건축법이 있는 한은 전 도시가 비슷하게 계속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권용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흥미있습니다. 가구주의 나이는 25세에서 45세가 주를 이루고, 자녀들은 중학교 이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한 노부부들도 상당수 거주합니다. 전형적인 교외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수도권 5대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이라는 중심도시안에 만들어진 집단주거지역(new town in town)인, 상계, 목동, 잠실 등에 사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도시는 신도시라고 불리우기 보다는 중심도시 거주지의 연장선상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건설하더라도 성냥갑처럼 만들지 말고 지형과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조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의 달인들이나 벌말같은 경우 평평하게 땅을 고르고 천편일률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도시의 문화공간은 삭막함과 딱딱함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동도 마찬가지구요. 물론 도시계획하기에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냥갑같은 집이 끝없이 널려 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주거환경이 다 똑같다 보니 그곳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것이지

요. 서울에 살면서 집만 신도시에 갖다 놓은 형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서 쇼핑을 하거나, 옛날의 도시같이 걸어 가서 쇼핑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주거문화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진삼 19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신도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도시라는 공간구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역을 던져주므로 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시화라고 하는 산경험내지는 도시라는 환상을 실제화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의 도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비판적인 의사가 몰리는 부분이 그것이 차지하는 대단위의 물량적인, 이를테면 매머니즘(Mammonism)에 의해서 도시라고 하는 거대 공간구조가 어반휴머니즘(Urban Humanism)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꾸만 극복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몰아부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쪽에서 어떤 방향성을 찾아내는 데 향후 관심을 두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신도시는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최승원 앞으로 만약에 신도시를 수리한다면 외국회사한테 용역을 주어서 수리를 하는 예를 들면 미국회사는 미국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분당을 수리하게 하고, 평촌은 일본회사가 일본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수리를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건축학회지를 보니까 대만에서는 지진에 적응하는 법으로 미국, 중국, 대만법을 혼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의 획일적인 법테두리에서는 어디에 손을 대더라도 지역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동을 답사하고 나서 느낀 것은 중동은 그래도 신도시를 만든 후에 문화도시로 가꾸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평촌과 중동의 중간에 있는 중앙공원을 가보니까 중동이 조각 하나라도 잘 놓여있는 등 노력하는 흔적만큼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의지력을 가지고 도시를 개혁한다면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어떤 것을 개조하고 개혁한다고 하면 수백, 수천억의 예산이 있어야만 일이 되는 것처럼

진행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자전거타기운동은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보고 임시도로를 만들어보면서 운동을 떠나가야지, 예산 등의 문제만으로 진행한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타이페이나 호지민시를 보면 차도옆을 자전거도로로 병용하면서 개발해 나갑니다. 우리도 도시의 구조를 자동차 위주의 도시라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인근 도시에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산은 꽃이나 호수를 가지고 발전하는 도시라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상당히 큰 호수와 꽃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들이 망가뜨린 것을 오히려 자생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노력하는 흔적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촌이나 산본이라는 지명은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아는데 평촌의 경우 별말이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굳이 문화의 연속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산본은 글자에서 보아듯이 삼태기 모양으로 주변이 산으로 싸여 있습니다. 그런 자연환경 때문에 주민들이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평촌의 경우는 지형에 따라서 시골의 분위기를 가지면서 자생적인 생활문화를 엮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등정근 현재 신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적인 문제는 도시계획분야에서 많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도시내적인 문제와 도시외적인 문제, 즉 도시와 주변과의 관계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도시에 있어서 정체성의 실체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도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새로운 문화지형을 만든다면 어떠한 실천적 방법들이 있을까요?

권용우 분당을 위시한 5개 신도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살려서 시민들의 놀이문화, 삶의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미네아폴리스-세인트 폴(Minneapolis-St. Paul)에 소재한 미네소타(Minnesota) 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지냈었습니다. 쌍둥이 도시(Twin Cities)라고도 불리우는 미네아폴리스-세인트 폴의 커뮤니티 센터에 가보면 1년 내내 중심도

시와 교외지역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미네소타에는 캐나다 북부의 빙하가 내려와서 만들어 놓은 자연호수가 1만여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네소타 주민들이 호수를 너무 좋아해서 인공적으로 2천여개의 호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주의 별칭이 1만 2천개 호수의 주(State of 12,000 lakes)로 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민들의 호수와 자연 사랑은 지극합니다. 주말이 되면 시민들이 호수 주변에 모여 팸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의 연주를 즐기는가 하면, 각종 전시회와 퍼포먼스를 만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문화 프로그램이 관공서나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어디어디에 가서 논다든지, 가족끼리 음악회에 가서 넓은 초원을 배경으로 연주를 듣는다든지 하는 우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즐깁니다. 특히 호수를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시로 카운티(county)에서 와 이상유무를 점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럽더군요. 이에 비해 수도권 5대 신도시는 문화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일부분이긴 하지만 분당과 같이 지형지물을 살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창출의 장소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중심도시에 비해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또 하나는 인공적으로 도시 근교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최고인가 라는 내용을 분석한 재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말에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든지, 놀이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집과 동네에서도 맘껏 즐길 수 있는 인터넷 문화가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면, 수도권 신도시 안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관람하는 인구가 6.2%밖에 안됩니다. 또 연극, 영화 등을 관람하는 인구는 12.1%에 불과합니다. 그 외는 서울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밤 늦게 총알택시를 타고 들어오는 문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이버 문화공간을 대규모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시와 시민단체, 관련있는 벤처기업들과 연계해서 분당이나 일산같은 신도시에 대규모 사이버 문화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그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문화패

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거의 상상을 못하고 있지만 사이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면 신도시가 서울이나 기존도시보다 훨씬더 문화창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도시에서 자연환경을 살리는 문화, 또 인공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문화, 이 두가지를 만들어 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홍 __오늘 주제가 신도시의 문화를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군요. 저는 객관적 데이터로 본다면 신도시의 주거환경은 서울의 대부분의 주거지역이나 다른 외곽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을 올리는 견인차가 강남, 분당, 일산의 집값입니다. 신도시가 자족적인 도시 단위가 아닌 이상 거시적 입장에서 신도시 문제의 핵심은 신도시로 인해서 야기되는 공간의 불평등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일산의 집값이 올라가면 신갈, 용인, 파주, 구일산의 지가가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갈과 용인, 파주, 구일산의 개발을 분당이나 일산 사람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교외도시는 자연과 도심의 문화를 동시에 향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 도시의 향유가 과연 서울에서도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일산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이 뿌리는 자동차의 매연은 그 주변 사람에게는 자연을 아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신도시의 문화 소프트웨어 개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교외처럼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집과 일터를 오가는 것이 합당한 도시패러다임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본 오사카의 경우 환상의 철도가 있는데 환상에 접근할 때까지는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일단 환상안에 들어오면 다른 대중 교통으로 이동합니다. 오사카는 서울의 인구밀도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곳입니다. 서울은 도시인구밀도로 보면 세계 1위일 것입니다. 신도시로 인하여 확산되는 우리의 도시패러다임은 문제가 있습니다.

며칠 전 방송에는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 서울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축구경기에 적합한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매연은 대기오염의 80%를 차지합니다. 대기오염은 더 이상 교통공학이나 환경공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문제이자 건축의

문제입니다. 도시 인프라(Infra)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건축과 도시 영역에서 제기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진삼 __지금까지 신도시를 각각의 씨클로 구분해 놓은 상태에서 각각의 지역성, 지역문화를 따지다보니 사실 각각의 도시들이 갖고 있는 지역성이나 지역문화가 나름대로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생각의 답보를 거듭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의 도시문화를 별개로 논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단계의 문화지형탐색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차제에 오늘 논의 대상인 신도시의 지역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하는 문제인식이 중요합니다. 방금 김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의 문제, 점점의 문제 등 도시권역 가장자리에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을 짚지 못하면 얘기가 안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만, 어찌겠습니까 이미 도시는 만 들어져 있고, 그 도시들 나름대로 생존은 해야 하겠고... 그 것을 가능케 하려면 문화적인 마인드로 컨트롤이 되어 그 지역을 살아가는 지역민들이 지역문화를 새롭게 심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도시로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문화나 지역성이 특별하지 않은 지역들을 그 지역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또는 잘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양태를 개발시켜 놓고, 그것들을 환상(環狀)적으로 묶은 아니면 또다른 교통체계를 도입해서 묶든 뭐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부분을 신도시 스스로에게 지꾸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주변도시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원을 하게 하므로써 시스템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__두가지 관점에서 문제점과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 신도시를 보면 도시계획이 다분히 계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이 다른지역과 달라서 이렇다할 자연환경의 배경도 없고 평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도시의 부지성토로 인해 옹적률이 높아야만 사업성이 있다는 논리에 있었다고 봅니다. 중동은 지반이 굉장히 낮아서 다른 신도시중에서 가장 옹적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지의 형상자체가 넓다란 분지가 아니라 길쭉하기 때문에 단지 블록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적기 때문에 어떤 관상의 아파트가 아니라 폭이 좁은 아파

트이기 때문에 시아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어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적률이 높다고 하는가하는 의문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거지역(단독주택지)을 거의 다 없애버렸더라구요. 우리나라 주택법규는 단독주택은 차치하고라도 공동주택의 경우 전부 대단지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자체가 어떤 지역성에 맞게끔 융통성이 있다면 단지가 달리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적률의 전체 계량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연립주택지보다 못한 단독주택지가 일부 있었는데, 그 경우는 인접한 기존 주택지역과 유사한 밀도를 맞추려고 그랬겠지만 조그만 단독주택들을 바짝바짝 붙여놓고 가운데에 오픈스페이스로 소공원이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또다른 우리의 주거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공동주택의 법규에서 벗어나서 저층 공동주택법이 다시 개발이 되서 적용될 수 있으면 또다른 형태의 아파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지역마다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 경사지를 이용하는 것, 지금 현재는 똑같은 계량적인 수치에 의해서 적용하는데 이런 문제는 문화적인 것이 앞서 언급이 됐지만 보다 초기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현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분야는 중앙중심적인 계획이 아닌가 생각하고, 실제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가 부친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아니라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에 의해서 너무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 신도시 만들기 이전에 사회학자나 지리학자 또 문화관계 전문가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참여했다면 서로 다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신도시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떤 형태가 벌어지고 있느냐하면 사실은 미국이나 서울보다 이용률 면에서 본다면 신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중동같은 경우도 역앞 광장이 우리나라 시청사 광장중에서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용하느냐면 유치원생들이 모여 노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없고 가더라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천역앞에는 지저분하고 우중충해도 거기

에 가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돼서 그 지역 주민들 아니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천시 옆에도 전부 공터입니다. 왜 공터냐고 하나까 계량적으로 따졌기 때문에 토지단가가 높아야만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가를 내놓으니까 분양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백화점이 없어서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장사가 안되는 거죠. 옆에 더 좋은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도 안가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똑같은 서울지향적인 형태의 백화점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백화점이라면 서울로 가지, 부천에 있는 백화점에 갈 이유가 없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의 21세기초의 우리의 도시적 삶의 행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잘못하면 또 하나의 복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한다면 틀림없이 실패하리라 생각합니다.

동정근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도시 건설은 정치논리에 의해서 조성이 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 과정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습니다. 저도 신도시의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계획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도시형성이 되고있습니다. 땅

값은 비싸고, 산업은 형성돼 있지 않고, 인구는 증가하는 과정에서, 현시점에서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오피스텔과 같이 수익성 위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도시기능이 엉뚱한 쪽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특성을 갖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문화행사를 수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것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문화는 시민 중심의 참여와 주도로써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신도시마다 나름대로 정착된 행사도 있고,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도시생활을 새롭게 구축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용우 _____ 손소장님 말씀중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인 하워드(Howard)가 만들기 시작하여 후세에 완성한 레치워스(Letchworth)와 웰윈 가든 시티(Welwyn Garden City)가 있지 않습니까. 97년에 레치워스에 가서 역사(驛舍)에 내려 보니까 '세계최초의 전원도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란 뜻말이 있는데, 정말로 시골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완전한 도시였습니다. 숲이 있고 녹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가 하면, 집이 있고, 그 사이에 조그만 상가가 있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다니지 못하게 곳곳에 블록킹을 해놓고 걸었다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웰윈 가든 시티도 보면 오른쪽은 완전히 주거지역으로, 왼쪽은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생산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자체는 현대적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역앞 광장도 오픈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은데 그곳에 분수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보전용지역이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는 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 기차타고 나가기 전까지는 차를 이용해서 세워놓고 사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쇼핑은 역사에서 해결하는 친환경적 마인드가 도시에 묻어 있거든요.

동교수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의 문화창출이 정치논리, 경제논리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도시는 이미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신도시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시민중심의 공간찾기 권리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최근에 각 건물에 법으로 두게 되어 있는 공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곳이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작년 한 해 동안에 조사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서울 시내에 소재한 한 업체가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아 경실련에서 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에 대한 인식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면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는 기존도시에서는 도시에 관한 시민운동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도시에서는 아직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시민문화찾기 운동을 전개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99년에 국토연구원과 건교부 그리고 몇 개의 시민단체가 세종문화회관과 프레스센터에서 펼친 민·

官·學 주관의 새로운 국토도시관리방안모색의 대규모 세미나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 세미나에서 신도시의 문화창출에 관한 귀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을 아예 실천운동으로 밀어 나가보자고 해서 민·관·학이 망라된 새국토협의체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담론수준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도시문화 실천운동은 신도시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손기찬 _____ 그것은 단순히 시민운동의 구호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서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중동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면서도 말미에 제가 한 재구축 구상스케치를 실었는데, 그곳에는 보행자 물도 있고 광장도 다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예

를들어 시청앞 광장에는 많은 돈을 들여 돌을 다 깔아 놓았더라구요. 그것은 사실 관으로써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한 페이빙(Paving)을 한 것이죠. 시민들이 걸어 들어가서 그 앞에서 감히 배드민턴을 칠 수 있다는 발상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걷어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중동역에서 내려서 시청까지 걸어갈려면 너무 멀고, 불편해서도 걸어가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적으로 물을 두어야 하고, 광장을 두어야 하고, 공원을 몇% 두어야 하는 것 등은 계획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엉터리로 되어있지는 않고, 계량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물이나 물론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겠지만 정말 걸어서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과 같이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주변의 상가들이 번창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만 리노베이션하고 있는데 도시도 그냥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의 프로그램 과제가 되어 영역이 돼서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나하나 도시자체를 과감하게 리노베이션 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좋은 도시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형태를 분석한다든지, 또 그런 것을 도시사회심리학 차원에서 분석해서 적용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승원 ____방금 말씀하신 도시의 리노베이션 문제에 대해서 평촌의 예를 들면, 평촌에는 그린플랜이 없어서 현재 조경계획을 통해 용역을 마친상태이고, 거기에 맞추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수반됩니다. 또 중앙공원이 잡지상에는 아주 잘 쓰이고 있다고 소개되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아파트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있어 방향을 돌리는 작업, 중앙의 조각 배치를 다시 하는 작업 등 전반적으로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거리의 나무도 지질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어놓아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사를 해서 시민 일인당 일식수 운동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 7층에 벤처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미술관이나 사이버대규모 문화공간을 벤처와 접목시키는 방법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교통문제가 베드타운과 관련이 있는데 전철주변에 아파트는 없고, 관가나 상가, 오피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에서 벤처사업을 하든, 개인사업을 하든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에겐 재산세를 감해주면 베드타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해서 여러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있는 황량한 환경에서 대규모 벤처문화와 관련해서 꽃이 핀다면 교통문제도 해결하면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중동, 산본, 평촌은 인천공항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천세대에 외국인 민박촌을 형성하여 외국인 민박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신도시에는 대규모 관광호텔은 없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민박준비를 해서 연결해 놓으면 경제구조에 도움을 주면서 주변도시가 관광으로 번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평촌지역에서 연구한 것이 우리의 신도시가 문화벨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환고속도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위 서울외곽도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벨트가 자생적으로 연결이 되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하면 벤처도시, 안양은 건축도시 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평촌을 건축도시로 만드는 것을 대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축박물관이라든가 건축미술관 등을 현재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발췌하고 그것을 보강하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씨가 뿌려집니다. 문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도시들이 문화로 연결됐을 때 주변도시들끼리 또 주민들끼리 서로 왕래가 오가면서

정체성있는 도시로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진삼 ____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중에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라는 대단위 도시가 지어지면서 문화라는 것도 대규모 장치만이 문화로 융해되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체로 소비지향적 문화를 양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공한 도시의 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거국적이거나 인터넷서널 스케일을 통하지 않으면 성공한 문화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자연발생적인 도시가 대단위 규모의 도시는 아니지만 거기서 생산적인 구조의 문화가 그동안 양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대규모 단지화 시켜주는 그런 도시화를 하면서 소비문화적 구조의 문화만을 섭취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위한 문화적 장치를 갖다 도시에 자꾸만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점조직의 문화, 이를테면 일반인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문화라고 할 정도의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점조직망이 신도시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신도시 자체에서 발생할 수 없다면 신도시주변에서부터 출발해서 고집어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를 통해서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에 의한 도시문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잠재적인 도시문화 이벤트가 있을 수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신도시가 찾아가야 할 바람직한 문화지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도시문화 프로그램은 없는 게 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홍 ____앞으로의 건축도시의 확두는 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절대절명의 문제이지만 현재 우리가 끌고 가는 도시구조는 고비용의 반환경 도시구조입니다. 지금 서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도시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작은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밀도가 높은 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기존의 대도시와 그 주변을 어떻게 하면 가장 콤팩트(Compact)하게, 그리고 가장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 유지할 것인지 모색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서울은 LA와 같은 다핵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LA는 다운타운이 있기는 하지만 정

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를 그렇게 크게 가져가더라도 부분이 제 나름대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강남과 강북이 분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심이 강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중심을 어떻게 신도시들과 나누어 가질 것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결국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 점에서 시민단체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작업과 병행하여 도시 안에서 공존의 법칙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산, 분당, 산본의 경우 도로교통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곳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산에서 서울역까지는 기차를 타고 빨리 다르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현재 시골 여행길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분당의 경우도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전철을 갈아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일산과 분당에서 서울역이나 강남으로 15분대에 편안하게 진입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적게 소비할 테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권리보다 모두의 권리를 찾는 것이 시민단체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 주변에는 4대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은 없으리라 봅니다. 지금의 도시구조를 기능하면 어떻게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끌고 갈 것인가가 21세기의 도시문제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정근 _다음은 도시문제를 떠나서 과연 현 상태에서 건축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외국의 신도시들은 도시 계획적인 문제보다는 건축가의 역할이 훨씬 더 컸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분당도 처음에는 주택 전시 단지를 만들어 그것을 어떤 문화정책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었고, 일산도 단독주택단지를 꾸준히 고수하면서 주택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신도시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실천 가능하고 건축적인 문제를 짚는다면...

손기찬 _신도시에서의 건축과의 문제는 도시계획이 지나치게 도시적인 스케일로 처리되어, 거칠게 다루어져 실제 생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도상에서의 작업과 그 결과로 만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사의 역할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건축작업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이 닿을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도시계획에서부터 도시설계기법이 다양하고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 사전에 도시계획가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의 역할이 초기에서부터 담당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능동적인 건축법개정이나 제반여건이 성숙된다는 전제이어야 되겠지요.

최승원 _건축을 하면서 문화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가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로 교통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서로 상의해서 길을 열어주었을 때 건축사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베드타운(Bed Town)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어 민박촌을 만든다보면 인테리어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일이 전혀 없는 아파트촌에서 새로운 일이 창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를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것이 건축사의 소명이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곳이 있을 때 리노베이션(Renovation)하는 아이디어도 내놓는 등 건축사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일거리와 새로운 문화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현재의 불안한 처지나 불경기를 혁파하자는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축사들은 전혀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야 되리라 봅니다. 신도시들은 자생적인 여러 문화활동도 필요하고, 정책적인 문화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 건축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지 않나 보고, 우리 협회도 그런 분야의 연구집행부서를 두어 지방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시대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진삼 코디네이터가 보이지 않는 신도시의 건축문제를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분당같은 경우는 예술가촌을 계획하면서 코디네이터역할이 부여됐던 시범사례가 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인 일산의 경우는 애초에 코디네이터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면서 젊은 건축가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새로운 유형의 주택들이 일산신도시 일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디네이터가 두드러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건축의 문제를 얼마만큼 신도시안에서 고집할 수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실제 한국건축계의 리더십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여러 갈래를 통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칭 한국건축계에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거꾸로 생각하면 부재된 리더십의 배경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의 관점은 신도시에 착안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건축사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착안하는데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최소장님이 말씀하시는 안양이나 평촌의 도시문화프로그램을 건축사가 제안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양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의 그런 활동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중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을까를 건축사가 또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거시적인 규모에서의 도시문제를 다루어 보거나 아니면 실생활의 공간을 다루는 측면에서 건축의 문제만 국한하게 되면 사실상 일반 대중과의 거리 좁히기 보다는 거리 벌리기 역할을 이제까지 해 온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건축으로써만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해서 대사회적인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느냐의 문제가 거론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요즘 10대, 20대의 가수들이 신곡을 하나 발표하면 모든 매스컴에서 아단법석을 떠는데, 유명 건축사가 신작을 발표했다고 하면 어떠한 언론매체도 다루질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돈의 흐름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건축계의 리더십이 존재한다면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건축에 대한 대중성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

에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제되지 않은 신도시에서 건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대체 어떠한 건축물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선배님들께는 참으로 안된 말씀이지만, 결국 신도시 안에서 건축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발생시킨 원인은 건축계의 리더십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홍 신도시에는 건축사사무소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에는 건축사들이 활동 영역이 아니거든요. 신도시에서 전통적 건축설계 행위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것이 허물어지는 시점에 가까워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신도시에 있는 사무소들의 역할은 주로 인접지역을 개발하는 컨설팅입니다. 건축사와 신도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사들이 처한 보편적인 문제로 돌아옵니다. 앞으로 민간섹터(Sector)의 일이 점점 줄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대형건물의 설계는 전문개발회사, 엔지니어링 사무소에 상당 부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돌파구는 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섹터가 주도하는 것도 아닌 제3의 섹터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환경사업들, 예를 들면 한강개발이라든지, 난지도개발 등은 전부 관주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 액수는 우리 건축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건축사들이 얼마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섹터를 창출할 수 있는가에 건축사들의 미래가 달려 있지 않나 합니다.

동정근 '신도시에 건축사는 없다' 라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시문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축적된 삶의 총체이기 때문에 신도시를 끌어갈 주인은 이제는 계획가라기 보다는 주인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도시문제에서도 도시설계의 물리적 기법보다는 도시설계 과정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설계 과정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우 신도시의 천편일률적인 건물을 성냥갑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것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건축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다양성의 문화를 심어주기 바랍니다.

영국의 밀턴 케인스는 진짜 건축물의 보고였습니다. 밀턴 케인스의 곳곳을 돌아 보면서 건축가들의 아이디어와 기량이 이처럼 백화제방(百花齊放)식으로 다채롭게 뿜낼 수 있구나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시카고도 건축물의 보고가 아닙니까. 시카고가 1870년대에 대화제가 난 이후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건축가들에 의해 최고의 건축물 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건축투어가 있을 정도니까요.

앞으로 신도시에는 성냥과 형태의 건축물은 가급적 지양하고 단독주택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건축물을 지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옹골가지보다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다양성의 문화가 꽃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축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건축전문가 집단 혼자서 이러한 다양성의 문화를 만들기 어렵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연대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지금은 더군다나 지자체의 장들을 시민들이 뽑는 시민중심의 시대가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사람을 대표로 만들고, 그 사람 재임기간 동안에 새로운 문화창출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기찬 신도시와 건축사의 역할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 같아 황당하네요. 저는 신도시를 보면서 아파트는 제외하더라도 건축물들이 과연 분당의 건축이 다르고, 일산의 건축물들이 다른지, 물론 깊이 들어가면 그 지역의 건축사가 아닌 이 문제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와 왜 성냥과같은 아파트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도시에서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아니라 다분히 서울을 바라보는 아니면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이 문제 이전에 어떤 건축을 직업할 수 있는 바탕의 문제들이 다양해져야 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다양해져야만, 사실 분당에서 출퇴근하는 사람과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의 방식은 모두 같습니다.

부천영화제를 하나의 예로 든다면 지금은 그 때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화제였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이나 홍보물 등 행사 자체는 세계적 수준인 영화제였지만 그 지역 주민들과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 단순히 소비가 아닌 생산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물산주의에서는 돈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든지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지원은 안해준다고 해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준다면 다시말해서 이익이 된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도시들은 모르지만 새로운 신도시는 전혀 지역성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지역성을 어떤 문화적인 기회로써 창출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적인 영화도시가 아니라 생산적인 영화인들이 그 지역에 가면 아파트에 무슨 혜택을 준다든지, 생산적인 공방들이 들어가면 무조건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행태들이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지 똑같은 생활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당에 있든 일산에 있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의 어떤 한계도 있을 것 같고, 근본적으로 건축만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도 또 다시 획일화시킬 수 있는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시민운동도 중앙중심주의 운동이 아니라 그 지역주의 운동으로 나가므로써 정말 주민들의 생각이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나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그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건축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김성홍 건축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변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획일성은 디자인의 문제 이전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만들어 낸 산물입니다. 그리고 건축사들은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로부터 먼저 돈을 받아서 집을 짓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주택공급 시스템의 결과가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낸 사람조차도 자신의 집이 지어지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주택공급률이 높아지고 부동산이 부의 창출로 이어지는 통념이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문화에 있어서는 청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사들도 기존의 건축영역의 경계를 무너뜨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사들도 공공영

역에서 활동해야 좀 더 넓은 활동영역이 창출되리라 봅니다. 하나의 영역 안에서만 목소리를 높여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진삼 보통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 사회적인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한 미담은 많지 않습니다.

권교수님 말씀 중에는 “저 성남팍만 안지어 났으면 그래도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건축사가 있었을텐데”라는 복선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계셨을 때 건축사라고 하는 포지셔닝(Positioning)이 시민사회에 좀 더 밀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드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대중성을 강화시키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용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89년 경실련을 만들 때 여러 친구들과 함께 경실련을 창립하였습니다. 세월이 훌쩍 흘러 지금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96년에 만들어진 이후 지금은 우리 나라 도시운동의 최대조직으로 발전하여 각종 도시관련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련 전문가만 100여명이 넘습니다. 도시개혁센터에서는 도시정책과 도시문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도시대학을 운영하여 도시운동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평범한 보통시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하시는 사람들이 도시개혁센터에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건축물에만 국한해서 도시를 말씀하시는 것을 거의 못봤습니다. 건축이 포함된 도시, 또 건축이 살아있는 환경, 그리고 거기에 사는 보통 시민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거론하니까 저희 같은 보통시민도 금방 마음에 와 닿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왜 서울시는 출근시간에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터져 나가도록 손을 쓰지 못하는가, 높은 고지대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그곳에 사는 이들이 더러운 환경속에서 살도록 내버려두나, 화성 세랜드

나 인천 호프집같이 도시안전 무방비 상태의 도시행정을 펼쳐도 되는 것인가, 경기도 연천지역같이 세금내고 선량하게 사는 시민들이 비만 오면 영망진창의 수해를 당해도 되는 것인가 등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을 시민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문제는 평범한 한 개인이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도시계획위원이기 때문에 각종 정책 자문회의에서 소리를 높혀 보지만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조그만 조직이라도 만들어서 함께 목적을 높이면 조금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삼청터널을 지나면 지금은 예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삼청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기업체에서 매입해서 기존의 건물을 다 철어버리고 많은 돈을 들여 미국의 비버리힐스처럼 최고급의 빌라형 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 소상히는 몰라도 그곳은 너무나 환경이 좋았습니다. 돌, 소나무는 물론이고, 두 세대의 한옥은 거의 문화재급이라고 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처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 건축물을 철어버리는 것이 진정 서울 시민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우선 자연환경을 살릴 수 있는 건축방법이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전부 똑같은 형태의 천편일률적인 집을 짓지 말고 지형지물을 살려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돌아나 소나무같은 주변환경을 살려가면서 집을 지으면 누가봐도 아름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유주 관련인사에게 ‘이러한 수려한 공간을 개인만이 독점하지 말고 보통시민도 공유할 수 있는 얼마간의 공간을 시민의 쉼터로 배려하여 거울을 만들어 함께 지낼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도심의 건축물에 일정 공간을 시민에게 공여하는 방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곳 소유주 관련인사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군요. 시각자체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공유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사적 소유의 마인드가 더 강한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96년에 이스탄불 세계주거회의(HABITAT II)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보통시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라는 시민중심주의가 이 시대의 중심적 패러다임이라고 믿습니다. 도시에 관한 여러 운동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조직화된 힘으로 또 제도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보통시민들의 마인드가 우리가 도시의 중심이다라는 믿음이 정착되었을 때 도시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조그만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진삼___이제까지 조성된 도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도시만들기의 대상에 국한되어 있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바꿔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두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백일장이라는 것으로 그리기, 글쓰기, 만들기의 행위를 통해서 참가 가족이 살고자 하는 도시에서의 집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또 하나는 최승원소장님도 안양을 대상으로 건축의 루트를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트래킹(Tracking)이라고 해서 각각의 살고있는 도시의 지도를 지역시민들이 직접 밟아 가면서 생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건축이라는 문제 자체를 궁극적으로 건축계 내부에서 웅웅대는 것이 아니라 건축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의 얘기를 수필로 한번 적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려고 출발한 것으로 건축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가자의 경계를 열어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건축백일장을 제외하고는 건축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문화적인 장치로 아직까지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도시를 움직이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대사회적으로 홍보하고 대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가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신도시라는 프로그램하고 직접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시에서 도시민의 지역문화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했을 때는 그 문화자체가 의심스러운 것 이상으로 상응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건축계에서 집단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기찬___시민운동보다 시민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삼척강 재건축의 경우, 그 주체가 만약에 소시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열네채를 짓고자하는

사람이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열네채가 아니라 스물채를 짓고 싶어할 것이라고 봅니다. 건축이 그 정도로 실제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축사의 역할이라 한다면, 신도시에서도 앞으로의 문제가 너무 건축적인 제한된 범위로만 생각하는데, 건축사의 역할 범위를 거창하게 운운하지 않더라도 건축사들만이라도 공동체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주어진 부지안에서만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주한테 영향을 해서 어쨌든간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신도시에서.

그것은 우리의 현재 사회현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의 전체적인 문제로 풀어가는 방법은 개개인이 아니라 신도시의 심의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천편일률적인 행정처리지침이기 때문에 병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건축사나 도시계획가 등을 참여시켜서 심의규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단순히 건축을 작업하는 영역이 아니라 건축사들이 도시문제나 도시맥락 등을 구조로써는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문제나 도시문제를 정말로 고민해봤느냐고 했을 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 문제는 신도시 문제뿐만아니라 충분히 교육돼야 되고 또 자각돼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것이 건축사의 역할이나 또 누구의 잘못이나를 떠나서 공동체적으로 결국은 모여서 산다고 생각한다면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면서 자전거도로를 났으니까 도시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갈 것인지, 가면 그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나서 자전거도로를 내야 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자전거도로를 내줬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니신도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관심사를 모아야 될 것입니다.

동정근___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원주민을 미국의 인디언 원주민 마을같이 수ungs 형태로 밀어내고 새로 조성하는 신도시 개발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수님께서 미니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현재 미니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권용우 — 미니신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용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을 도시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없이 개발을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5대신도시는 그래도 설계자의 마인드에 친환경적 요소가 있었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결과 용적률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용인은 다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느낌은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건축물이나 신도시가 들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잘못 건설해 놓으면 번복할 수도 없고, 리노베이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점경지역법도 그렇습니다. 점경지역법이 발효되면 앞으로는 강원도 철원 뿐만 아니라 155마일 휴전선 전체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운동도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린벨트가 완전히 해제됐고, 거기서 실제 작업하는 것은 건축을 하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저는 그런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기전에 처음부터 문제제기를 시민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벨트, 점경지역, 신도시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같이 해서 계획없이 개발하지 말자, 또 일단 개발이 시작됐으면 건축사들이 해야할 일, 도시계획가가 해야할 일이 이런 것이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참여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라는 것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되는 것은 '조그만 지역에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홍 — 4대 신도시에 비해서 미니신도시는 추악한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대 신도시는 적어도 정부가 직접 주도를 했고 감시기구들도 많았는데, 미니신도시들은 개발업자들의 입김이 강한 반면 지방정부는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여 미니 신도시의 모습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미니 신도시의 문제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에서 중소도시의 문제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은 문제도 많지만 자본과 기술이 있고, 의식

도 살아있는 곳인데, 지방중소도시와 소음은 자본, 기술, 의식이 결여된 사각지대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법이 공공성보다 개인의 이익에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공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사의 미래 역시 이러한 갈등과 공생 구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최승원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전부 내 탓이다라고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건축교육을 보면 사실 기능공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가지 교육만 시켜서 배출하기 때문에 주변을 볼 줄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만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선비적인 교육이어서 그림도 알고 환경도 알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이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아직도 재벌의 힘이 개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철학을 교육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이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세워야 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축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교육을 철학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시민한테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옥 보존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옥을 보호하고 수목을 보호하는 기본 정신은 그것이 성공했을 때 그 정신을 미니신도시에 연결했을 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돌이나 나무들이 건축과 인간과 동격이라는 공생관계라는 의식이 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경제회복이라는 것 때문에 용인지역에 아파트붐이 일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분야별로 서로 연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좀 더 폭을 넓혀서 과거의 선비적인 교육과 현대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건축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정근 — 장시간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문제는 21세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도시문화지형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에 형성되고있는 신도시문화에 대한 관심은 신도시를 우리 삶의 터전으로 받아 들이고, 또한 더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데 교훈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좌담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기술부분을 퇴출시켜 건축설계사가 되어야 하나 Does the Design Field of Architecture Need to Expel the Technological Aspects?

김용철 / 반중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ng-Cheol

2,000년 1월 14일에 있었던 '건축교육 및 건축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청회'에 참석하여 오후 내내 발표내용을 들었다. 1차때와 마찬가지로, 'UIA표준권고안'에 따른다기보다는 UIA의 막후 실력자인 '미국'의 제도를 직수입해야한다는 쪽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50여개주의 광대한 미국의 건축관련 제도나 관습을 속속들이 아는 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미국은 전세계가 시장이 되므로 특출한 영역의 전문가가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보다 훨씬 열려있다는 생각은 해봤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미국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반박할 수는 없었다.

이 '미국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주제발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부분인데, 특히 중국은 이미 5년전에, 그것도 WTO에도 가입하기 전에 '미국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에 중국은 건축사시험도 영어로 보기로 결정했다고 전달하면서, 우리 한국건축계의 자성을 요구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질 정도였다. 더 이상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나 국수주의적인 발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역시 잊지 않았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도,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주장을 곁들이면, 세금이나 돈에 관한 경제통제만 빼고, 그 지역의 관습이나 문화, 종교는 인정할 때 성립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도 면제해 줄 정도이다.

어쨌든 필자는 이 '대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WTO의 표준권고안은 '건축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 '건축사의 기본요건'을 재정립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건축사가 영업을 하는 방침'을 정하라는 것인데, 의외로 명확하다. 그것에 따라 건축교육과정을 만들라고 되어 있다. 그것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상호인증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한국인들의 국제협약 해석방법과 대외관계 대처방법을 엿볼 수 있기도 하는데, 굴욕적인 일본과의 어협협상을 건축계가 비난하기가 낯뜨거울 정도이다.

하기야 '사형제도의 폐지'라는 의제의 국제회의에서도 찬반 어느 쪽에도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유일하게 미국과 같이 슬그머니 반대표를 제출하는, 어떻게 보면 신중할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쓸개 없는(뚜렷한 주장이 없는) 나라인 것이다. 그 외교관들의 자량은 찬반이 뚜렷한 외국인들에게서 득표작전의 대상으로, 극진히 대

접받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국내외의 여론이 무서워서라도, 사형제도에 대해 한국사회의 표준적인 철학을 정리하기에는 대법원장이라도 정말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 똑같은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 사회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역사와 관습을 달리해 와, 정서가 다른 이웃나라의 논리를 참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납득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UIA표준권고안을 충실히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논리적 배경을 정비하고, 우리 건축실정에 맞는 '비전'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질문이, 혹은 많은 의견이, 혹은 많은 난제가 예상되어도,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지 않는다.'로 답변되고, '이미 대세는 (미국의 의도대로) 기울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뼈를 깎는 각오로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비장한 발표자들의 연설을 들으면서, 필자는 '손가락이 베이는 것'조차도 허망한 이유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는 기분이 들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건축철학, 건축에 관련된 관습, 제도에 대해 '우리의 주장'을 가질 수는 없는가? 그것도 아주 쉽고 명확하게 말이다.

사실상 UIA표준권고안은 건축인이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물론 QBS부분은 너무나 지루하여 자세히 읽지는 못하였지만, 그저 그런, 좋은 방법들이 '이상'에 가깝게 서술되어 있을 것이라고 인정만 한다면, 시골뜨기 건축사의 눈, 특히 외국에서 공부한번 안 해본 건축사임에도 '개인적 건축관'에 전혀 거슬림이 없는 내용들이었다.

UIA표준권고안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첫째, 건축사는 '건축사의 기본요건'이라는 항목에서 건축에 관한, 그리고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 거기에 미래에 나타날 것들에 대하여도 '건축사'는 통달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기간이 대학5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아무리 우수한 교육을 시행하더라도,

건축사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축주가 실제로 있고, 바로 지어질 건축물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받는' 그런 설계를 해보지 않으면 건축 교육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UIA의 건축사 교육에 대한 기본 바탕이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실무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학교에서의 설계수업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최대한으로 추출하거나 훈련시키기 위해, '가상 건축주'는 돈을 무한정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의 견해를 존경하고, 구조의 대가, 시공의 달인, 설비의 석학, 설득이 가능한 공무원, 교통분석의 천재 등등이 건축사를 위해 아낌없는 봉사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외에는 완전에 가까운 설계환경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밀림과 같은 실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키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발표자는 인턴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수련생이 그 Project를 정말 참여했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시작된 후에 참여했느냐, 끝나기 전에 사표냈느냐라는 성실한 기록 외에는 대안이 필요 없는 것이었다. 요새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가 근무하는 동안의 소속회사 Project를 모두다 인정해주는 관행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 있고, 설사 현재대로라도 어느나라 사람이 비싼 변호사비 들여며 이것을 파헤치겠는가?

셋째, 건물의 설계는 현지 건축사가 현지의 설계환경, 즉 법령, 환경, 사회, 문화 및 유산 등에 관한 것에 제일 익숙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건축사는 반드시 현지 건축사와 협업하도록 되어 있다. 이 지역주의에 대한 견해는 1999년 제20차 UIA 북경대회에서 중국측 부회장의 기조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건축사가 설계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히 국제적으로 설계영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매(Procurement)라는 항목과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항목에서 다뤄지고 있다. 당연히 건축사의 윤리나 사회적인 사명감 등이 곁들여 거론되는데, 국제적으로 건축사들끼리 서로의 능력을 (발표자들의 견해는 '미국적인') 객관 속에서 검증, 비교하지는 것이다. 특히 친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에서는 제도화하기가 골치아픈 '인터뷰-면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두드러진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증원'의 설립이나 그 업무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하는 발표자도 있었는데, 실상은 그렇게 겁나는 존재로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증원의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나중에는 인증대상자들에게 여

러 가지 편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관청발주 설계'에 PQ(Pre-Qualification/사전심사제도)에 의한 용역업자 선정방법이 우리 나라에서 선보인지 오래되었다. 이것이 바로 최종낙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그 중에서 선정된 5~7개 이상의 업체 중에서 15C4의 확률에 의한 제비뽑기나 다시 현상설계를 거쳐야 한다. 우리는 그 기준이 승복할 수 없는 항목에서도 0.01까지 점수화되고, 탁상행정의 시행착오를 개선하려는 노력인지 누군가의 로비에 의해서인지, 수시로 바뀌는 PQ기준에도 꽤나 익숙해져 있다. 아무리 미국에서 건너왔다지만, 이 QBS에 대한 대처는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단지 한국식으로 운영하다가 국제재판에 고소를 당하는 발주관청이 생겨나,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경우는 왕왕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설계사무소 역시, 변호사비용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며,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설계용역비는 그렇게까지 투쟁대상이 아니다.

이 '미국식 객관'이라는 것은 자기나라나, 자기네 동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익명성의 사회에서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얼굴도 모르고 속마음도 모르는 전문가에게 맡길 때의 Client가 갖는 속성, 그 대상이 의사이건, 변호사이건, 회계사이건,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첫대면'마저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사 역시 외국인일 때, Stranger로서의 거부감을 이미 UIA는 간파한 것이다. 당연히 QBS를 다룬 내용은 UIA표준권고안에서 1/4정도씩이나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애매하고 지루하게 서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논의로 각 나라의 건축사협회는 시간을 벌 것이다. 그러므로 건축사는 직업윤리나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설계는 가격입찰이 아니라 가능한 요율체계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서술되어 있다. 꼭 UIA가 아니라도 너무나 당연한 권고사항이다.

최근에 한국은 저렴하고 질 좋은 설계를 찾아야 한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로 건축사보수요율 규정이 없어진 것을 UIA는 모를 것이다.

구매와 QBS항목, 그 이면에서 '민간발주 건축설계'는 UIA표준권고안에서 그렇게 관심끄는 대상이 아니다. UIA 표준권고안이 관심끄는 대상은 '관청발주 설계'이다.

이 '관청발주'는 어느 나라에서든 '국민의 혈세'라고 좋은 명분을 가지지만, '주인 없는 건축물'이고, 대형 Project이므로 설계용역비 역시 엄청나지만 논문이라고, 현금거래인 탓으로 건축사뿐만 아니라 건설회사 아닌 모든 경제인이 눈독 들이는 사업이다. 미국 건축사들 역시 전세계의 '관청발주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WTO 개방합의에 따라 2000년 7월부터 모든 건축계, 특히 후진국가들이 걱정인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 상호인증이라 하지만, 후진국가가 선진국가의 시장을 노리려는 것은 과대망상증 환자일 것이다. 가끔 일간지 1면에 크게 보도되며, 순전한 온 국민을 (자신들한테는 전혀 돈이 안되는데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이랄까, 최근의 한국건축계는 일부 대형회사를 제외하고는 PQ나 현상설계나 하는 '관청발주'에 냉담하는 분위기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PQ는 쓸데없는 것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점수관리를 위해 필요 이상의 거금이 들어가는 것이고, '현상설계'는 사무소가 거덜이 날 정도의 자금을 들인 '컴퓨터 그래픽 외주'를 통해 Presentation을 해보아도 인생곡절은 점쟁이밖에 모를 지경이다. 어느 누가 '개 널'을 뛰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서술한 네 가지의 요소 중에서 두 번째의 인턴과정문제, 세 번째의 현지건축사 협업 문제, 네 번째의 관청발주의 설계문제는 그럭저럭,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거나, 준비 없는 만큼만 피해를 보는 정도로 해결될 것이다.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첫 번째의 건축사의 기본요건에 대한 한국건축계의 왜곡된 인식(필자 생각과 다르다는 의미뿐임)에서 출발하여, 발빠르게 진행되는 건축(설계)학과와 건축공학(기술학)과의 분리이다. 이것은 공청회 발표문의 '중요한 화두'이다.

건축사요건(Fundamental Requirements of an architect)은 UIA표준권고안에 너무나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원본을 그대로 옮긴다.(번역은 建築家誌 참조)

*Ability to create architectural designs that satisfy both aesthetic and technical requirements and which aim to be environmentally sustainable:

(심미적, 기술적, 환경적으로 내구성 있는
건물의 설계능력)

* Adequate knowledge of the history
and theori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arts,
technologies, and human sciences;

(건축역사, 관련예술, 관련기술, 인문과학에
대한 적절한 지식)

* Knowledge of the fine arts as an
influence on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design:

(건축설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술에 관한
지식)

* Adequate knowledge of urban
design, planning, and the skills involved in the
planning process;

(도시의 설계, 계획, 그 과정의 관련기술에
관한 적절한 지식)

*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buildings and between
buildings and their environments, and of the need
to relate buildings and the spaces between them to
human needs and scale;

(사람, 건물, 환경을 인간중심으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한 이해)

* An adequate knowledge of the
means of achieving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sign;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물설계에 필요
한 수단에 대한 적절한 지식)

* Understanding of the profession of
architecture and the role of architects in society, in
particular in preparing briefs that account for social
factors;

(건축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
해)

* Understanding of the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preparation of the brief for a
design project;

(설계진행을 위한 조사방법과 개요서 작성
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design,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problems

associated with building design;

(구조설계, 시공, 토목에 대한 이해)

* Adequate knowledge of physical
problems and technologies and of the function of
buildings so as to provide them with internal
conditions of comfort and protection against
climate;

(외부기후에 영향받지 않는 쾌적한 건물설
계를 위한 물리적 문제, 그에 대한 기술, 기능에 대한 이해)

* Necessary design skills to meet
building users' requirements within the constraints
imposed by cost factors and building regulations;

(원가요인과 범규제약내에서 사용자의 요구
를 충족시키는 설계기술)

* Adequate knowledge of the
industries, organizations, regulations, and
procedures involved in translating design concepts
into buildings and integrating plans into overall
planning;

(설계개념을 설계나 건물로 구현하는데 관
련된 산업, 단체, 규정, 절차에 관한 적절한 지식)

* Adequate knowledge of project
financing, project management and cost control.

(설계건물에 관련된 금융,공사관리,원가관
리에 대한 적절한 지식)

이상의 것들이 이어지는 교육부분에서 건축
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지침이 되는 것이다. UIA 표준권
고안에는 그 이상의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서술로 충분하다. 앞으로도 더 이상 세부
적인 기준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지금의 공청회에서는 '교묘' 하게도
건축기술을 탁출시키려는 명분으로 다음과 같이 한국식으
로 가미하였다.

"건축물의 구조, 환경조절, 시공에 관련된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부분이다. 이 내용은 UIA권고안 어느 곳에도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하여'라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어떻든 건축인의 입장에서 건축학과와 건축

기술학과의 분리에 대해 문제점을 생각해보자

1. 건축은 기능, 구조, 미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정의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건물완공시 건축기술(공학)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해 감사(感謝)패를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감사패의 내용은 건물의 디자인은 물론이고, 설비(기능)에서부터 전기조명, 기계실, 화장실의 성능까지를 통틀은 것으로서, 비가 많이 오거나, 덥거나, 춥더라도 성능을 발휘해 줄 것이라 믿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축주에게 상당한 이익이 보장되도록 설계도면 뿐만 아니라, 공사지침서까지 잘 작성해 주었다는 표시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준공식이 끝나고 2, 3년후에 건축주로부터 "자네가 설계한 건물이 살아보니 참 좋더라"라고 칭찬을 받는 건축사가 몇이나 될까?

방수가 안되고, 난방비가 옆집보다 많이 들고, 화장실은 오줌냄새가 떠나지 않고, 배관이 터지고, 유리창은 열 수가 없어서 담배 찌든 냄새가 진동하는데 누가 칭찬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떤가?

건축의 단계는 기획, 건축계획, 실시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나뉘어 있다. 건축사의 역할에서, 기획은 건축주나 발주공무원에게, 시공, 감리, 유지관리가 소위 건축기술자에게 뺏기거나 양보되었다해도, 건축계획 및 실시설계에서는 당연히 건축기술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작업을 수행했을 것이다.

또 법적으로도 건축설계도면은 공사를 위한 최초이자 최후의 지침서이다. 건축사의 고유업무였던 '감리'가 설계에서 분리된 한국적 실정에서 (잠깐 실수로, 설계의도와 달리 작성됐다 하더라도)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감시하는 것이 현행법이 정한 감리자의 궁극적인 의무인 것이다.

건축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건축기술 능력이 많은 도면을 채울 것이다. 이 작업 역시 건축사의 책임 하에 많은 건축사 지망생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가. 건축설계가 건축계획, 혹은 건축디자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업종이 아니라 구조, 시공 설비 등, 건축기술적인 업무들이 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업종이라는 것이 타 직업,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설계사무소 운영상, 각 분야를 독립시켜 별도 외주(Out Sourcing)를 주게 된 것이 불과 20년전 일이다.

2.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미국에 비해 결정적으로 약하고 두루무실한 부분이 '공사계약을 위한 각종시방서, 견적서 등의 도면에 따른 각종지침서'이다. 이 작업 역시 건축사 책임아래 작성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건축인들마저도 인문학적인 계약관리만 공부시키면 된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다. 건축 기술적인 지식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UIA 표준권고안에 따른 건축계 개혁에서, 크게는 WTO 국제개방시대를 맞아, 국제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가장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3.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협회의 논쟁은 국민보건이라는 미명하에 맞고삐 싸움으로 비취지는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교육제도에서 그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의과대학이 있을 때부터 약학과가 생겨나서 수많은 의사와 약사를 배출하였다.

한의학과의 추가되면서, 같은 국민건강시장에 한의사가 뛰어 들었고, 여기에 불과 3~4년전에 생긴 한약학과가 탄생하면서, 각각의 졸업생들로 구성된 협회를 통한 투쟁은 원래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려진 채, 복잡한 의료법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IMF이후로 세삼스레 세간에 회자되는 '적자생존법칙'은 그 경쟁방법이 합리적일 때 정당한 사회로 칭송 받지만, 우리 한국사회는 쉽게 그 속에 들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는 승자와 패자의 비용을 합한 것이 '사회의 이익금'이라는 정책을 견지해야 한다.

지금 건축계의 '대세' 대로 건축학과와 건축기술학과로 분리되고 분업화되면, 건축사업무 보수기준에 의한 실시설계비용 40%는 구조기술사, 전기설비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술사, 그 외에도 출현이 예상되는 시공설계기술사, 계약도서 작성기술사에게 외주발주가 아닌 별도계약에 의해 진행될 것을 강요당할 것이다. 이미 감리부분 35%는 포기한 상태에서의 계산이다. 이런 도전에 대해, '교육내용'으로 대처하는 논리적 근거가 워낙 미미하여 '외국은 이렇지 않는데'라는 사례만으로 방어해야 할 것이다. -미국? 그들은 전세계가 시장이므로 극히 좁은 전공도 월등하기만 하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

공장설계는 구조기술사가 주도해야 되지 않은가. 강남의 빌딩숲속에 자리잡은 나대지 300평에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시공기술사가 설계를 주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모든 공중화장실, 각종 설비장비로 구성된 병원설계는 설비기술사가 주도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4. 건축물 설계는 그 종류가 무엇이 되든, 설득과 투쟁을 통해 건축사들의 몫으로 남는다해도, 건축법 제59조 2항의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조항은 대폭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현재는 16층이상, 기동간격 30m이상 건물, 혹은 다중이용건축물의 설계는 구조기술사와 협력하게 되어있고, 규모나 용도에 따라 기계설비, 전기설비, 토목설비기술사들의 협력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 법조항에 관계없이,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명시적이기는 하겠지만, 이 기준 이하의 모든 건축물이 관계전문 '기술사' 까지는 아닐지라도, 건축기술 관계전문, '기사1, 2급'의 협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범위가 확대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이다. 조경기술사, 도시계획 혹은 교통기술사의 협력 의무화가 명시되면서 그 범위가 점점더 확대될 것이다.

건축법 제32조에 명시된 대지 안의 조경계획 역시, 조경기술사의 협력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고, 피난계단의 위치선정이나 방염마감재, 내화구조체 선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역시 소방관계 전문가들에게 협력 받도록 명시될 것이고, 결국에는 실시설계나, 시공을 위한 도면작성시 시공가능성이나 경제성, 기술적인 것, 국내제작 가능성 등에 대해 시공관련 전문가이나 시공기술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할 명쾌한 논리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건축사가 되기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해서, 대학생활에서 영역을 넓혀 공부했으면 되는 그런 분야와 지식일 것이다. 협력비용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는 그 비용에 맞게 제대로 협력을 받고 있느냐로 회의에 빠질 것이다.

많은 부분은 너무 쉬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일반인은 30평까지도 스스로 자기 집의 건축관련 전 분야를 설계하고 지을 수 있도록 현행 건축법은 야량이 넓지 않은가. 최근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유로, 서민을 위한다며 일반인이 설계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건축신고 범위'를 50㎡에서 100㎡로 넓힌 바 있다.

이주 비근한 예로, 현재 교통영향평가 영역이 있다. 건축계획속에 들어온 교통체계의 계획요소는 불과 몇 항목밖에 안된다. 원화차선, 가각정리, 보행자 안전도로, 적당한 주차장 화물차, 버스의 정류장 등이다. 그러나 심의 통과를 위한 용역비는 평당 만원이상 최소 3천만원 이상이다. 구조계산 설비 등의 설계비가 평당 5천원 전후인 것에 비해, 업무량에 비해 엄청나게 비싼 것이다.

용역내용 및 창의성부분에 대한 비용은 필자 같으면 전혀 쳐주고 싶지 않는데, 그쪽은 사무실을 운영하랴, 일이 없을 때도 직원월급주랴, 로비 하랴,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다 교통계획과를 대학에 설립하면서 생긴 문제인 것이다. 그 비용은 모두다 최종소비자인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건축학과 출신의 건축사는 제3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건축관련 '기술' 능력을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지고,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 쉽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디자인 능력에 대한 인정여부만을, 그것도 발주자가 달라질 때마다 기다려야 될 것이다. 어쩌면 다행히도, 이런 속성 때문에 설계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디자인에 대한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현지건축사도 외국건축사와 충분히 비교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적 바탕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오히려 건축관련 '기술' 능력에서 현지건축사의 부족함이 명백하게 노출되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역설적 결과가 나올 지 모른다.

요새는 디자인도 컴퓨터 그래픽디자인에게 많은 비용을 들이며, 많은 역할을 이전하고 있지 않은가. 건축사(Architect)가 아닌 건축설계사나 건축의장사(Architectural Designer)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아니, 예측해보건데, 미래에는(우리의 후배들 시대이겠지만) 건축주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프리랜서'를 찾으면 될 것이다. 건축주가 보기에는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을 것이고, 외국 어디에선가 본듯한 건물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사회가 디자인 값을 (공짜)서비스로 보아 높게 쳐주지도 않을 것이고, 건축사는 예술을 한답시고 공사비 개념에 일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좋은 디자인이 건설비 증가요인이라는 사실로 오도되어 일반인이 기피하게 되면, 건축사는 사람들의, 특히 건물주인들의 예술적 안목과 문화에 대한 인식부족만 타령하다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5. 이러한 것들이 우려한대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해도, 설계사무소내에서 건축사 지망생들의 건축 '기술'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디자인을 제외한 관련 작업을 소홀히 할 것이어서 책임자인 건축사는 혼자 건축관련 벌칙에 대응하느라 머리가 쉴 것이다. 더구나 디자인은 A안, B안, C안을 섞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많은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많은 건축사 지망생들의 수고가 한사람만 제외하고 헛일이 될 것이니, 이렇게 낭비적인 사무소 운영비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디자인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다.

덧붙여서 건축사가 건축설계사무소를 이끌어가려면 건축학과 출신(건축사지망생)만이 아니라 건축기술학과 출신(구조기술사지망생, 시공기술사지망생, 설비기술사지망생, 도시계획기술사지망생, 조경기술사지망생, 교통기술사지망생 등)들도 필요할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될 것인가. 월급을 대기업 수준이상 준대해도 '쫄쫄한 건축사'가 운영하는 직장 미래에 어떻게 인생을 걸겠는가.

더구나 의사나 변호사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협동작업이 절대적인 건축설계작업에서 건축디자인이나 설계의 속성을 모르는 교통기술사, 구조기술사, 설비관계기술사 혹은 그 지망생들과 작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답답한 일이라는 것을, 거꾸로 건축관련 '기술'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디자인'을 무기로 칼만 휘둘러려는 건축사 혹은 지망생과 일하는 엔지니어들은 얼마나 서럽게 업무를 봐야 할 것인가. 역시 건축설계일을 열심히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는 내용이다.

또 건축을 모르는 도시계획가나, 건축설계를 해보지 않는 '소신 있는 행정가'의 횡포에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짐작할 수도 없는 내용이다.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역할이나 분야에 소속이 되어있건,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나 이해하려고 하거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들은 물론 건축관련 기술자, 기술직 행정가도 '건축설계'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정말 건축설계사(Architectural Designer)가 아닌 Architect(건축사)의 진정한 역할을 생각해 하는 시점이다.

6. 게다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들의 건설을 토대로, 대형건설회사의 전략은 CM활성화가 아닌

가.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총체적 부실의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면에서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이다.

Construction Management라 부르는 이 용어는, 말 그대로 '공사관리'이지만 적절한 공사관리를 위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사업수익성까지 모두 다뤄야 된다는 것으로, 이것은 Engineering & Construction란 개념에서 출발하여 건축사공계의 '케처프레이즈'가 되고 있다. 이 CM은 미국에서 중동 붐과 함께, 돈밖에 없는 나라를 상대로 활성화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것이 건축사들에게는 'Architect의 존립에 대한 위협'으로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발주공사'는 앞으로 이 CM에 애착을 가질 것이다. 열심히 하든 안하든 급여가 일정한 공무원들에게 산더미 같은 책임에서 많은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발주공사, 그에 따른 설계야말로 미국이 UIA표준권고안을 앞세워 노리고 있는 최종 목표일뿐만 아니라, 국내의 대형건설회사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미 PQ를 다지면서 노리는 중요한 생존의 먹이가 될 것이다. 정부발주가 없으면 그 시장은 너무나 좁은 것이다.

왜. 우리 건축사만 영역을 줄여 버리려고 안달인가. 아무리 원하는 전공이지만, 하기 싫은 공부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7.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면 모두 필자를 비웃겠지만, 지금까지 건축학과가 의과대학에 맞먹는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었었다. 그것은 '건축사'라는 독립 전공인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서 적성을 건축기술쪽으로 바꿨을 때, 역시 우수한 구조기술사, 시공기술사, 도시계획가가 배출됐던 것이다. 만약에 건축공학(기술학)과를 독립시키면, 다시 건축구조학과, 건축시공학과, 건축전기설비학과, 건축설비학과 등으로 세분될 것이다. 이것들은 근대사회에서 토목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출신 엔지니어들의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열악한 건축설계시장에서 해매는 '쫄쫄한 건축사'를 평생 뒷바라지하라고, 자기 자식을 거기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현재의 대학입시에서, 전공은 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선택하게 해줄 것이고, 대학교 주인이 걱정하는 학과정원도 그럭저럭 채워질 것이다. 졸업 후 그들은 생존을 위해 뭇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좁디좁은

한국의 설계시장은 수없이 많은 건축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만든 단체들에 의해 질계질계 쪼개질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난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가 있겠는가. 굶어죽게 되었는데.’

이미 필자는 이 글에 앞서, ‘교육, 반란이 필요할 때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교육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렇게 건축계가 건축기술을 퇴출시키려는데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의 근저에는 전공 교육에 대한 한국의 ‘교육정책 미비’에 있는 것이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을 공부할 시간은 지난 10년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난 노력과 사교육을 통해 가계비를 낭비하면서도, 국, 영, 수로 대표되는 (‘국어, 한문, 영어, 수학, 일반사회, 국사, 세계사, 윤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가정, 체육, 음악, 미술, 교련, 제2외국어인 불어, 독어, 스페인어 등’)보통교육과정은 학생과 부모님들을 대학입시로 매진하게 하고, 대학은 또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모집단위 광역화’라느니 하면서 엄청난 비용만 요구하고는 정작 전공 공부 시간은 대학 4년중 2년을 채우기가 어렵게 되어 버린 것이다.

모자란 전공공부는 노후도 불안한 부모님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학원이나, 유학을 통해 교육기간을 연장해서 머리가 다 하얗게 될때쯤에 비로소 부모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건축계가 이것저것 다 빼고, 건축계획~디자인만이라도 제대로 가르치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1년이 늘어나, 건축교육 5년이 된다고도 건축사 교육을 낙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설계분야 이수학점이 늘어났다 해도 그 평가는 Total Design(건축관련 기술을 망라한 Design)의 입장에서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과거를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자.

공부가 전부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춘기, 고등학교 3년간 동안에 미적분까지 풀었던 수학공부의 50%를 ‘구조역학’ 공부에 매진했다라면, ‘역사란 무엇인가.’까지 독파했던 영어공부의 30%를 그것보다 훨씬 쉬운 영어로 된, ‘건축이론 독해’에 할애했더라면, 전자장이론까지 파고들었던 물리공부의 20%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 공부에, 화학공부시간의 일부를 ‘건축재료학’에, 국사나 세계

사공부시간의 일부를 ‘한국고건축이나 서양건축사’ 공부에, 지리공부시간의 일부를 ‘도시계획’ 공부에, 사회공부시간의 일부를 ‘건축관련법규’에, 지구과학공부시간의 일부를 ‘토목학공부’에 달달 외우고, 반복하고, 요점정리하고, 문제 풀고 하는 정성과 노력에 쏟아 넣었다면,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였다면 아마 이런 불평들을 털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한국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대학당국의 교육정책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을 끌고가게, 옆에서 충고해주는 많은 사회의 ‘어른들’에게 있는 것이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기술학)과의 분리!”

이 화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체화되고, 특히 대학건축계에서도 반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다. 필자와 가까운 모든 건축인들도 이를 기정사실화 함으로서, 필자를 고독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이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분업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 번 떠난 것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호랑이 할아버지를 추모하며

In Memory of "Old Tiger"-Architect Cho Ja-Yong

조현균 / (주)전인건축사사무소

by Cho Hyun-Goon

속리산 입구에 있는 에밀레 박물관에 게시 조자용선생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다. 생각보다는 기사가 작게 다루어져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었다. 상당히 오래전에 에밀레 박물관을 방문하고 하룻밤 묵으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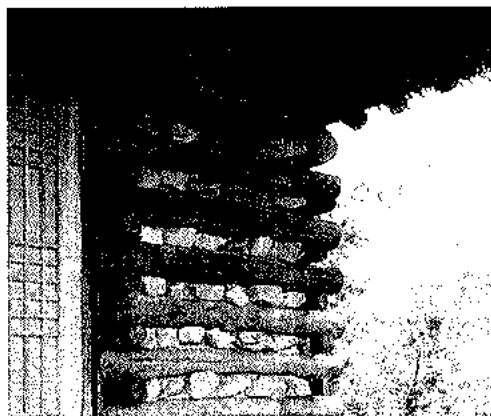
그때 당시는 정년퇴임하신 온사님의 문하생들인 대학 동창들 모임으로, 고적 답사를 겸한 건축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에밀레 박물관을 택한 것이었다.

또한 조자용선생에 대해 민화 관련 서적을 통해서 조금 알고 있었고, 원래 건축가에서 민예연구가로 변신한데 대해서도 궁금해 하던 차라 이 모임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그 당시에 시골 국민학교를 빌어쓰던 에밀레 박물관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고, 그 뒤 골짜기에 삼신사(三神祠)캠핑장을 만들어 방문객들을 받아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캠핑장내에는 전시장, 숙소, 식당, 놀이장, 소강당, 사당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건축가출신답게 토속적인 재료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게 설계되어 있었다.



속리산 삼신사 캠프 전경



외벽 디테일

삼신사는 꽤 넓은 캠프장인데 선생내외 두 분이 관리하고 있었고, 단체 손님들이 올 때는 동네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푸짐한 저녁식사후 소강당에서 선생의 민예강좌를 듣게 되었는데, 호랑이 할아버지라는 별호를 가진 그분의 지나온 얘기며, 최근의 관심사 등에 대해서 구수하게 얘기를 들려 주었다. 무엇보다도 머리가 수그러졌던 점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관심조차 갖지않고 버려져 있던 우리의 전통민예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일생동안 이 일에 매진하여 고독하게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전통민예에 대하여 어느정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분이 활동할 초기에는 어느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분야를 미국유학까지 다녀온 분이 도깨비기와, 호랑이그림, 무당그림에 미쳐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하니 그 집념이 대단했을 것이다.

그분이 민예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미국유학 시절에 한국민예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자기가 미국 유학을 가지 않았으면 한국 전통민예에 대해 눈뜨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역설적으로 들렸는지...

삼신사 캠프 방문 당시 그분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의 무속신앙인 삼신(三神)사상에 관한 것으로 우리 전통예술의 뿌리를 거기에서 찾고 있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벽사(酸邪)신앙과 벽사미술이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무당그림, 서낭당, 장승들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삼신사 캠프장에도 각종 장승을 모아놓고 사당, 삼성당 등을 지어 의식을 지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막걸리를 마시다가며 여러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이 일

생동안 모아놓은 민예품들이 제대로 보관하기가 힘들어 많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후원자들의 결성문제, 그리고 후계자 양성문제가 쉽지 않다는 점들이었다.

삼신사 캠프를 방문하고 난 뒤, 그곳 소식이 궁금하면서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그분의 부음을 접하고, 민예 전문가인 동시에 뛰어난 건축가이신 분이 아깝게 돌아가셨다는 생각에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하버드대학에서 건축관련 전공을 하신 선생의 작품으로는 정동미대사관저, 전주예수병원, 종로YMCA 빌딩 등이 있는데, 삼신사 캠프내의 건축물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우리 전통건축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현대에 맞게 한옥의 디테일을 간략화한 것이라든지, 토착적인 재료의 구사,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우리 전통 한옥의 기본원리를 충실히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건축작품활동을 계속하였다면 한국토양에 맞는 견실한 작품을 많이 발표할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민예연구가로서 큰 족적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셨지만, 건축가로서 그분의 지질과 능력도 우리가 평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문화라는 말이 금세기의 화두가 되고 있고, 진정으로 존경할 만한 선배가 적은 우리의 건축계의 현실에서 한평생 한 우물을 판 선생의 존재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감상적인 생각은 아닐 것이다.

부디 그분의 유지를 잘 받들어나갈 후학들이 많이 배출되고, 에밀레 박물관과 삼신사 캠프의 여러 소장품들이 잘 보관, 관리되어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서 우리 것 찾기에 일생을 바친 선생의 꿈이 길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이다.



속리산 삼신사캠프 전경



속리산 삼신사 캠프내 건축물(숙소)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완)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와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에 나타난
합리주의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서양의 문화를 지배하여 온 정신적인 배경 중 가장 근본이 되며 으뜸이 되는 것은 합리주의적 사고이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 사람, 예술사가들은 이처럼 합리주의적 정신의 절대적인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실질적으로 진정한 합리주의가 꽃피워졌던 시기란 불과 몇 년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내곤 한다. 통념상 르네상스 및 근대의 건축을 가장 합리적인 시기의 건축으로 꼽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술작품에 드러나는 진정한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정도에 있어 어느 시대의 건축, 예술에서든 좀처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어찌되었든 근대 이후의 건축을 논함에 있어 그 기원을 밝히고 추적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론과 시각이 동원되고 분석자에 따라,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양하여 지지만 그 기준점은 역시 합리성, 합리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과 배경, 원인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밑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학적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지난 호까지 취급된 건축사는 이러한 합리주의적 현대건축을 낳은 근대적 전통의 관점에서 다루어

졌다. 이 중에서도 명료성과 고도의 단순성을 표방하는 순수형태미의 건축이 어디로부터 발원하였는가를 다루었는데 아이러니라 할 수 있지만 Le Corbusier 의 글언 'L'architecture est chose de plastique. La plastique, c'est ce qu'on voit et ce qu'on mesure par les yeux... L'architecture est le jeu, savant, correct et magnifique des volumes sous la lumière. (건축은 조형적인 것이다. 조형적이라 함은 사람들이 보는 것, 그리고 눈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이란 빛 아래의 매스를 숨씨었고, 정확하며 웅장하게 연출하는 것이다)'¹⁾ 라는 말에서 정점을 이루듯 형태주의(Formalism)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것은 역사적 인과성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한 효과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건축은 실용적, 구축적(構築的), 또는 구조적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예술분야 가운데서 합리성의 관념을 배제하기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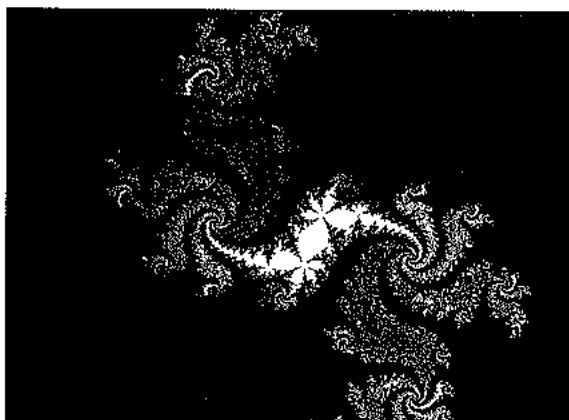
건축이 합리적 또는 이성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별기준의 실재 또는 부재에 기인한다고 보다는 건축 디자인의 총괄적 프로세스 가운데,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이념 가운데 존재하는, 합리에 해당하는 판별기준에 의한다고 볼 수 있다. 건축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홀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것은 신고전주의 등과 같은 예술사적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사적으로 고찰해보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고 정지된 개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역사적 국면을 지배한 무수한 관념들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관념형태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학적 인수 그리고 철학적 아이디어들의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예술을 논할 때 이성(英: reason; 佛: 獨)에 의존하는 과학적 분별기준, 직감, 느낌 등에 의존하는 예술적 분별기준으로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방법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이분법적 방법론은 과학적 사고 내에서 작용하는 직감의 역할, 예술 및 창작활동 내에서 작용되는, 판단을 위한 지적인

힘의 역할을 배제시켜버리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분리는 예술활동의 공정, 처리과정 가운데 여러 상이한 양상을 구분하는데 효과적이고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이성/감각, 질서/무질서, 일반성/특수성, 필연/우연, 필연/자유지 등 어느 정도 상응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을 하고 나면 무수한 관념들이 변화하고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곧바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하나하나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진다.

우리가 착수한 18세기 이후 지난 200년간 건축사는 위에서 나열한 일련의 두 가지 대립개념의 충돌사(衝突史)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철학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우선 합리주의(rationalism)라 함은 이성(英: reason; 佛: 獨: Vernunft)에 입각한 것으로 reason의 어원은 '계산, 셈, 계산능력, 논리적 판단능력'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Ratio로부터 유래한다. 그리고 합리주의(英: rationalism; 佛: rationalisme; 獨: Rationalismus)의 어원은 '이성을 지닌, 이성적 사유를 채운'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닌 라틴어 rationalis로부터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생각할 때 합리주의란 이성에 입각하여 진실을 알아내고 입증하는 원칙을 가리킨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건축사적으로 고찰할 때 이것은 그리 단순하고 명쾌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우선 우리가 고찰을 시작한 18세기의 정신적 세계로 돌아가기 위하여 근원적인 고찰을 하자면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합리주의, 그리고 적어도 16세기부터 시작하여 영국을 중심으로 한 경험주의에 의한 대립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여기서 경험주의는 글자 그대로 경험에



B. Mandelbrot: Self-Squared Fractal Dragon

1) Le Corbusier: Vers une architecture(하나의 건축을 향하여), Flammarion, Paris, 1935, p.177-178. 이미 지적했듯이 정확한 이 책의 제목은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이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은 영어본 'Towards a New Architecture'를 번역하여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로 알려져 있다. Le Corbusier가 책의 제목을 '하나의 건축을 향하여'로 칭한 것은 각 시대는 고유한 하나의 건축을 가진다는 Zeitgeist(시대정신)적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 번역본을 보면 '건축은 유연한 것이다. 여기서 '유연한'이란 많은 눈이 보고서 확장된 것을 말한다.'로 번역되어 정확한 의미의 전달이 어렵게 되었다. 장성수, 장성주 역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 pp. 187-188 참조

의지하는 것으로 위에 나열한 이성/감성... 등의 항목에서 거론하는 '감각'과는 다른 것이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이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성은 질서, 기능을 위한 자율적 규정(rule), 또는 강제적 성격 및 복종의 성격을 띤 법칙(law), 원리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시각으로 볼 때 이성이란 세계 내에서의 직접적 경험 그리고 건축과 같은 praxis 또는 techn 사이에서 규칙이나 원칙으로써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당시의 합리주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정의이다. 여기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사이의 모순과 충돌은 선형성과 후험성으로 정의되는 두 가지 과학개념의 상이성, 충돌, 모순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선형적 사실이란 경험 이전에 인간에게 새겨진 것으로 불변하며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 후험적 사실이란 경험에 의지하여 가변적이고 불안정하며 신뢰가능성이 낮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건축을 비롯한 예술분야에 있어 이성에 입각한 지식이 후험적으로 취득되면 경험적 사실은 선형적인 것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성적 지식에 토대를 둔 과거의 지식을 채용하는 관용적인 권위에 의존하게 되면 선형적 지식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신뢰의 가능성이 낮게 되기 때문이다.

언급되고 있는 이성적 사고 및 합리주의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英, 佛: science; 獨: Wissen, Wissenschaft)의 개념이다. 과학이란 그리스어 (에피스테메)를 라틴어 scientia로 옮긴 것으로부터 온 것으로 그 본뜻은 '지식'이다. 이 '지식', 즉 과학(science)은 신에 의해 인간의 지혜에 불어넣어져 간직된 본유적 생각, 즉 선형적인 아이디어를 말하므로 경험이나 귀납에 의하여 취해진 지식들은 이러한 권위에 반(反)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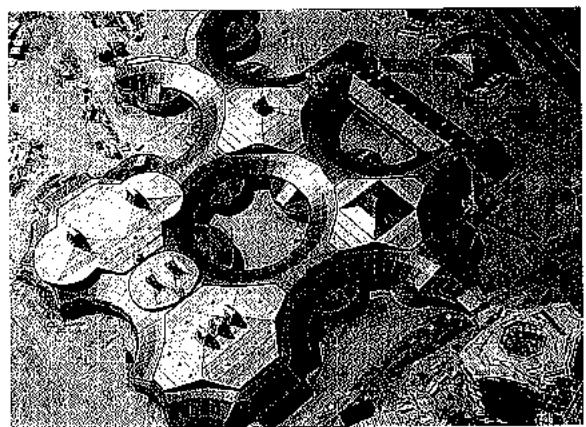
이런 개념 하에서 Descartes, Spinoza, Leibnitz 등의 학자들은 본유적 아이디어, 즉 본질적인 지식을 추구하였다. 본질적 혹은 본유적 아이디어란 과거에 인간에게 계시된 신의 생각이며 따라서 최고의 권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건축가들이 추구하던 아이디어는 과거의 전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Vitruvius와 같은 잔존하는 과거의 이론 및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건물에서 건축의 정통성을 찾는데 일조하였다.

당시의 건축이론은 로마시대의 Arisoteles, Horatius, Coceron 등과 같은 사람들의 텍스트로부터 유도

한 것들이었으며 신플라톤주의적 사고로부터도 동시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사상적 풍토에서 나온 당시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는 '자연의 모방'이었다.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이상하고 모순적이지만 건축 및 예술품은 자연법칙의 연장이어서 자연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과정을 수반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자연에의 접근이란 본유적 아이디어가 이미 드러난 과거의 예술-자연의 모방으로 생각되었다-을 모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18세기 및 19세기에는 건축물이 building과 architecture로 구분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거의 개념이 혼동스럽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 및 비평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정의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은 산업화 및 과학의 발전에 의한 신재료 등의 발달로 기존의 '과학'에 대한 개념의 혼란과 새로운 건축적 기능성의 등장으로 새로운 개념이 출현하게 된 때문이다. 건축은 구축적(constructive)인 측면의 건물(building)과 이성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scientific)' 건축물(architecture)로 구분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구축적인 측면의 건물은 진실한 의미의 이성적 개념이 개입하여 재현적 기능을 만족시킴으로 architecture parlante(말하는 건축)의 성격을 지니게 된 반면 과학적 측면의 건물이란 감각, 감성이 전제되어 예술적 기능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남겨져 그 의미가 전도되어버린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John Wood the Elder 같은 사람은 건축과학(science of architecture)을 순이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건축예술(art of architecture)을 구체적인 원인이거나 이유에 근거하는 지식으로 보아 인간의 생활에 효용성을 적용하는 지식이



A. van Eyck: ESTEC

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사용한 과학과 예술을 분리하고 있는 개념은 현대의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러 Laugeir(로지에)는 선험적 이성이 경험 및 지각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이성만 최초의 건축-primitive hut-을 확증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더 이상 고대의 모델을 의존하지 않으려 하지만 아직도 그가 추구하는 진리와 이성은 불완전한 건축전통의 정화와 완성을 의식하고 있으며 그와 불가분 연결이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화가, 조각가와 마찬가지로 건축가의 임무는 불완전한 외양너머에 감춰진 이데아의 모방에 있어서, 그는 건축역사에 의하여 제시되는 여러 복합적인 예를 분석, 파악하여 숨겨져 있는 유형(type)을 적발하는데 있다. 이상적인 건축은 자연현상과 같이 선험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로부터 전승된 전통적 건축에서 발견되는 이 당시의 이분법적 대립항목은 이성/환상(caprice)으로 확실히 구분되지만 이성은 홀로 우주의 법칙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주관적 경험과 동맹관계에 놓여진다. 경험은 더 이상 신에 의해 불어넣어진 최고의 권위체인 이성에 대해 반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법칙의 존재를 증명하는 보충물일 따름이다.

예를 들어 건축에 있어서 Carlo Lodoli같은 사람은 선구적 기능주의자로 취급을 받긴 하지만 순수한 경험주의자로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는 기능주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건축장식에 집착하였고 규범적이고 전형적인 것과 우연한 것들의 상이점들을 구분한 후 종합하려고 하였다. Laugier와 Lodoli의 합리주의는 바로크시대부터 지배하기 시작한 독단적이고 비속한 규칙들로부터 건축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이성을 가지고 단순하고 영원한 자연에 환원되는 보편적 법칙을 창조하려는 노력이다.

한편 공리주의의 발달과 함께 합리주의와 고전주의의 연합에 대한 구속적 생각은 점점 희박해졌다. 과학적 이성은 형이상학보다는 오히려 기계적 효용성에 치우치게 되어 실행인(efficient cause)이 목적인(final cause)을 대체하게 되었다. 등귀하던 절충주의적 작품 및 공상적 작품에 대적할만한 진정한 합리주의적 이론들이 없었으므로 Durand, Legrand, Thomas Hope, Schinkel

등은 역사의 파노라마에서 실용성에 맞는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건축적 요소들을 역사에서 빌어와 구성(composition)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방법론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8세기의 후반기에는 고전주의 건축에서 축조와 표현에 사이의 완전합일을 꾀하던 움직임이 와해되어 두 개념의 분리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움직임이 대표적인 것으로 미학적인 견지에서 이교적(異教的)이고 비합리적 건축으로 푸 대접을 받던 고딕건축 내에서 합리적 구축법칙을 발견한 구조적 합리주의의 등장이 그것이다. 구조적 합리주의는 적어도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8세기의 구조적 합리주의는 새로운 과학의 등장과 함께 기능주의적 분석, 즉 재료의 응력이나 효용성 등에 몰두하며 고전주의적 개념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하였다. 이것은 19세기까지 발전하여 과학만이 진정한 지식의 제공자이고 진실로 믿어지는 어떤 사실이란 단지 과학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한 Auguste Comte의 엄격한 실증주의의 영향 이후까지 발전, 지속되었다.

이 구조적 합리주의의 새로운 물결은 일종의 이상주의, 즉 경험주의적인 과학으로 환원할 수 없는 미에 관한 신고전주의의 영역으로 그 기준점을 가까스로 올려놓게 된 동기가 되었다. 과학이 건축 스테디를 위해 유용하지만 모든 것을 다 떠맡지는 못한다고 주장한 Léonce Reynaud(레옹스 레노), 건축은 장식된 구조이며 건축의 형태는 합리적 증명이 요구되는데 그 법칙은 자연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 César Daly(세자르 달리)등의 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을 실질적인 건축물으로써 대변하는 것은 Henri Labrousse(앙리 라브루스트)의 Bibliothèque Sainte Geneviève(생뜨 쥬느비에브 도서관)을 들 수 있



P. Eisenman: Columbus Convention Center

다. 여기서는 현대적 기술과 재료를 고딕적 방식으로 엮어서 연출하고 있다. Henri Labrousse의 진실한 의도는 기술에 따라 건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한 고딕적 건축을 손상함이 없이 새로운 재료 및 기술을 채움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고딕 부흥주의자들에게는 고딕건축이란 절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 아닌 고전주의의 대안물로서 여겨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인물 중 고딕 부흥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Viollet-le-Duc(비올레르 뒤크)으로 그는 구조에서 고딕의 진수를 보았고 그 구조적 원리와 요소들이 미래의 건축에 있어서 방법론적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Viollet-le-Duc은 건축의 발전과 발달은 기술의 발달과 연결되고 더 이상 건축의 형태는 영구한 역사적 형태의 어형변화표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내재된 기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고대의 '완전한 형태'를 배제하였고 합리주의는 고정된 것이 아닌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건축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운명과 연결시키려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건축이 합리적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객관적 지각에 호소하고 주관적 감각을 호소하기 위하여 합리성에 호소함으로 그가 실증주의적 태도와 감성주의적 태도를 동시에 채우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양면적 시각은 그가 주관적 모랄리즘의 개념을 채용하여 고딕건축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이라고 옹호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세기의 합리주의는 19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면을 보여준다. 실증주의적 사고에서는 논리성이 강조되는데 Viollet-le-Duc의 논문의 내용들은 항상 논리에서 시작하되 기술을 매개로 주관적 감각과 유기적 성격의 것으로 이행한다. 그는 기계를, 건축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보기는 하였지만 기계주의 미학에 물든 다른 사람들처럼 기계화가 건물의 요소 및 건물전체에 영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강철은 목재 또는 석재를 대체할 수 있는바 각 재료들은 성격이 서로 비슷하여 수공업적 방식에 의하여 적당한 형태로 제작하여 대체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연속적인 건축의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은, 비록 물질적 혁명이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항구불변한 논리성과 기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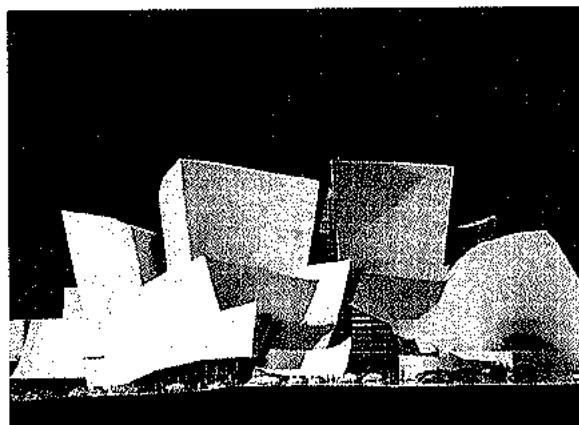
19세기 말기 및 20세기초의 미학이론, 철학, 제작, 건설 등의 끊임없는 발전은 전통적 건축에 대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구조 및 제작방

법에 있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한 것은 바로 엔지니어링이었다. 엔지니어링 그리고 산업을 성공적으로 건축과 연결한 사람은 Hermann Muthesius이다. 그는 건축형태의 유형학(typology)이란 미학적 인식의 일반법칙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았고, 공장생산을 통한 건물의 합리화는 그것이 파괴하는데 일조를 한 예술적 전통과 문화적 가치를 새로이 재창조한다고 생각하였다.

20년대의 전위 건축가들의 대부분은 기계주의 미학에 심취하였는데 이들은 기계가 공예의 임무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초미의 관심사였던 공공주택 공급 등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였다. 산업에 의지한 공업생산적 건축은 매스의 단순화를 전제로 하며 각 요소들의 개별성, 독특성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전형성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각 부분이 레고(lego)조각과 같이 분리되고 조합, 조립될 수 있는 요소주의적 구성수법과 모타주적 기법이 사용되어 위계적인 고전주의 건축을 부인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활동하던 Hannes Meyer, Ernst May, Mart Stam 그리고 Hans Schmidt와 같은 신즉물주의적 건축가들에게서 발견된다. Ludwig Hilberseimer의 건축, 특히 그의 도시계획 안에서는 극도의 도식화가 발견된다. 그의 작품에서는 순수한 분석작업을 위한 도식적 다이어그램 등이 실제의 건축적, 도시적 오브제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시적인 종류의 형식주의는 올바르고 적절한 건축적 형태와 표상을 용납하지 않아 그들이 애써 추구하고 있었던 건축의 추상화를 완성치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하고 있다.

그러나 Le Corbusier나 Mies van der Rohe의 작품에서는 도식화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형식주의가 고전적 성향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Le



F. Gherry: Disney Center Hall

Corbusier의 건축에서는 이전까지 고찰하여 보았듯 프랑
스식 고전주의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선형
적인 예술적 질서와 규칙을 역사주의적 전통 그리고 실증주
의적 전통으로부터 물려받은 연속적인 진보의 개념과 조화
시켰는데 극단적인 예가 되는 Dom-ino구조의 스케치는 차
후에 전개될 그의 작품들의 변증법적 발전과 진화를 위한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Dom-
ino의 철근콘크리트 뼈대는 데카르트가 요구하는 모든 명
확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다.²⁾ 군더더기 없는 이 단순한
뼈대 내에 매스 및 주택에 필요한 설비 등이 취향과 경험에
의지하여, 또 기능과 실용적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배치
될 수 있어서 Le Corbusier의 건축에서는 이번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합리주의의 두 가지 전통, 즉 선형적 개념의 전
통과 경험적 전통-예술적 표현-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데카르트식 형이상학적 사고를 감각적
오브제들로 해석해내어 지난 호까지 분석한 프랑스 고전주
의 건축가들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실증주
의의 사고에 있어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아이디어들이 기
능적이거나, 우발적, 우연적인 것들로 해석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형(類型)으로 환원될 수 있어서 외형상 합리주
의적인 건축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1969년에 출판된 건축사가이자 비평가
Charles Jencks의 논문 History as Myth는 각 거물급 건
축사가의 성향을 '합리주의/사회적 유토피아 지향성, 합리
주의/문화적 연출, 합리주의/사회적 유토피아주의' 등, 역
사를 통하여 공히 존재하는 신화소(神話素: mytheme)를
사용하여 대립시키고 비교하는 전통적인 이론법으로써 구
분짓고 카테고리화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대
표적인 건축사가인 Pevsner의 성향을 세분함에 있어 합리
적 신화소에 속하는 항목은 명확성, 표준화,
Sachlichkeit(죽물성), 사회적 책임감, 그에 대항하는 표현
주의적 신화소의 항목으로 환상, 장식, 혼동, 예술을 위한
예술 등으로 대립시켜 비교하였다.

그 후 26년 후 1995년에 완전히 색다른 개

념의 내용들으로써 채워진 The Architecture of the
Jumping Universe를 출판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예의 전
통적인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히 새로운 과학적 개념
을 사용하여, 과거에 포스트모던의 기수직을 떠맡고 그의
전파에 나섰듯, 또 다시 새로운 예언자적인 자세로 설법하
고 있다. 아마도 그가 지은 책들을 분석하면 현대건축의 주
요한 발자취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언급한 책은 다분히 현대의 사상세계를 언급하고 있는
정후적인 현상의 하나가 될 것인데 그가 언급하고 있는 내
용들을 살펴보면 프랙탈, 카오스, 슈퍼 스트링, 나비효과,
GAIA, Green Architecture이론 등 현대과학의 이론들로
채워져 있다. 그를 비롯한 다수의 건축가 및 이론가들은 무
엇 때문에 물리학에 집착하는 것일까? 과거로부터 사상계
엔 존재론적 합리주의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금의 분
석적 건축가 및 이론가들은 정작하게 과학을 모방하려는 듯
하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길들여진 철학자들의 아침에 보
답하고 있으며 마치 과학에 관한 저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러했듯 문화비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철학의 외피
를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변적 영역에서는 해체주
의가 등장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고 있어서 기
존의 분류체계인 질서/무질서, 필연/우연의 대립개념을 허
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대립항은 새로운 사고체계
에서는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으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지난 호까지 논의한 프랑스 합리주
의의 순수 유클리드 기하학 형태의 건축은 어떤 위치에 놓
여 있을까? 그 역시 현대의 물리학, 과학 앞에서 많은 변화
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대표적인 것으로
프랙탈, 카오스 등의 이론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공
히 무질서로부터 질서가 탄생함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에 따



Ch. Jencks: Organization Emerging in Chaos

2) Descartes는 다음과 같이 명확한 인식을 위한 4가지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 나
의 정신에 명석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나의 판단 속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가
의심할 수 없는 것만을 포함하겠다. 둘째로, 내가 검토하는 각각의 어려움을 가능한 한, 그
리고 더 잘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에서 가급적 세분한다. 셋째로, 나의 생각을 질서있게
안도하기 위하여, 즉 인식에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단계적으로 처
레치에 복잡한 것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 어떠한 경우
라도 전체적인 결과와 일반적인 결론을 실시한다 in 데카르트(김형호역): 방법사설/성찰/정
념론 외, 삼성출판사, 1998, p. 57.

3) Jencks, Charles: History as Myth in Meaning in Architecture, Barrie & Jenkins,
1970 (2판), pp. 244-265.

르면 과거엔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져 도외시되었던 비 유클리트 기하학의 형태도 합리주의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였고 건축을 비롯한 시각예술에서는 작품으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리성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탈바꿈되어 심각한 전대미문의 미학 및 철학적 변화와 변신이 발생하게 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는 Gregg Lynn과 Peter Eisenman등이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이 드러나고 있고 과거의 유클리트 기하학적 순수형태에서 떠난 소위 해체주의 계통의 부서지고 관통하며 뒤틀리는 형태도 이성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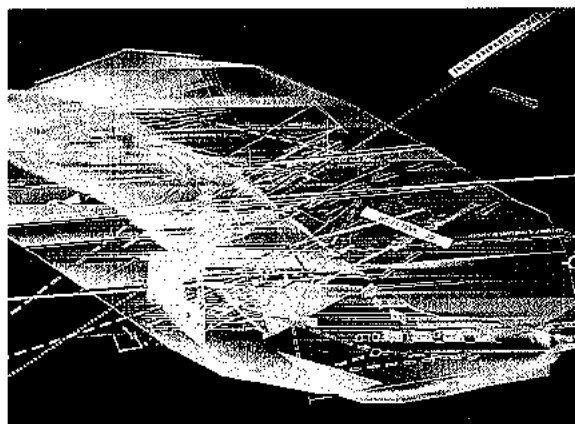
이런 점에서 일견 서양의 혼돈이론을 비롯한 제 과학적 성과가 동양의 태극이론이나 혼돈론과 유사함이 많아 보이므로 두 문화의 연결성이나 결합가능성을 쉽사리 언급하곤 한다. 그런데 동서양의 문화배경을 비교하면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프랙탈 이론의 창시자인 Benoît Mandelbrot(브누아 망델브로)가 그의 저서 가운데 'entre le domaine du désordre incontrôlé et l'ordre excessif d'Euclide, il y a désormais une nouvelle zone d'ordre fractal (제어되지 않은 혼돈의 영역과 유클리드의 과도한 질서 사이에 이제부터는 프랙탈 질서의 새로운 지역이 존재한다)'⁴⁾ 라고 언급함은 아마도 서양식 가르기 작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고 동양사람들이 생각하는 태극의 이론, 윤회적 사상과는 전혀 다름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외견상 같아 보이는 문화현상, 건축적 이념, 형태와 공간 등도 문화배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미 20세기말에는 예의 새로운 합리성 등이 인정되기 시작하였고 구체적인 건축물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론과 실체가 완전히 결합되어야 한다는 서양사람들의 사고는 언제나 유용히 전개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사변적 합리성에 입각한 이념주의적, 이론적 건축으로 말미암은 형태적 중요성과 표현성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관념적 차원에서의 합리성이 아주 중요함은 일언반구의 여지도 없지만 기본적인 차원의 기능과 효율성 등의 보장은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항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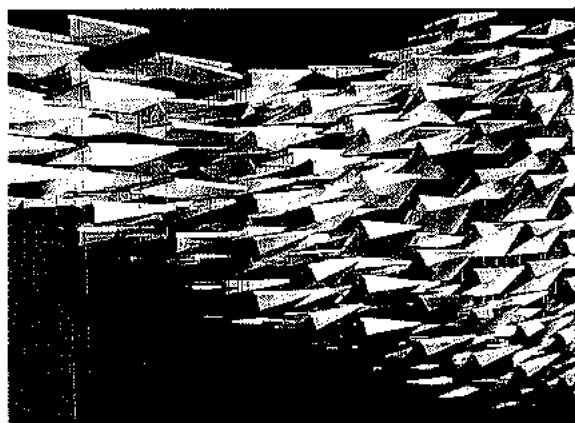
4) Mandelbrot, Benoît: Les Objets fractals(프랙탈의 오브젝트), Champs/Flammarion, Paris, 1995, p. 10.



G. Lynn: Cardiff Bay Opera House



Elenberg etc.: Schinkel Loop, Berlin



다용도전시 시스템-조각

협회소식 / 90

건축계소식 / 91

해외잡지동향 / 97

현상설계 / 100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02

회원현황 / 104

게시판 / 105

협회소식 KIRA news

이사회

2000년도 1, 2회

우리 협회(회장 이의구)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2000년도 이사회가 지난 1월 21일(제1회)과 2월 8일(제2회)에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1회

〈부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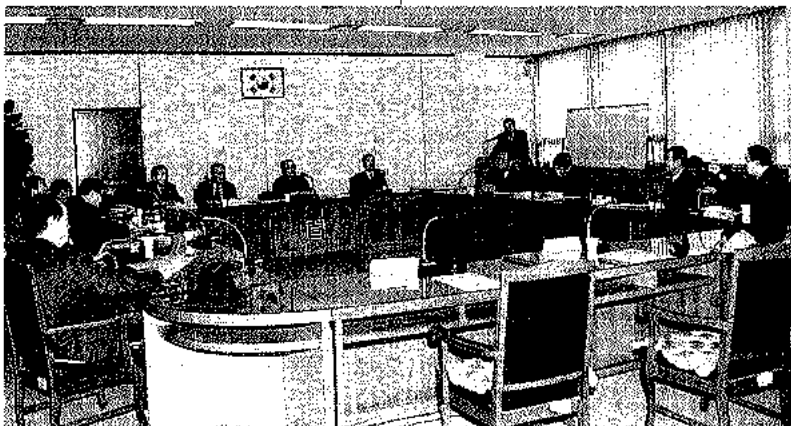
- 제1회의안: 2000년도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결정의 건
-일시 2000년 2월 24일(목) 10시, 장소 본협회 대강당
- 제2회의안: 2000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회의안: 직원 정년퇴임에 따른 공로패 수여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광주건축사회 정명호 사무국장)

◇ 2회

〈부의안건〉

- 제1회의안: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조정 승인의 건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가칭)한국건축대상 행사비에산을 다음과 같이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함.
(당초 1억2천8백9십3만원에서 6천2백만원 감액된 6천6백9십3만원으로 조정, 조정내역: 신문광고비 2천만원→2백만원, 작품집제작비 1천5백만원→8백만원, 수상자건축탐방 경비 3천만원→삭제, 전시포스터제작비 2천5백만원→삭제, 기타 4백5십만원→삭제)
- 제2회의안: 제34회 정기총회 의제결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제1회의안: 99년도 회계별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회의안: 2000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회의안: 2000년도 전국공통운영회비 결정의 건, 제4회의안: 임원



개선)

- 제3호의안: 추대회원 추대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8개 건축사회 총 13명)
- 제4호의안: 복무규정중 개정규정 (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직원연가제도 폐지→연월차휴가로 대체)

<협의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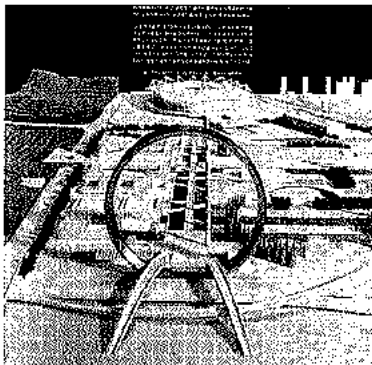
- 제1호: 공정위원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협의
- 2000년도 제1회 시도건축사회회장회의에 위임키로 함.
- 제2호: 제34회 정기총회 임원 업무분담에 대한 협의
- 정기총회사 예상되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분담하여 답변을 준비키로 함.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관련: 이건호이사,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관련: 조태종이사,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관련: 이관영이사, 조태종이사,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및 UIA회원단체 가입관련: 이관영이사, 공제사업 추진관련: 이종정이사, 윤준섭부회장, 회원/회비제도 관련: 회장, 협회업무 및 건축정보전산화 관련: 윤준섭부회장, 민경민이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 관련: 회장, 윤준섭부회장, 건축사현장감독: 송기준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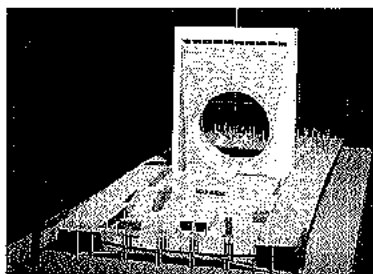
건축소식 archi-net

현상설계, 천년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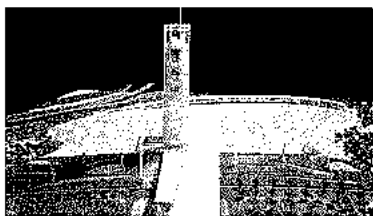
당선에 오퍼스 건축(우대성) + 이은석(경희대학교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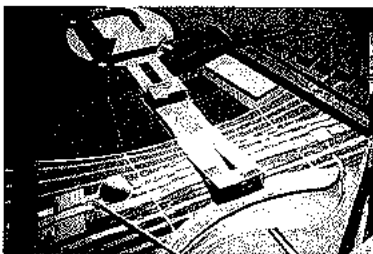
당선작



우수작 / 이상환경건축



가작 / 공간건축



가작 / 희림건축

새천년의 기념상징물로 건립될 '천년의 문' 현상설계에서 오퍼스건축(우대성)과 이은석(경희대학교수)공동안이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2월 16일 발표됐다. 새천년준비위원회와 재단법인 천년의 문이 공동주최한 이번 현상설계 경기는 작년 11월 30일 181개팀의 응모신청을 받아 지난 2월 9일 마감한 결과 36개작품이 최종 접수되었다. 당선작외에 우수작은 이상환경건축(임채진)안이, 가작은 공간건축(이상림)안과 희림건축(이영희)안이 각각 선정됐다. 그밖에 입선작으로는 장인건축(정춘국), 그룹한건축(김한일), 건우사건축(공순구), 원도시건축(변용)안이 각각 선정됐다. 당선작은 원을 형상화한 것으로 새천년의 상징성과 역사성, 정체성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타작품에 비해 단순하고 스케일이 크다. 실제 계획안의 직경이 200미터에 달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50미터가 높다. 당선작을 포함한 수상작은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반에게 전시된다. 천년의 문은 평화와 행복의 열두대문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문으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평화의 공원내에 건립돼 월드컵 경기장과 함께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 300억원이 계상된 천년의 문은 오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중 조달청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 10월경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건축학교, 강좌안내

sa friday, sa tuesday

sa는 건축가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에
술활동의 일환으로 문화의 각 장르간
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이끌
어 가기 위한 논단을 마련한다. 새 천
년을 맞으면서 마련한 두개의 프로그
램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실천이 서로
교류하며 펼쳐는 'sa friday'와 건
축·도시·예술·기술의 접합한 이론
과 분석을 전개하는 'sa tuesday'로
나누어지며, sa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인에게도 공개하는 대화의 장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두 프로그
램의 성격을 각각 규정해 나가려하며,
각 연도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대주제/ 변화의 시작과 새로운 풍경

2000 : 오늘의 자리에서

2001 : 움트는 모습들

2002 : 세계 속으로

2003 : 다시 오늘의 자리에서

2004 : 새로운 풍경 I

2005 : 새로운 풍경 II

sa friday (공개강좌/유료)

- 학기 당 10회 ~ 12회 매주 금요일
저녁 개최.
- 대 주제와 연도별 주제의 범위 내에
서 학문과 예술 분야의 가치 있는 논
의를 발생, 전개하려 하고 패설 디스
커션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주제접
근과 대화 유도.
- 강연, 전시, 공연 등의 program을
입체적으로 병행함.
- 강사진 및 일정은 추후 발표

sa tuesday (공개강좌/유료)

- 학기 당 8회 ~ 10회 매주 화요일 저
녁 개최.
- 4회 정도의 격주간 강좌로 심도 있
게 주제 전개하고 출판으로 이어지
는 전문 강좌.
- 강사 : 강성원(미술사; 미술평론가),
김봉렬(한국건축사, 한국예술종합학
교)
- 이 밖에 초대 건축가의 세미나도 예
정.

서울건축학교, 설계스튜디오 신입생모집

설계스튜디오와 기초스튜디오는 4년
제 대학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
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
에게 열려 있으며, 다음과 같이 2000
년 1기 학생을 모집한다. 신청학생 중
에서 포트폴리오와 면접에 의해 우수
한 학생을 선발한다.

* 학기: 1기 2000년 3월-6월(14주)

* 여름 워크숍: 2000년 8월(1주/대
학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 응시서류: 포트폴리오(설계스튜디
오에 해당), 자기소개서, 졸업(예정)
증명서, 신청서(소정의 양식)

* 접수: 2000년 2월 20일까지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 통보)

* 2000년도 1학기 설계스튜디오

- 튜터: 설계스튜디오: 김현(에다건축),
김승희(경영위치), 권문성(아트리
에), 최문규(한울건축) 윤평현(shift
건축연구소)

- 기초스튜디오: 최욱(kpc최욱건축연

구소)

- 스튜디오지정 크리틱: 조성룡, 민현
식, 정기용, 송효상, 이종호, 김종규,
서해림, 김인철, 김원

제1회 창국 건축포트 폴리오 공모전 2000

2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참가신청

20년 전통의 건축도서출판윙통의 메
카인 (주)창국사(대표 김용대)가 주최
하는 이 공모전은 신진 건축인들의 자
기성장 관리와 표현에 있어서 없어서
는 안 될 "포트폴리오"를 공모하는 프
로그램이다. 응모자 개인의 포트폴리
오에 담기는 내용과 편집형식의 공개
경연을 통해서 건축의 정보가 공유되
는 또 하나의 경로를 개척하게 될 것으
로 기대된다.

▶ 참가자격

- 건축(인테리어 포함)학과 대학 재학
생 및 대학원생
- 건축(인테리어 포함)설계사무소 근
무자(경력제한 없음. 단, 대표자 제
외)

▶ 참가비 · 없음

▶ 포트폴리오의 내용

- 응모자의 건축수학의 배경과 건축의
주된 관심사가 드러나는 내용일 것
- 작업된 내용의 저작권이 응모자 소
유일 것을 권하며, 부득이 참여작일
경우 참여 사실 확인 증명을 내용중
에 첨부할 것
- 내용중에 개인 신상의 노출은 가능함

▶ 제출요강

- 1면의 크기는 B4 또는 A4 중에서
응모자가 자유롭게 정하되 위아래로

긴 포맷을 공유할 것(내용중 접어서 편집한 부분은 1면 기준 크기를 벗어나지 않게 유의할 것)

- 총지면수는 50장(펼쳐서 100면 분량)을 넘지 않을 것을 권유하며, 그 이상도 가능함
- 기타 사항은 응모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작업할 것
- 어떠한 경우에도 별도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작품은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참가신청

- 2000년 2월 7일(월) - 7월 31일(월)
- 팩스(02-2633-1911), 이메일(poar@chollan.net), 우편접수(건축인poar 주소)를 이용하여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소속),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창국 건축포트폴리오 공모전 신청자'라고 작성하여 보내오면 됨(신청자 명단은 1주일 단위로 "www.poar.co.kr" 게시판에 발표 예정임)

▶ 작품접수마감

- 2000년 9월 2일(토) 限,우편접수(당일 소인까지 유효)로만 가능. 직접방문 접수불가함
-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1번지 청호빌딩 201호 (주)간향미디어
- 겹봉투에 "창국 건축포트폴리오 공모전 응모작"이라고 적을 것

▶ 수상자 발표

- 2000년 9월말(개별통지 및 poar 웹진 "www.poar.co.kr" 게시판에 발표)

▶ 시상내역

대상(1인) 상금 3,000,000원 · 우수상(2인) 상금 각 1,000,000원 · 외가

작 및 입선 다수 부상 수여

- 주최 · (주)창국사 02-3473-6861
- 주관 · 월간 건축인 poar

제3회 건축사진 강좌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청암 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에서는 제3회 건축사진강좌를 2000년 4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지 건축설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12주간으로 진행될 이 강좌는 임정의선생이 20여년간 체험했던 건축과 관련된 건축사진의 이론과 실기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소형카메라의 기초부터 모형촬영, 야외촬영, 인테리어촬영, 암실작업까지 실제 응용을 목적으로 개인작업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할 수있는 수준을 목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서 강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간:4월 4일부터 6월 27일(12주)

-시간: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

-장소:청암 건축사진 스튜디오

-인원:12명 선착순

-참가자격은 소개서와 참가비

-신청은 청암건축사진연구소

전화 (02) 567-2700

팩스 (02)-569-0061

〈강의 내용〉

1주 - 사진의 역사 및 건축사진의 이해(건축사진의 분류 및 슬라이드 강의)

2주 - 건축사진촬영에서 필요한 기자재(카메라, 렌즈 및 필름의 선

택연구)

3주 - 건축사진에서의 빛과 공간의 이해(자연광과 인공광의 비교)

4주 - 건축사진의 표현방법(건축관련잡지와 포트폴리오제작)

5주 - 건축사진에서의 테크닉(타입, 조리개, 심도의 이용방법)

6주 - 건축모형촬영의 테크닉(계획모형, 단지모형, 주거모형,)

7주 - 인테리어촬영의 테크닉(백열등, 형광등에서의 촬영연구)

8주 - 야외사진촬영의 테크닉(각종 현대건축물들을 중심으로)

9주 - 고건축촬영의 테크닉(각종 전통건축물들을 중심으로)

10주 - 흑백현상 및 테크닉(암실작업 실습)

11주 - 인화방법 및 테크닉(암실작업 실습)

12주 - 작품제작 및 총평(건축사진기행~1박2일예정)

원도시건축, 공개세미나

'사람들' 주제로

작년 한 해 '2050년 미래사회의 메시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원도시건축 공개세미나가 올해에는 '사람들'로 관심을 돌렸다. '사람들'이란 주제를 설정한 2000년 세미나는 건축의 모태인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 건축이 수용해야 하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속성과 그 관계들, 그들이 양태해왔던 문화와 사회, 그리고 변화하게 될 모습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건축, 동양철학, 인류학, 문화연구 등 각 학문의 장르별로 관계석학들과 함께 진행될 금년 세미나는 지난 1월 27일 김봉렬교

수의 '건축속의 인간'으로 출발해 12월 7일 종합세미나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세미나는 매월 첫째 주(2, 3월 제외)목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원도시건축 사옥 지하 1층홀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없다. 문의: 02-543-4977

2월 24일 동양철학/최진덕(정신문화연구원)

3월 16일 인류학/한경구(강원대)

4월 6일 문화연구/미정

5월 4일 서양철학/남경희(이화여대)

6월 1일 종교/미정

7월 6일 문화/황지우(한국예술종합학교)

8월 3일 영문학/강내희(중앙대)

9월 7일 미술/김홍희(평론가)

10월 5일 영화/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11월 2일 건축/이상해(성균관대)

12월 7일 종합세미나

2000년 간향의 집宇 집宙 쇼SHOW

3월 5일까지



▷3라운드: 건축가의 패션(the architecture fashion)전
건축가들에게 못짓기를 주문하는 사회. 건축가는 패션을 통하여 또 하나의

건축만들기에 몰입한다. 실용성으로부터 이념형의 옷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전시장에서 2000년 벽두에 건축가가 내지르는 다양한 스타일과 정신성의 세계를 실험하는 일군의 건축가를 발견하게 된다.

-일시: 2000년 2월 11일~20일(10일간)

-장소: 김내현 갤러리

-비평가: 함성호(사인, 스튜디오 이운 대표)

▷4라운드: 2042도시패러다임의스펙트럼전

GAIA projects전 이후 만 2년만에 선보이는 건축가 조택연의 미래건축전. 동서양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2042년의 공간을 관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건축가의 전망을 보여준다.

-일시: 2000년 2월 25일~3월 5일(10일간)

-장소: 김내현 갤러리

-비평가: 이종건(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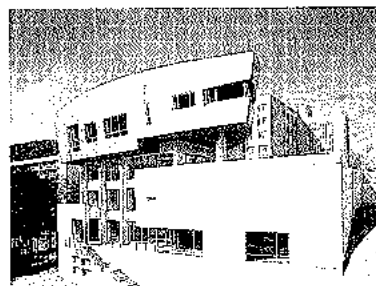
▷문의: 전진삼(코디네이터, 건축발전연구소 소장, 02-2637-3890)

제22회 한국건축가협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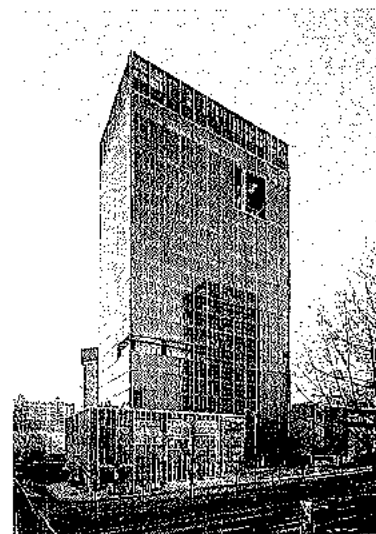
수백당(승효상)외 6작품 선정



서울시청작정어린이집(서혜림)



명지대방독기념관(이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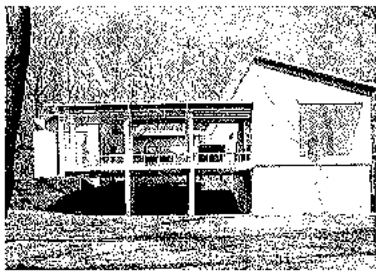
데아줄발당(이성관)



업터문건축상 / 국민대국제교육관(최관영 + 정동명)



수백당(승효상)



아천건축상 / 미제루(방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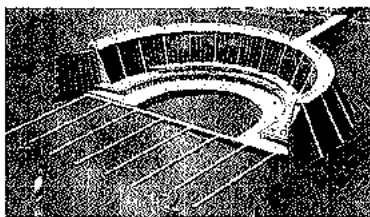
제22회 한국건축가협회상이 선정되어 지난 2월 18일 포스코센터 서관 4층 아트홀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2000년도 한국건축가협회상 심사는 제출된 121작품을 설계분과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해 선정한 33작품과 심사위원이 추천한 3작품을 합쳐 36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1차심사에서 12작품을 선정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최종 6작품이 선정됐다. 심사 중 논의되었던 사항은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포괄적인 건축행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것, 건축에 대한 명쾌한 개념과 완성까지의 일관성, 주변의 맥락에 대한 고려와 공공성에 대한 배려, 거품경제의 산물인 비합목적적인 건축에 대한 제고, 그리고 많은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대상 작품에서 타 수상작품은 재논의하기로 했다. 수상작은 서울대환경관(김승희+강원필/경영위치건축), 명지대방목기념관(이종호/스튜디오메타), 수백당(송호상/이로재건축), SK 신사옥빌딩(김종성/서울건축), 서울시 청직장어린이집(서혜림/힘마건축), 신도리코본사 및 서울공장(민현식+이은식/한국예술종합학교+기오현건축), 데이콤빌딩(이성관/한울건축)이다. 한편, 특별상으로는 엄덕문건축상에 국민대국제교육관(최관영+정동명/일건씨앤씨건축)이, 아천건축상에는 미제루(방철린/인토건축)가, 초평건축상에는 박길홍(국민대 건축공학과)교수가 차지했다.

심사는 협회상을 권태문(인천대학교), 오기수(스페이스.오건축), 조성룡(조성룡도시건축), 김진균(서울대학교), 동정근(인하대학교)씨가, 초평건축상을 강건희(홍익대학교), 김정동(목원대학교), 김창수(삼우설계), 장석웅(아도무건축), 최영집(탑건축)씨가, 그리고 아천·엄덕문건축상을 김낙중(중원건축), 김병윤(백제예술대학교), 윤석우(종합건축), 윤승중(원도시건축)씨가 맡았다.

한편,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2월 18일 포스코센터에서 건축가협회상 시상식에 이어 있었던 제42회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황일인 수석부회장이 제22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수석부회장에는 오기수(스페이스·오), 부회장에는 윤석우(종합건축), 김창수(삼우설계)씨가 선출되어 새 집행부가 구성됐다.

인천에 첫 해상공관호텔 건립

2002년 4월 완공예정



내년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공관호텔이 건립된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 2월 8일 외국인 투자법인인 주식회사 아키에스(대표 김태오)가 지난해 11월 인천시 중구 을왕동 산 33-5일대 공유수면 6만5천여평에 해상공관호텔을 짓기 위해 신청한

사업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됐다. 총4억달러를 들여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7만여평 규모로 지어질 해상공관호텔(객실 962개)은 오는 3월초 신축공사에 들어가 2002년 4월 완공 예정이다. 국내에서 해상공관호텔 건립 승인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키에스는 해상공관호텔에 수영장, 박물관, 연회장, 회의실, 보트정박시설, 대형주차장 등을 갖출 예정이다.

현실비평연구소, 제5회 비평상 공모

8월 20일 마감

현실비평연구소가 '한국학파'라는 주제로 제5회 비평상 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부문은 건축, 실내, 도시, 무대, 조경, 디자인 등 6개 부문에 한정하고 있으며, 응모작에 등장하는 대상 혹은 작가가 한정된 지역을 방문하고 봉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응모자격 제한은 없고, 2백자 원고지 70매 분량의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마감은 8월 20일 오후 5시까지만 www.archi.or.kr이나 archi01@thrunet.com으로 인터넷 접수만 받는다. (참가신청 접수마감은 7월 20일이다.) 대상 1편,佳作 3편, 다수의 입선작을 선정하게 될 이번 공모전의 대상작 수상자에게는 상금 3백만원 상당의 해외건축 연수 기회를 준다. 문의: 02-372-7732

백원경씨, 영국왕립건축가 협회 정회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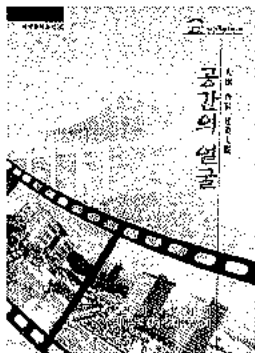
한국인으로는 김종규씨에 이어 두번째

영국의 세계적인 건축설계회사 「포스터 앤 파트너」사에 건축사로 근무중인 백원경(30세)씨가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정회원으로 선정됐다. 한국인으로는 김종규(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에 이어 두 번째로 영국왕립건축가협회 정회원이 된 백원경씨는 현재 영국 런던 시내에 지어질 사무용빌딩 타워플레이스의 설계팀장을 맡고 있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는 19세기 초 설립돼 2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권위있는 단체로 정회원이 되려면 영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3차례의 까다로운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회원이 되면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실력과 권위를 인정받는다.

신간안내

공간의 얼굴
건축용도별 체크리스트

◇공간의 얼굴



대전서구문화원은 작년 건축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공간의 얼굴-대전서구건축대관”을 발간했다. 선사시대의 건축물에 대한 유적지와 전통건축물을 비롯하여 현대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주요건축물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지역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집필자인 이왕기 목원대학교수는 “역사적으로 서구는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곳이다. 대전에 처음 사람이 살던 곳이 서구이듯이 대전의 현대건축물이 새롭게 거듭나는 곳도 역시 서구이다.”로 대전시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서구에는 추억을 담고있는 역사적 문화환경이 남아 있고, 넓은 자연공간이 있으며, 새로운 도시공간을 창조하여 희망을 지니게 해준다.”며, 현대도시 서구의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편으로 구성되어 제1편에서는 동춘선생 재실을 비롯하여 전통건축물 및 선사유적 17곳이, 제2편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정부대전청사를 비롯하여 변동성당, 한국은행 대전지점 등 45개 현대건축물을 소개하고 있다.

대전서구문화원 발행(042-488-5474)

◇건축용도별 체크리스트



건축관계법규는 1962년 이후 여러번의 개정이 있었다. 그러나 건축관련 당사자의 입자에서는 개정되는 건축법을

매번 정리하여 실무에 적용하기가 쉽지않고 법조문을 읽기에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었다. 이 책은 실무에서 건축법 전체를 보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지양하고, 짧은 시간에 보기 쉽도록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은 전체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건축법을 기준으로 건축관련법을 포함하여 짧은 시간에 체크할 수 있도록 요약정리가 되어 있으며, 제2장은 건축허가등과 자주 찾게되는 건축관련 법규를 발췌요약하여 정리하였고, 제3장은 32개의 건축물용도에 따라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제4장은 면적, 층수, 높이, 길이별로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은 제1장과 제3장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법 원문에 가깝게 정리하였다. 김홍용지음/870쪽/3만3천원/시공문화사 발행(02-737-3930)

건축사시험 일자 발표

예비시험 5월 14일
자격시험 9월 3일

올해 건축사시험 일자가 발표됐다. 건축사예비시험은 오는 5월 14일(일) 서울에서, 자격시험은 오는 9월 3일(일) 서울, 부산, 광주에서 실시된다. 시험은 지난해와 같이 필기시험의 경우 과목당 40문제 5지선다형으로 출제되고, 실기시험은 건축설계과제 1개가 부여돼 360분간 보게된다. 응시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이 예비시험 2만3천원, 자격시험 4만8천원으로 동결됐다.(106쪽 참조)

Architectural Record

Domus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1월호

이 번 호 는

Future

Systems의

Natwest 미

디어 센터와

Philippe

Stark의 뉴욕



St Martins Lane 호텔 그리고 Behnish & Partner의 수목 연구소등의 근작이 소개되었다. 건물 유형연구에서는 작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자세히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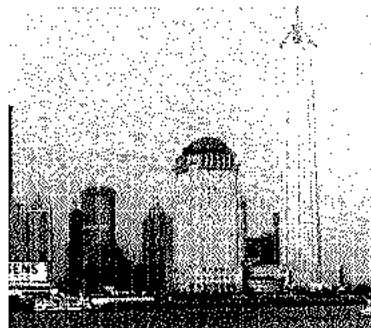
■ Future Systems의 Natwest 미디어 센터

체코 출신의 건축가 Jan Kaplicky와 그의 파트너 Amanda Levet가 운영하는 Future Systems가 디자인한 미디어센터는 우주선과 같은 형상으로 위에 떠 있어서 필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망할 수 있도록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자동차와 같은 구조로서 백색 알루미늄 자체가 구조를 이룬다. 이 같은 기술에 의해서 내부는 기둥이 제거되며, 자체하중이 가벼운 구조물이 가능케 되었다. 유선형태로 인해 조선소에서 제작되어 대지에서 조립되었다.

■ 근작소개

▶ Philippe Stark의 뉴욕 St Martins Lane 호텔

오피스 건물을 개조해 만든 호텔로서 내부의 다양한 색의 조명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기존 건물의 보와 기둥 구조를 유지한 채 로비부분은 6개의 기둥을 보강하여 기둥열에 의해 두 개의 공간, 즉 리셉션부분과 휴게공



간으로 나눈다. 침실부분은 침대의 머리말에 부분 조명을 설치하여 다양한 조명에 의해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실마다 다른 색의 조명이 아간에 색색의 모자이크와 같은 입면을 만들어낸다. 스타크는 비물질적이며 투명한 모더니티를 표방하며 그의 디자인 컨셉트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 건물을 최초의 모던 호텔이라 칭한다.

▶ Behnish & Partner의 네덜란드 수목 연구소 (IBN-DLO Institute)



옥수수밭이었던 곳에 지어진 이 연구소는 E자와 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 오피스 왕사이에 가든을 두고 있으며 가운데 동백를 이루는 긴 동에는 연구실들이 위치한다. 건물내부에 자연적인 정원을 조성하여 실내 온도 및 습도

를 정원으로의 개폐에 의해 조절한다. 이러한 기술은 매우 전통적이면서도 새로운 방식이다. 지역적 재료의 사용이나 자연 환기는 어느 시대에도 있어 왔고 단지 그것을 그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 밖에 ▶Huangpu 강을 사이에 두고 상하이 구시가지를 마주보고 있으며 포디움 부분에는 상가와 컨벤션홀이 위치하며, 타워부분은 52개 층의 오피스와 그위에 31개층의 호텔로 구성되어 있는 SOM의 상하이 Jin Mao Tower ▶Garofalo Architects의 Markow 주택 등을 소개하였다.

■ 사례 연구 - 소규모 박물관

작은 박물관이 주는 친근함과 접근성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큰 규모의 박물관과는 차별화를 시도하는 소규모 박물관들을 다루었다.

▶ David Chipperfield의 영국 Henry-on-Thames 조정 박물관 강변에 길을 따라 길게 배치되어 있는 이 건물은 콘크리트 주초에 의해 들어 올려져 있으며 박공모양의 강한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절제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형태는 마치 노를 젓는 작은 보트의 선체를 연상시킨다. 오크 패널이 수평적으로 길게 클래딩되어 있어 이러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형태와 세련된 재료의 사용으로 건물 내 외부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 밖에 ▶Frank Harmon Architect의 노스 캐롤라이나 도자기 박물관 ▶Munkenbeck+Marshall의 영국 Roche Court 뉴 아트센터 ▶Julien Architects의 캐나다 퀘벡 Chibougamau 광산 박물관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 기타

▶Landscape Architecture ▶코스보 접경지역 포토에세이 ▶설계 사무소 경영사례등을 실었다.

Domus

2000년 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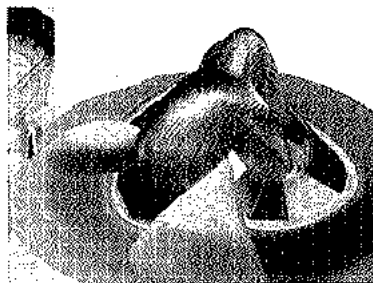
지난호에 다음 세대로의 전환을 다루었다면 이번 호는 보다 멀리 앞을 바라보고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21세기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Paul Virilio가 책의 서문을 열었는데, 통신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발전과 그것의 건축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경계하고 헤쳐나가야 될 10가지를 열거하였다.

■ 근작소개

▶ Greg Lynn의 발생학적 주택 (Embryological House)



Embryological House는 거주공간을 상표의 정체성이라는 현시대의 이슈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는 작품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피막을 자유롭게 하는 기하학적 한계를 통제하는 엄격한 시스템을 차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공간 구조와 그래픽처리로 세계적으로 상품화되는 브랜드 네임을 갖는 한편, 어떠한 두 주택도 같은 형태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혁신적이고 전형적인 디자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주택의 다양성은 각 거주자의 라이프 스타일, 사이트, 기후, 구축방법, 재료등의 유연성

으로부터 발생한다.

▶ Kolatan Mac Donald Studio의 코네티컷 Raybould House 주택 옆에 개인이 원하는 기능, 즉 골프 연습장, 목욕탕, 방갈로등을 기존의 주택에 부가하는 프로젝트로서, 기본 형태에서 돌연변이(chimera)를 만들어가는 것을 주요 컨셉으로 한다. 돌연변이는 각 부분의 구조적, 기능적 통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이 구조물이 부가된 새로운 주택은 각각 형태적 구조적, 기능적 아이덴티티를 가진다. 디지털 디자인 미디어와 디지털 생산기술에 의해 집의 각 부분이 제작된다. 각 독특한 프로파일은 CNC(Computer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에 의해 미리 제작되는 것이다.

▶ Asymptote Architecture의 가상 구겐하임 미술관



1999년 Solomon R. Guggenheim Museum은 Asymptote에게 사이버스페이스의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 디자인을 맡겼다. 온라인상의 방문자들에 의해 조정되고 작동됨으로써 다차원의 건축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강제로 예술을 대부분 미숙한 대중에 가까이 가도록 한다. 특히 20세기의 미술관은 '적당한' 건축으로 지어진다. 백색 벽과 조명이 잘 된 갤러리들은 그럴듯하게 중립적이며 적당한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문화적 권위와 이데올로기적 경향의 집을 벗지 못하고 있다. Asymptote는 예술을 경험하는 데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를 고민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존의 미술관과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그 밖에 ▶ OCEAN의 랜드스케이프 파빌리언 ▶ NOX의 Eindhoven 근처의 조립식 주택 ▶ dCOi의 런던 남쪽 제방 입구 디자인 등을 소개하였다.

■ 디자인

▶ Bruce Mau의 성장에 대한 불완전한 성명-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 공업생산품의 10가지 가능성 ▶ 밀레니엄 시대 테크노의 영향 ▶ 미학의 산업적 인류학 전개라는 제목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디자인 이론과 디자인 작품이 소개되었다.

Architecture

2000년 1월호

이 번 호 는 Laugier의 원시주거형으로부터 계속된 작은 오두막에 대한 건축적 관심을 짚어보

는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최근의 건축 이론잡지의 동향과 최근의 건축 이론 경향 등을 다루었다.

■ Primitive Hut

건축의 순수한 원형으로서 로지에의 원시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 지어지는 파빌리언 형식이나 소규모 건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그것은 작은 별장에서부터 공원의 개념적인 플리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도시조형물 등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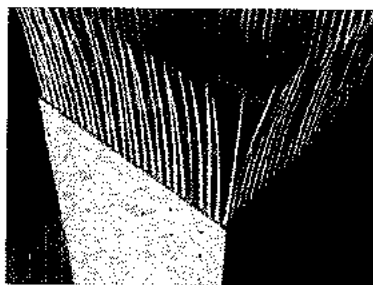
함한다.

▶ Wood and Zapata의 마이애미 Lincoln Road Gateway Structure



관광 안내소의 기능을 갖고 있는 이 구조물은 아르데코 풍의 Lincoln Road에 철과 유리의 하이테크적 외관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데 성공한 Zapata는 기울어진 유리벽과 과도한 캔틸레버 구조의 지붕이 인장과 압축의 시각적 효과를 만들면서 그것만으로 강한 형태적 특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정적인 도시가로에 두방향으로 기울어진 역동적 형태로 도시의 코너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 덴마크 건축공원(마리오 보타의 안)



덴마크 태생 건축가 Kirsten Kiser가 기획한 이 프로젝트는 유명한 건축가 13인을 초청하여 공원의 주어진 작은 대지에 작은 집을 디자인 하는 것이다. 이 공원은 1880년대 조성된 공장 노동자들의 주거단지였다가 19세기 정원 운동에 의해 타워, 포치, 나선형 계단등의 다양한 구조물들로 채워지는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이트에 현대의 주목받는 건축가들이 비슷한 규모의 파빌리언을 각자의 개성

대로 대지를 재해석하여 채워나간다.

그 밖에 ▶ 새로운 사막건축의 원형을 찾기위해 히스패닉과 토착문화의 건축 전통을 반영한 Rick Joy Architect의 Tucson, 400 South Rubio ▶ Studio Atkinson의 루이지애나주 Zachary 주택 ▶ Rhotenberry Wellen Architects의 텍사스 Ranch Shelter ▶ Architecture Research Office의 뉴욕 타임스 스퀘어 신병 스테이션 ▶ Marlon Blackwell의 노스 캐롤라이나 허니 하우스 ▶ Gluckman Mayner Architects의 Acadia 여름 미술학교

▶ Eisenman Architects의 독일 아헨, 버스 정류장

아헨의 도시적 콘텍스트와는 전혀 다른 금속 조형물로서 프랑스의 스트리트 퍼니처 제조업체의 기부로 건립되었다. 인포메이션 모니터가 달려있는 타워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의 지붕 구조물의 두부분으로 나뉘지는데 모두 종이를 접어 만든 형태를 가진다.

■ 문화

▶ 건축이론잡지의 현황

Joan Ockman은 건축이론서들을 개괄하였다. 경제체제와 인터넷의 웹진 등에 의해 그 지위가 흔들렸던 이 건축이론 잡지들이 다시금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가장 유명한 건축이론지 Assemblage와 Any가 폐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콜럼비아 대학에서 출판되는 Grey Room이라는 건축이론지는 위의 두 잡지와 Opposition과 마찬가지로 건축이론의 전반을 다루는 한편, 테크놀로지 미디어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밖에 광장이 도시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글도 다루었다.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회암초등학교

Hoiam Primary School

경기교육청은 경기도 양주 덕정택지개발지구 교사신축에 따른 설계공모를 하였다.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수용에 효율적이며, 지역실정에 알맞고 장기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인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최종 7개업체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안은 유일 ENG건축안, 2등안은 관건축, 3등안은

은 시감건축으로 선정되었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유일ENG건축안은 열린 학교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한 평면과 배치를 잘 적응한 사례로 자연스런 계획안으로 평가되었다.

▶ 당선작 / 유일ENG건축(김한성)

대지위치	경기도 양주 덕정택지개발지구 일대
대지면적	11,000㎡
건축면적	2,038.3㎡
연면적	6,092.8㎡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재	컬러블럭, 스포리트블럭, THK18 컬러복층유리
설계담당	이정진, 채정식, 박상식, 김현성, 최문식, 엄동욱, 김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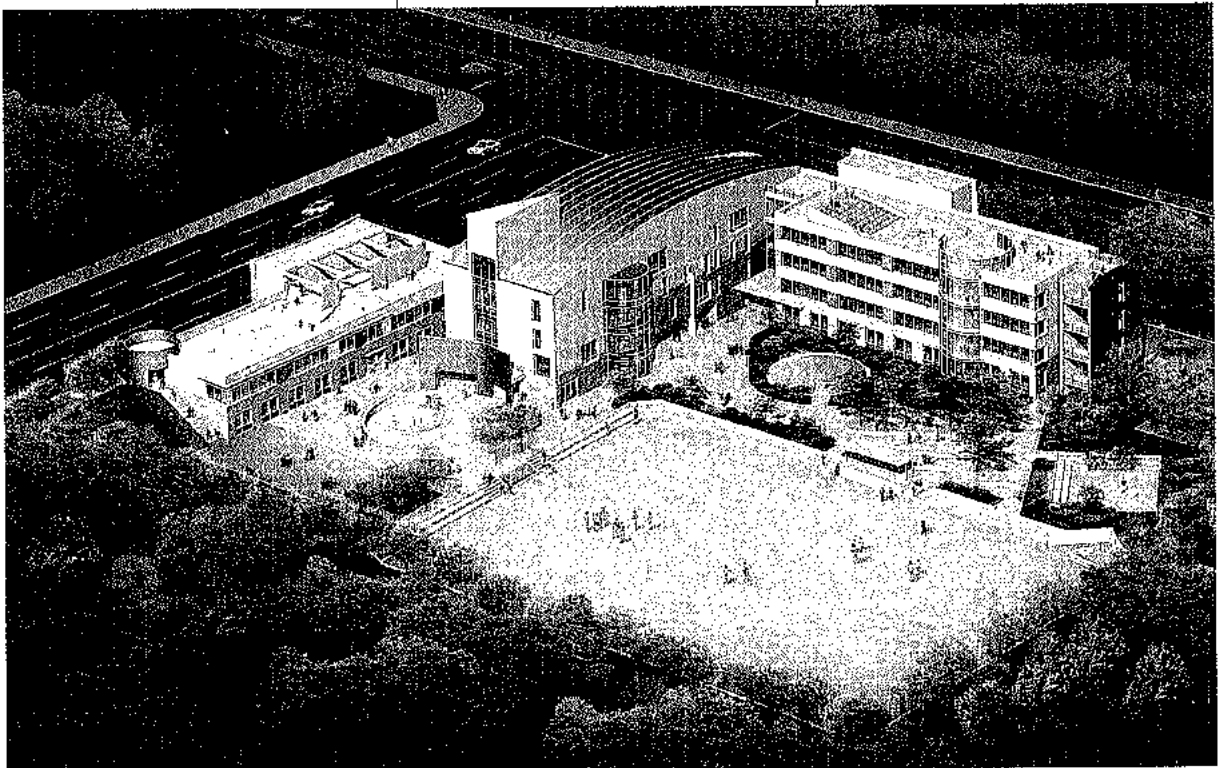
효율적이고 사용이 편리한 초등학교 계획 :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동이 각각의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서로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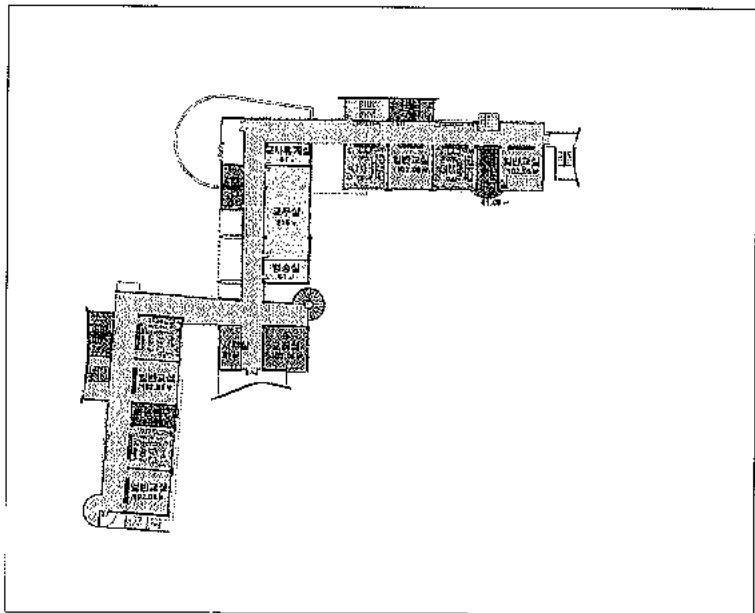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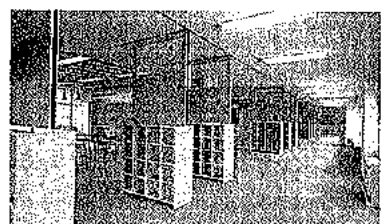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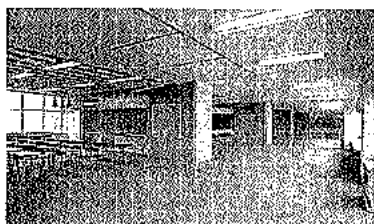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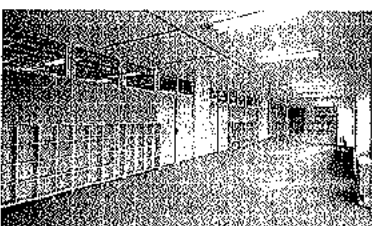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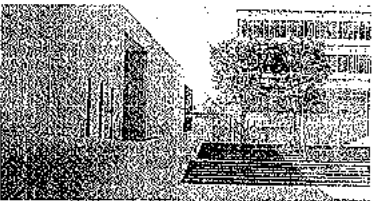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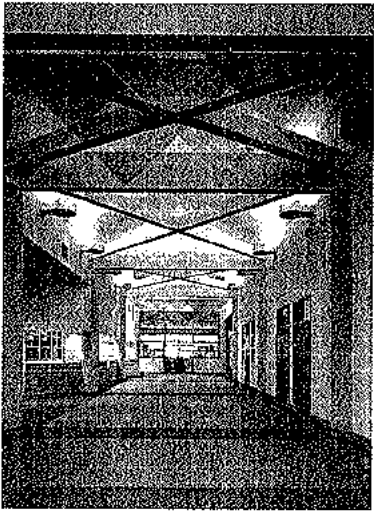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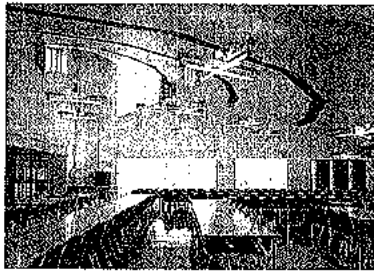
갖도록 유도하여 유기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

초등학교 교육의 시스템에 부합하는 계획 : 열린학교 시스템(OPEN SCHOOL SYSTEM)의 도입으로 인하여 정면에 가변성을 적용하여 수업의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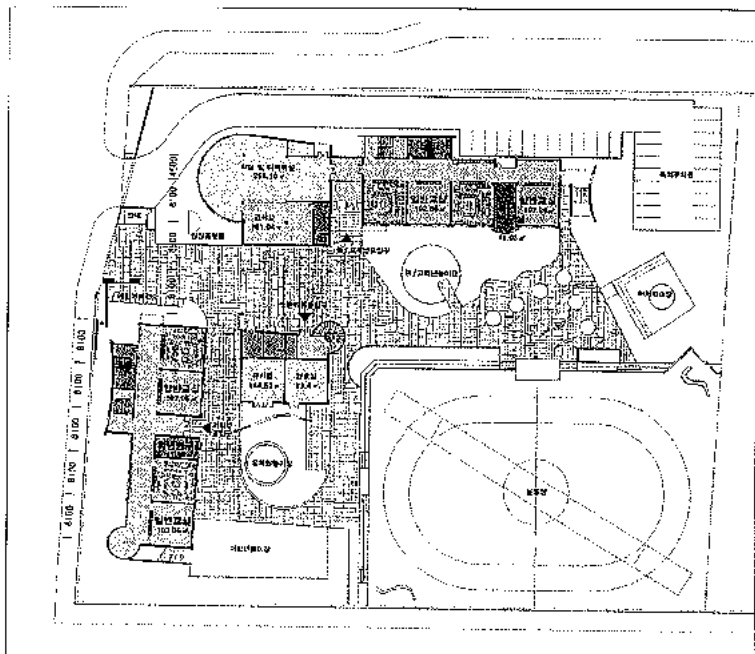
- 모든 수업은 물론 그룹 (GROUP) 수업, 여러학급의 합동수업, 학습 발표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시스템에 유동적으로 대처하여 열린교실의 교육환경을 조성
- 열린 학습공간 활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 학생 수준별 놀이 공간 및 교수 학습형태의 충족, 아동의 의식구조에 요구되는 심리적 상황에 부합된 교육환경 조성

환경친화적인 계획 : 자연적인 요소들을 대지내에 여러형태로 도입하고 자연채광을 원칙으로 설계하였다.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도 12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2월분(98.12) 4백1십9만6천1백65㎡ 보다 123.4%(5백1십7만7천1백4㎡) 증가한 9백3십7만3천2백69㎡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 누계분 5천1십1만9천1백70㎡ 보다 36.8%(1천8백4십5만4천3백37㎡) 증가한 6천8백5십7만3천5백7㎡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11월분(99.11) 7백1만2백87㎡ 보다 33.7%(2백3십6만2천9백82㎡) 증가한 9백3십7만3천2백69㎡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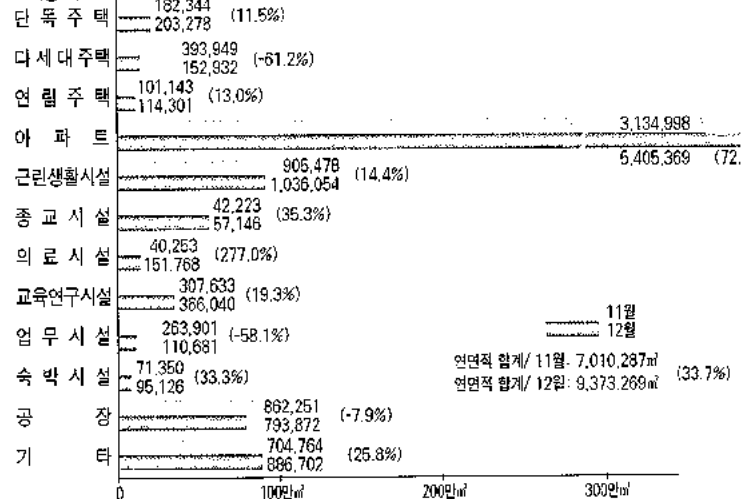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	1,841,957	5,126,991	3,285,034	178.3
대구	87,097	153,068	65,971	75.7
인천	126,184	209,383	83,199	65.9
광주	219,714	710,493	490,779	223.4
울산	14,004	269,052	255,048	1,821.3
경기	696,334	870,627	174,293	25.0
강원	70,589	158,206	87,617	124.1
충북	61,431	235,338	173,907	283.1
전북	88,165	387,413	299,248	339.4
전남	60,579	98,526	37,947	62.6
경북	135,665	203,830	68,165	50.2
경남	118,891	337,516	218,625	183.9
제주	44,771	80,263	35,492	34.6
감소지역				
부산	378,606	315,478	(63,128)	-16.7
대전	107,578	98,709	(8,869)	-8.2
충남	144,600	138,376	(6,224)	-4.3
합 계	4,196,165	9,373,269	5,177,104	123.4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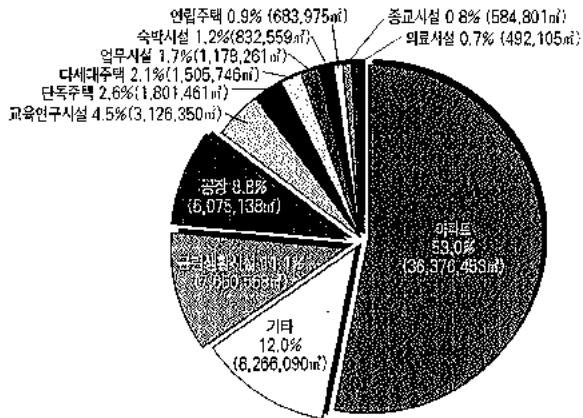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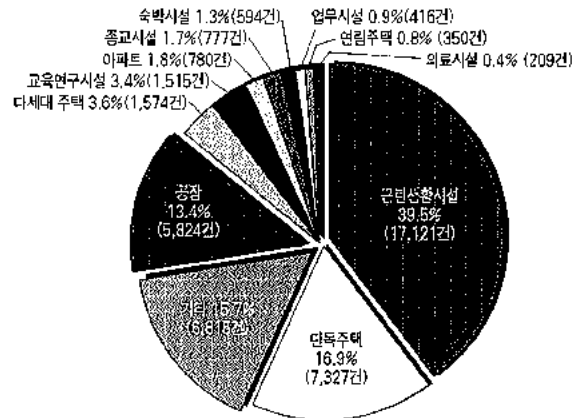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999년도 12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도											
단독주택	505	565	110,843	769	843	203,278	264	278	92,435	83.4	
다세대주택	91	111	45,213	268	279	152,932	177	168	107,719	238.2	
연립주택	26	41	82,564	60	42	114,301	34	1	31,737	38.4	
아파트	43	125	1,895,833	136	308	5,405,369	93	183	3,509,536	185.1	
근린생활시설	1,362	1,515	473,266	1,922	2,027	1,036,054	560	512	562,788	118.9	
종교시설	74	78	47,156	81	83	57,146	7	5	9,990	21.2	
의료시설	16	17	23,130	31	31	151,768	15	14	128,638	556.2	
교육연구시설	193	209	307,102	229	253	366,040	36	44	58,938	19.2	
업무시설	49	59	139,653	55	61	110,681	6	2	(28,972)	-20.7	
숙박시설	53	58	40,861	70	72	95,126	17	14	54,265	132.8	
공장	399	512	328,601	745	968	793,872	346	456	465,271	141.6	
기타	869	1,043	701,943	835	1,003	886,702	(34)	(40)	184,759	26.3	
합 계	3,680	4,333	4,196,165	5,201	5,970	9,373,269	1,521	1,637	5,177,104	123.4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12월 누계분)



연면적 (총 68,673,507㎡)



건수 (총 43,302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999년 12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362	372	1,841,957	746	747	5,126,991	384	375	3,285,034	178.3	
부산	488	748	378,606	284	365	315,478	(204)	(383)	(63,128)	-16.7	
대구	216	216	87,097	270	270	153,068	54	54	65,971	75.7	
인천	104	108	126,184	201	209	209,383	97	101	83,199	65.9	
광주	180	250	219,714	482	695	710,493	302	445	490,779	223.4	
대전	85	85	107,578	184	184	98,709	99	99	(8,869)	-8.2	
울산	42	42	14,004	140	156	269,052	98	114	255,048	1,821.3	
경기	873	1,003	696,334	926	1,113	870,627	53	110	174,293	25.0	
강원	181	197	70,589	209	219	158,206	28	22	87,617	124.1	
충북	128	161	61,431	279	355	235,338	151	194	173,907	283.1	
충남	191	173	144,600	192	192	138,376	1	19	(6,224)	-4.3	
전북	125	125	88,165	367	367	387,413	242	242	299,248	339.4	
전남	141	152	60,579	175	180	98,526	34	28	37,947	62.6	
경북	192	247	135,665	299	349	203,830	107	102	68,165	50.2	
경남	253	322	118,891	347	459	337,516	94	137	218,625	183.9	
제주	119	132	44,771	100	110	60,263	(19)	(22)	15,492	34.6	
합계	3,680	4,333	4,196,165	5,201	5,970	9,373,269	1,521	1,637	5,177,104	123.4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999년 12월 누계)

구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5,329	5,398	26,461,514	5,558	5,581	35,986,179	229	183	9,524,665	36.0	
부산	1,999	4,115	3,108,451	2,017	2,900	2,013,694	18	(1,215)	(1,094,757)	-35.2	
대구	1,290	1,290	977,279	2,083	2,083	1,998,159	793	793	1,020,880	104.5	
인천	1,419	1,440	2,143,736	1,478	1,527	2,698,652	59	87	554,916	25.9	
광주	1,230	1,539	1,030,114	1,805	2,358	2,417,471	575	819	1,387,357	134.7	
대전	921	921	812,618	1,132	1,132	693,372	211	211	(119,246)	-14.7	
울산	539	588	276,011	1,145	1,174	943,555	606	606	667,544	241.9	
경기	8,088	9,418	6,166,521	10,095	12,202	10,569,921	2,007	2,784	4,403,400	71.4	
강원	2,174	2,387	987,789	2,110	2,315	989,849	(64)	(72)	2,060	0.2	
충북	1,982	2,427	2,037,848	2,765	3,176	1,618,666	783	749	(419,182)	-20.6	
충남	1,960	1,687	1,079,044	2,212	2,212	1,325,174	252	545	246,130	22.8	
전북	1,143	1,143	908,214	1,850	1,878	1,296,399	707	735	388,185	42.7	
전남	1,379	1,518	688,821	2,001	2,062	1,025,808	622	544	336,987	48.9	
경북	1,940	2,198	1,048,571	2,481	2,924	1,722,272	541	726	673,701	64.2	
경남	2,411	2,970	2,072,461	3,446	4,159	2,791,799	1,035	1,189	719,338	34.7	
제주	797	920	320,178	1,124	1,279	482,537	327	359	162,359	50.7	
합계	34,601	39,919	50,119,170	43,302	48,962	68,573,507	8,701	9,043	18,454,337	36.8	()=미아너스

회원현황 members

회원변동사항(12월)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월말 회원수	7,219	2,831	685	534	221	237	262	142	843	168	187	177	192	105	248	316	71
금 별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회 원 수	7205 16	2827 4	684 1	534	221 0	237 0	261 1	142 0	840 3	168 0	186 1	173 4	191 1	104 1	248 0	316 0	71 0
회 원 변 동 사 항	입 회	72	19	5	2	1	2	5	14	6	2	3	5	1	4	1	2
	재 입 회	3	1					1		1							
	전 입	12	4			2	2		2							1	
	전 출	10				-1	-1		-3		-1		-1	-1	-1	-1	
	배 입	-16	-8	-1		-2	-1		-2				-1		-1		
	사 망	-1												-1			
등록취소																	
금월말 회원수	7205 16	2840 4	688 1	536 0	221 0	240 0	262 1	147 0	852 3	173 0	188 1	176 4	194 1	103 1	250 0	317 0	73 0
계	7,279	2,847	689	536	221	240	263	147	855	173	189	180	195	104	250	317	73

99년도 회원변동사항(12월 누계)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금 별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1금 2금
입 회	662	197	52	38	18	19	27	28	108	21	29	24	21	11	33	27	9
재 입 회	83	31	9	2	1	4		1	17	1	1	2	5	1		8	
전 입	136	3	50	5	2	10	7	7	26	4	1	10	1	4	2	5	2
복 권	2	2															
소 계	883	3	280	0	66	0	42	0	29	0	30	0	34	0	29	0	151
계	886	280	66	42	29	30	34	29	151	26	31	37	32	14	36	37	10
전 출	131	1	33	2	4	7	4	1	42	4	6	4	3	4	4	2	1
배 입	215	6	97	7	8	8	6	5	2	40	1	2	4	3	10	2	2
사 망	16	5	1	1	1				3					2		3	
등 록 취 소	4	1	4	1													
소 계	366	8	139	1	10	0	13	0	16	1	10	0	8	1	2	0	85
계	374	140	10	13	17	10	7	2	86	6	10	22	15	8	12	15	1
누 계	512	140	56	29	12	20	27	27	65	20	21	15	17	6	26	22	9

IntelliARC 2000

다이나믹어 홈페이지
www.iarc.co.kr

IntelliARC는 제3회 CAD/CAM공모전에 출품하여 2000년2월11일 과학기술회관에서 CAD/CAM학회 동상을 시상하였으며, “자동화된 건축설계를 위한 CAD System의 개발 및 발전방향”의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여 앞으로 건축설계 자동화 도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 및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자동화 도구를 선보임으로써 자동화 도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기능의 우수성을 평가받은 IntelliARC는 저가 CAD시장에서 가장 많은 보급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으로 1999년 7월부터 각 시도별 건축사 회원에게 약 3,000 Copy, 학교에 약 1,000 Copy를 보급하였으며, 부산 건축사회, 강남건축사회, 동대문구건축사회, 강원도건축사회, 경기도건축사회에 직접 협약을 하였고, 타 시도건축사회에는 전국 공인 딜러망을 통해 건축사회원 분에게 직접설치완료료를 하여 사용자가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후 IntelliARC는 많은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99.7월 이후 다이나믹어 홈페이지 www.iarc.co.kr, www.chollian.net/~iarc를 통하여 8회에 걸쳐 무상 Upgrade를 실시하였으며, IntelliARC 98 버전은 2000년 2월 15일에 마지막 Upgrade를 실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조그만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IntelliARC 2000

버전을 3월에 무상 Upgrade를 실시하게 된다.

IntelliARC를 구입하신 분은 다이나믹어 홈페이지 http://www.iarc.co.kr이나 http://www.cadpia.net에 방문하셔서 IntelliCAD2000 CD 받을 곳의 주소나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IntelliARC의 최신 소식과 2000버전 CD를 가장 빠르게 받을 수 있다.

〈IntelliARC 2000의 주요 기능〉

- ① 지능적 도면 작성과 편집기능
- ② 기존 방식에서 발전된 모델리스 대화상자 구성
- ③ 더욱 다양화된 편집기능 지원
- ④ 자동화 도구간의 Data 공유
- ⑤ 추상적 데이터를 이용한 자동화 도구 지원

유리도어 사고방지 안전장치

(주) 신원안전유리 (062)527-0170, 0171

구성 및 작용

이 기술의 특징은, 마주하는 면에 길이 방향을 따라 손잡이 부근과 고정된 도어를 사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면에 긴 절취홈이 형성되는 두 유리도어와 유리도어의 내외면중 어느 한쪽에 절취홈의 상하단에 위치하도록 장착되고, 한쪽 끝에 고정홈을 갖는 덮개부가 형성되며, 내면에 끼움구멍을 갖는 제1보스가 형성되고, 끼움구멍의 내면에 걸림턱이 형성되는 제1 홀더분할체와 유리도어의 다른 한쪽에 제1홀더분할체와 대응되도록 장착되며, 제1홀더분할체의 덮개부와 대응하는 위치에 고정홈을 갖는 덮개부가 형성되고, 제1 보스

의 걸림턱에 걸리도록 끼움구멍에 끼워지는 제2 보스를 갖는 제2 홀더분할체와 제2 보스를 관통하여 제1 보스에 고정되는 고정수단과 제1 및 제2 홀더분할체의 고정홈에 끼워져 고정되는 고정부를 가지며, 고정부의 한쪽에 격판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 변형흡수공간을 갖는 변형부가 형성되는 탄성변형체는 밀착되어 건물의 실내와 실외로의 공기 흐름을 차단하여 단열 및 방음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유리도어용 안전장치에 있다.

효과

이 기술의 유리도어용 안전장치에

의하면 종래의 기술에 비해 유리도어 경계면에 간단한 제1, 제2 홀더분할체의 협동에 의해 유리도어에 나사구멍을 없애고 조립나사가 현저히 감소하여 탄성변형체 조립이 용이하고, 일정한 범위에서만 조임력을 받기 때문에 조립이나 문을 열고 닫을 때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할 수 있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작,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변형부는 기존 유리도어가 단일 색상의 단순한 사각형태였으나 변형 흡수공간 절취홈 고정부, 탄성 변형체를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재질을 사용하여 미관상 보기도 좋다.